노인의 고독을 해방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

Role of the Church for Loneliness of The Elderly

BY

LEE, DAE WOO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Phildelphia, Pennsylvania

2011

ABSTRACT

Role of the Church for Loneliness of The Elderly

BY

LEE, DAE WOO

Except for the Native Americans, all people living in America migrated from other countries. The very strength of America is thus to accept diversity and improve itself through continuous immigration. The first 7,200 Koreans arrived in Hawaii plantation seeking for places to work between 1890's and 1900's.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started off like this. As of 2003, over two million Korean-Americans live in America as the fourth largest Asian ethnic country after Chinese, Filipinos, and Asian Indians.

According to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Greater Philadelphia, 70,000 Koreans and 3,000 elderly people out of 7,000 reside in Philadelphia as of the year of 2,000. There are 130 Korean churches and a few senior schools run by Korean churches and associations. Many elderly people live in senior apartments. Elderly people in the Korean community are isolated from the community and churches due to cultural and generational conflicts. Therefore, Korean churches and community should play roles in helping elderly people contribute their lives to the Korean community and neighborhood where they live in.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Philadelphia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2, 1981 by the first pastor, Hee-Young Hwang. Dae Woo Lee was appointed as the fourth pastor of the church. This church was founded at North Philadelphia and grew with Korean community. However, due to the lack of interest in the elderly and the failure of proper ministry for them, many members moved to other churches. This

church revived as a new church that supports neighbors with the slogans of "A church to help community," "A Church to love others like a family," "A Church to grow with Korean community," and "A Church to evangeliz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are increasing because of the prolonged life span caused by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and facility, and advancement of welfare facility. We are now embracing a new era. The 21st century can be called "open era." It is the era of information, openness, and diversification. Elderly people in a modern society lost their authority and roles as the family structure was destructed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y actually experience isolations from their family, community, and peers. Similarly, Korean elderly people are segregated from Korean immigration society due to the rapid social changes and cultural and generational conflicts even if they may have skilled professional expertise.

Therefore, the most critical problem in the 21st century will be the problem of the elderly peopl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is getting increasing swiftly. Korean adolescents and elderly people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groups in the Korean-American immigration history. Now, more serious problems lie in the elderly. It is because elderly people may end up their lives with loneliness after failing to adjust their new language and culture in America. Those who adjusted their elderly lives were the people who already adjusted to their new lives in America, those who viewe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practically, and those who had positive self-esteem when they were young. Therefore, strategies to change the lives of the Korean elderly are called for in the Korean community. Korean-American church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values as believers, and thus they need to go back to "Jesus Community" as an organism.

This study stresses the importance of ministry for the elderly and proposes assignments to the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Philadelphia and the greater Philadelphia community with the title of “Role of the Church for Loneliness of The Elderly.” Chapter 3 defines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modern society where there are conflicts of values, destruction of fundamental social order, and eventually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This chapter summarizes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biblical-theological, educational-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Chapter 4 finds the causes of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modernization with biblical-theological, educational-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views.

Chapter 5 addresses the roles of churches in solving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by arguing that the churches should be a “life community,” “role enforcer,” “creation community,” “member of responsible society,” and “founder and developer of spiritual gifts.”

Chapter 6 and 7 propose practical suggestions to solve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and evaluate each suggestion.

In Chapter 8, I executed ministerial competencies with my researchers. Many immigrant elderly people live as forgotten, isolated, and marginal group. It is limited to solve problems of the elderly as individuals. Korean churches and ministries should therefore offer proper solutions with the elderly.

ACKNOWLEDGEMENT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 어려운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제 자신과 목회에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NYTS의 Dr. Keith A. Russell와 여러 교수님들과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의 고독을 해방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는 가운데 노인 목회 사역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으며 모든 분야에서 더욱 연구해야할 과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NYTS 학교로 자상히 인도해 주셨던 차원태 교수님과 본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서 친절과 정성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신 백창건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부하는 동안 나눔과 섬김의 우정을 보여준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준 Site Team과 격려해주신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해주신 어머님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형제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공부를 끝까지 마치도록 사랑으로 내조해 준 아내 이경림과 아빠를 도와 기쁨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승학. 민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년 5월 Philadelphia 에서

이대우

목　　차(CONTENTS)

Ⅰ. 연구의 배경 및 문제 분석 1
1. 목회 현장의 배경 1
1) 미주 한인 역사 1
2) 필라델피아 역사 3
3) 필라델피아 한인회 역사 4
2. 필라 한빛 교회의 역사 및 상황 5
3. 문제제기 및 연구방향 7
1) 문제제기 7
2) 연구 목적과 목표 8

Ⅱ 노인 고독의 실제 11
1. 노인 고독 상담 사역 사례 조사 및 분석 11
1) 연구원: 김희영(필라한빛 교회 집사) 11
2) 연구원: 이민성(필라한빛 봉사자) 12
2. 실버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사역(연구원:이승학 필라한빛교회집사)....................21
1) 노인 설문조사 22
2) 노인 설문지 분석 24
3. 한미 연합 예배 및 친교 사역(연구원:오창훈 필라한빛교회 안수집사)....................26

Ⅲ. 현대사회에서의 노인 문제의 배경 32
1. 급변하는 후기 산업사회 32
1) 사회의 현대화 32

2) 핵가족 제도의 보편화 34
3) 위험한 은퇴기 36
4) 노인의 시간 38
2. 현대사회의 특징 40
1) 노년의 인구 증가 40
2) 노인의 위기 의식 41
3) 노인의 성격 44
3. 사라져 가는 사람들 46
1) 노인의 고독 46
2) 노인의 문제 47
3) 노인의 과제 48
4. 성례전적 우주 50
1) 기독교인의 세계관 50
2) 상호 의존적 관계 51
3) 문화적 고독 52

Ⅳ. 노인 문제의 발생 원인 54
1. 사회의 위기 54
1) 테크놀리지 54
2) 도덕성 56
3) 노인과 일 57
2. 포스트모던니즘 58
1) 포스트모던시대 58
2) 젊은이 위주의 문화 59
3. 인간소외 61

1) 죄의 정의 61
2) 소외된 관계 62
4. 관계의 단절 63
1) 인간의 본성 63
2) 과학기술의 발달 64
3) 의사소통의 상실 65
5. 노인들의 의식 67
1) 노인의 소외 67
2) 노인의 죽음 68

Ⅵ. 노인의 고독을 해방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 71
1. 생명공동체로서의 역할 71
1) 생명에 대한 이해 71
2) 성경의 노년의 삶 72
2. 역할강화의 역할 75
1) 노인의 평생교육 75
2) 노인 교육의 방법과 내용 77
3) 노인의 발달 79
3. 창조 공동체의 역할 81
1) 친구관계 81
2) 인간의 구원 82
3) 열린 공동체 83
4. 책임사회의 역할 85
1) 문화의 변혁 85
2) 인격적인 공동체 87

5. 성서적 영성을 개발하는 역할 90
1) 삼위일체적 영성 90
2) 사랑의 공동체 91
3) 꿈꾸는 노인 94
6. 은사의 발견과 개발자의 역할 95
1) 은사의 활용 95
2) 다문화주의 97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97
4) 자원봉사의 활성화 98

Ⅶ. 본 논문의 프로젝트 과제 평가 101
1. 변화 전환을 위한 계획 101
1) 교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계획 101
2) 노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계획..105
2. 노인의 고독 해방을 위한 실천 계획 108
3. 구조변화를 위한 계획 123
1) 교회구조 변화 123
2) 가정구조 변화..126
3) 노인들의 생활 변화..127
4) 주변 사회적 조건의 변화 129
4. 노인 고독 해방을 위한 시행에 대한 평가(예상하는 기대 사항)........................132

Ⅷ. 목회유능성 개발..143
1. 연구반원의 평가 143
2. 목회 능력 개발 시행 148

I. 연구의 배경 및 문제 분석

1. 목회 현장의 배경

1) 미주한인 역사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주민(American Indian)을 제외하고는 타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국을 '섞여서 녹은 가마솥'(melting pot)이라고 부른다.[1] 미국은 복합민족과 문화로 구성된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세계에 가장 풍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1892년부터 1934년까지 30여 년간 뉴욕 항을 통하여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 인구의 40%인 1억 명이 이들의 후예이다. 각 이민자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 종교,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할 뿐만아니라 미국문화 형성에 적지 않은 여향을 주고 있다.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법을 제정하였다. 그들은 미국 민주주의에 초석을 놓았고, 아일랜드의 이민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내렸고, 독일의 이민자들은 우수한 교육제도와 음악의 터를 잡았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조각과 건축을 가져왔고, 서반어계 이민자들은 견고한 가족제도를 본보였고, 유태인 이민자들은 철저한 신앙심으로 가정교육과 학문적 연구에 공헌하였으며, 동양계 이민자들은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공헌하였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우수 대학 800개 중의 3분의 2가 넘는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다.[2] 미국의 강점은 끊임없는 이민을 통하여 다양성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

[1]한 홍,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125.

[2]윤사무엘, *미주 한인교회 100년의 발자취와 비전* (서울: 보이스사, 2002), 21-26.

근대적인 국가로 형성되는 첫 100년(1776 - 1875)동안, 미국은 이민에 대해 아무런 규제 없이 받아들이는 무제한 개방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1875년 범죄자와 매춘부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규정이 처음 시행되었고 그 다음 1882년에는 최초의 미연방 이민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범죄자와 광인, 저능자, 생활보호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민을 제한하는 법률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는 독일이나 영국, 아일랜드, 이태리 같은 서유럽 국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으로 향한 최초의 한인들은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사이 약 7,200명이 일자리를 찾아 하와이에 있는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했다. 이 때부터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1905년까지 하와이 농장에는 몇 천 명의 한국 총각들이 일을 하게 되었고 이들의 안정정인 생활을 위해 결혼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떠올랐다. 1924년 '동양인 배척법'이 생길 때까지 14년 동안 1천여 명의 한국 처녀들이 이른바 '사진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떠나왔다. 그 후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며 이민에 급작스런 제동이 걸렸고 1917년과 1921년, 1924년 연달아 쏟아지는 상당히 제한적인 이민법이 제정되며 미국으로 향한 한인들의 이민이 금지되었다.[3]

1950년대에 들어 한국인 이민자의 수가 점차 증가되어 1960년대에는 그 속도가 급격하였다.[4] 1970년대에는 개정 이민법의 효과로 전문직 종사의 이민이 급증하여서 매년 3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1976년에 전문인 이민이 막혔지만 가족초청 이민이 늘어나서 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던 한인 이민자수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 사회가 안정되자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90년대부터는 연간 1만4천~1만5천명 수준으로 고정됐다. 2003년 현재 재미교포는 2백만이 넘어 아시아국가에서는 중국 필리핀 인도에 이어 4번째이다.

---

[3]Ibid., 29-63.

[4]Ibid., 158.

2)필라델피아 역사

미합중국이 탄생한 곳인 필라델피아는 뉴욕에서 남쪽으로 100마일, 수도인 워싱턴 D. C.에서 북쪽으로 150마일, 펜실베니아주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2010년 1,526,006명에 달해 2000년 인구조사 때보다 8,456명이 늘었으며, 인구 순위로 미국 6대 도시(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톤, 필라델피아)에 해당된다고 연방통계청이 공식 발표했다.

필라델피아는 1682년에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펜(William Penn)이 영국 찰스 2세의 칙허 장을 받아 박해를 받고 있는 퀘이커 교도를 위해 개발한 도시이다. Penn은 법률로써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전원 도시 건설에 전력을 기울였다. Penn이 명명한 Philadelphia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형제애"를 의미한다. 그 후 미국 독립의 중심이 되었으며, 자유의 종을 비롯하여 독립에 관련이 있는 많은 유적이 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의 서명과 1789년 미국 헌법제정으로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고 1789년에는 미합중국 13개 주가 모여 최초의 연방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립하였던 곳이다. 이 도시는 제1차 대륙회의, 1776년 미국 독립선언과 미국 독립전쟁을 선포한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린 곳으로 유명하다. 1787년에는 헌법이 기초되고, 1790년부터 10년 동안은 연방의 수도였다.

현재는 미국 제2의 항구도시로서, 국내 각지의 항구로부터의 수입이 많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 조당(粗糖), 철광석, 양모, 면화 등이고, 수출은 석유 정제품, 설철(屑鐵), 석탄, 기관차 등이다. 제조업, 상업, 금융업의 중심이고, 산업은 전통적인 출판업이 유명하다. 많은 공원, 극장, 교회, 교육, 자선시설, 병원 등이 있으며, 동부의 예술 중심지이다. 주변에는 비옥한 농업지대가 있다.[5]

---

[5]중앙교연,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범한, 2004년) http://ko.wikipedia.org/wiki/ 2011년 3월 26일 (토)

3) 필라델피아 한인회 역사

1970년대는 미국 이민 문호가 활짝 열렸던 시기다. 이민법 개정에 따라 취업 이민 길이 넓어져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 한인들이 쏟아져 들어 왔다. 그때까지 유학생 위주의 이민 사회 구조가 사업자, 각 분야의 전문인 등의 정착으로 대폭 바뀌었다. 40-50명 정도의 유학생과 수련의 등의 정착으로 50년대 한인 인구수가 200명이 채 안되었으나 60년대에 들어 500-600명 선을 넘어 섰고 70년대에 들어서는 2,000 - 3,000명을 헤아리는 수준까지 급증하였다.

1970년 10월에 필라델피아 한인회가 탄생되면서 경제인협회, 의사협회 등 각종 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었고 동포 언론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인 교회도 속속 창립되었고 이에 따라 교회를 중심으로 2세를 위한 한국학교 설립도 줄을 이었다. 특별히 한인 봉사를 위한 서재필 의료센터가 설립되어 한인들의 필라 정착을 도왔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한인사회 긍지로 자리 잡았다. 미국 학교에 등록하는 한인 어린이 수가 대폭 늘어 한인 교사까지 배출하는 발전의 시기였다.

1970년대는 동포 사업체도 다양하여져 한국 그로서리, 서양 그로서리, 벤더, 가발가게, 세탁업 등 업종별 구별이 뚜렷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또 보험이나 부동산업에 뛰어 들어 차분히 성장세를 누리는 한인들도 나타났다. 필라 한인회는 1970년 10월 3일 역사의 장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과 필라 한인회의 탄생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낸 당시의 동포의 정서는 미국 독립의 산실이요 조국 독립을 위한 서재필 박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자긍심의 도시에서 애국적 향수를 간직하고 싶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초대 회장은 제퍼슨 병원 의사인 이규환 씨로 세웠다.

1972년 9월에 한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뉴스 필라 로간 지역(North Philadelphia Logan region)에 있던 로간 한인 교회에서 김창인 목사가 부흥집회를 했다. 미 독립 200주년 기념을 맞아 한미 간 우의의 표시로 필라델피아 중심가 델라웨어 강변에 있는 세계조각공원(World Sculpture Garden)에 서 있는 망부석을 한국국제문화협회(회장 홍성철)가 필라델피아에 기증하였다 역대 회장단은 시대에 합당

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6]

1970년 이래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2000년 현재 100만 이상이 되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필라델피아에서는 한인 동포의 수가 증가하고 상업 활동이 적극적이다. 1970년에는 미국 전체 한인이민자의 거의 90% 이상이 50세 미만이었고 60세 이상은 5% 정도였다. 1984년에는 60세 이상 한인 노인 이민자들의 비율은 77%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한인 동포들이 시민권을 취득해서 노부모님들을 초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 예정지로는 캘리포니아 L. A가 20-30%로 가장 높고, 뉴욕 주 뉴욕이 약10%이며,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가 6-7%이며.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는 4%가 정착했다.[7] 그러므로 한인 노인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필라 한인회에 의하면 필라델피아에 2000년 현재 한인이 7만 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노인은 3000명으로 추산된다. 한인 교회는 130여 개가 있으며, 교회와 한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학이 있으며 노인 아파트에도 한인 노인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한인 사회의 노인들은 문화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문제를 교회와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한인 노인들의 삶을 보람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여생을 보람 있게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2. 필라 한빛 교회의 역사 및 상황

필라델피아 성결교회는 1981년 2월 22일 초대 황희영 목사와 더불어 창립되었다. 1981년 12월 1일 제 2대 이치영 목사가 부임한 후 1984년 1월 8일 필라델피아 한빛 교회로 교회명칭을 변경했다. 제3대 신태진 목사가 부임하였다. 1997년 4월

---

[6]이창희, *필라델피아한인사* (필라델피아 한인회, 1995), 140.

[7]Pyong Gap Min, *Asian Americans* (SAGE Publications, 1995), 199-210.

20일 김동국 목사가 협동목사로 부임하였다. 1997년 12월 21일 제 4대 이대우 목사가 부임하였다.

전 교인 프리셉트 성경공부를 실시하였고, 대학선교와 노인선교를 실시하였다. 2001년 4월 29일 본 교회를 Huntingdon Valley(Grace Bible Fellowship)로 이전하였다. 미국교회는 AMEC 교단의 Grace Bible Fellowship 교회였다. 2001년 2월 담임 이대우 목사가 제24회 중부 지방회장으로 시무하였다 2003년 3월30일 전교인 사랑의 독서운동을 실시하였다. 2003년 9월20일 한빛 토요학교를 개교하였다. 2003년 11월2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미국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다. 2004년 6월4일 미국교회와 주일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예배 드렸다. 2004년 7월11일 월드비젼 사랑의 자녀 갖기 운동 실시하였다. 2004년 8월6일 미국교회와 English Class 시작하였다(매주 금요일). 2005년 10월 02일 교회창립 24주년 및 임직식을 하였다(권사취임:이경림 집사안수:오창훈). 2006년 10월22일 태국 선교사 파송(이민성)하였다. 2007년 2월 필라 기독교 방송 선교(이대우 목사 매주일 설교)하였다. 2007년 4월14일 한국 진중세례식 거행하였다(논산 1500명 담임목사외 21명). 2007년 9월 23일 중국 북한 선교하였다(이승학). 2008년 4월 12일 친구초청의 밤 행사를 청년회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2008년 6월 29일-7월2일 자마 필라대회 전교인 참석하였다. 2008년 11월 12일 필라목사회 30회 총회 필라 한빛교회 이대우 담임목사 회장 선출되어 시무하였다. 2011년 현재 담임 이대우 목사가 제34회 중앙 지방회장으로 시무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본 교회는 30년 전 필라델피아 북부에 세워져 한인사회 성장과 더불어 교회도 성장하였으나,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므로 많은 가정이 타 지역과 다른 교회로 떠나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다시 개척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 가족과 같은 사랑의 교회,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 온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있다.

2. 문제제기 및 연구방향

1) 문제제기

인구 센서스국의 자료에 의하면 20세기가 시작될 당시 세계 인구는 16억 명이었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인구 폭발로 지난 50년간 무려 35억 명이 증가했으며 21세기 들어서도 인구폭발은 계속되어 2025년에는 세계인구가 80억 명이 될 것이며 2050년에는 84억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7년 세계의 노인 남성 인구가 2억5천1백만 명이고 노인 여성 인구가 3억1천만 명이다. 앞으로 2025년까지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남성이 5억4천6백만이 되고 여성이 6억4천5백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는 현대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과 시설의 발달, 복지시설의 발전으로 노인들이 장수하기 때문에, 노인의 인구가 비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1세기를 열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화, 개방화, 다원화 시대이다. 현대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가족제도의 붕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과거 가정과 사회에서 권위자였던 현대 노인들이 이제는 가정과 사회에서 권위와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현대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 자기 자신과 동료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인노인들도 이러한 사회변화와 문화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사회생활을 통하여 숙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있지만 이민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8] 그러므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인 문제가 될 것이다.

세계의 인구 증가률 가운데 노인층이 차지라는 비율은 매우 급증하고 있다.[9] 인류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고 현대교회도 노인들을 위한 새

---

[8]이원규,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98.

[9]김성순, *노인복지론* (서울: 이우출판사, 1981), 22.

로운 전략을 세워야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이해되어 가는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노인들은 나이는 들었지만 삶의 욕구가 있으며 노인이기를 부정하고 싶다는 것이 노인들의 일반적인 심정이다. 노인들은 노련한 경험과 기술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풍요로움과 가정과 교회, 사회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인 이민 역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계층은 한인 청소년과 노인들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계층은 노인들이다. 한인 노인들은 언어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독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은퇴 전에도 잘 적응했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장점과 약점을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며, 젊었을 때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10]. 한인 노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서 한인 노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미주 한인교회는 한인의 가치체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강조하고 있다.[11] 미주 한인교회가 예수공동체로 되돌아가 유기체로서의 일체성을 회복해야 하겠다.

2) 연구 목적과 목표

본 연구 프로젝트는 필라 한빛교회 및 필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고독을 해방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구하는 가운데 노인 목회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야에서 더욱 연구해야할 과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 서론에서는 본 논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목회현장의 배경을 제시하고

---

[10]Gary R. Collins, *크리스챤 카운슬링* 피현희, 이혜련 역, (서울: 두란노, 1992), 378.

[11]민병갑 외 9인, *미국속의 한국인* (서울: 유림문화사, 1991), 273-277.

문제제기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부에서는 연구원들과 함께 노인의 고독 상담사역 사례조사와 분석을 하고, 실버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사역과 노인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 문제의 실상을 파악했다. 한미연합사역 및 친교사역을 통해 노인의 고독의 실제를 파악하였다.

제3부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노인 문제의 배경들의 실체를 정의하고, 후기 산업화 사회의 사회변동으로 현대적인 가치들과 대립되면서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태도나 행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기존 공동체 질서에 상실을 초래하였고, 노인문제의 발단이 되었다.[12] 그들이 공유하는 문제의 개요를 밝혔다.

제4부에서는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은 현대화(modernization)에 기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대, 도시화는 현대화의 핵심적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다른 요인들을 유발시키거나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쳐 노인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급속한 현대화 과정의 인과적 관계를 통하여 노인들은 역할상실 및 여가시간의 문제, 수입 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 건강보호의 문제, 심리사회적 고립과 소외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13] 노인들의 문제를 학문적인 시각과 이민사회의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제 5부에서는 노인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여섯 가지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생명공동체로서의 역할 역할, 강화의 역할, 창조 공동체의 역할, 책임사회의 역할 , 성서적 영성을 개발하는 역할, 은사의 발견과 개발자의 역할 필라 한빛 교회의 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이지만, 이민사회의 한인노인들의 문제에 대안이 되도록 연구하였다.

제6부에서는 노인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민자 한인 노인들은 상당수가 미국에서 잊힌 무리로, 고립된 집단으로, 주변인으로 살고 있다. 노인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

[12]이원규,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189.

[13]장인협, 최성재 공저,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25.

있다. 한인교회는 노인과 그들의 문제 사이에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며, 한인목회가 노인들의 고독을 해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7부에서는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을 위해 연구반원들과 여러 면에서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제 8부 결론 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정리 요약하고 교회 노인목회의 활성화와 교회 노인목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제언하였다.

Ⅱ 노인 고독의 실제

1.노인 고독 상담 사역 사례 조사 및 분석

1)연구원: 김희영(필라한빛 교회 집사)

본 논문의 연구원은 필라델피아지역 일간지인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이 필라 한빛 성결교회를 기고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성도들 (담임 목사 이대우)

필라델피아 한빛 성결교회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위의 골로새서 말씀이 떠오른다. 기자가 한빛 교회를 섬긴 지 어느덧 8년이 넘었다. 그 동안 담임 목사님(이대우 목사)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이었다고 기억된다. 항상 권위나 체면보다는 먼지 풀풀 나는 성도들의 이삿짐을 손수 나르시고, 교회 구석구석 청소에 직접 앞장서시는 목사님, 형편이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새벽부터 아이들의 밥은 물론이고 영의 안식까지 챙기시며 기도하시는 사모님 덕에 모든 성도들은 웬만한 작은 섬김으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형편이다.

그 때문인지 한빛 교인들은 어떤 일이든 교회와 관련된 사역에 있어서는 열심히 자원봉사를 한다. 피아노 반주, 찬양팀, 차량 운행, 토요학교 교사 등등. 이 모두가 자원봉사로 섬기지만 어느 누구 하나 불평 한 마디 없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의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으며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말씀 한 마디엔 온 성도들 모두가 순종하는 성도(yes man)가 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의 종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가장 먼저 배웠다. 이것이 진정한 한빛 교회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살펴보면 몇 백 명 모이는 큰 교회가

하는 사역 못지않다. 토요 학교 사역도 전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섬기면서지만, 40명 정도가 모인다. 대부분의 장년들은 모처럼 쉬는 토요일, 토요 학교 교사로 섬기며 봉사한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부터 10년이 넘도록 한결 같은 마음으로 밀알 선교단의 장애 우들을 섬겨 온 청년도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일부를 선교의 사명에 다하겠다며 대학 졸업과 동시에 태국 선교를 다녀온 청년도 있다. 집사님 중에는 매주 인근 교회 목사님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도 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한빛교회에는 울타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교파를 나눈 적이 없으시며, 또한 신약의 교회들이 자기교회 남의 교회를 나눈 적이 없듯이 한빛교회는 섬김에 있어 교파와 교회를 초월한다. 교회협의회, 월드비젼, 중국 선교, 군선교회, 고어 선교회 등 각종 선교 단체 후원도 아끼지 않는다. 또한 불신자들도, 타 교인들도 모두 우리 교인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한빛 교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가진 자와 부족한자, 배운 자와 학교의 혜택을 적게 받은 자 사이의 차이는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많이 봉사하는 성도의 목소리가 큰 곳이 한빛 교회다. 그들이야 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이기에…. 작지만 자랑스러운 교회, 작은 자들이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 곳이 바로 한빛 교회다.- 작은 자들이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 -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2)연구원: 이민성(필라한빛교회 봉사자, 한국어 통역사, 템플 대학원 Social Work Study)

본 연구원은 한빛교회 노인 성도들을 담당한 노인 도우미로서 아래와 같이 사례를 조사했다.

A. 이 0 0- 현재 83세이신 내담노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대학 도서관

장으로 일한 바 있으며, 28년 전 기자의 신분으로 미국 내 한국 신문사에 취업하여 활동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오스트리아 출신 외국인 아내와 사별하였고 둘 사이 자녀는 없다. 은퇴 후 뉴욕, 필라델피아, 일본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며 생활한다. 정명훈 지휘자를 동경하고 클래식을 사랑하여 그분의 일본 팬클럽 회장으로 현재 활동 중이다.

삶의 터전인 뉴욕에서 27년 가까이 살다 노인아파트 입주를 위해 필라델피아를 찾았다.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뉴욕 노인아파트와는 달리 바로 입주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로 주거를 정한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생활 터전이었던 뉴욕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임대를 하여 뉴욕에서도 주거하고 있다. 주4일은 뉴욕, 주3일은 필라델피아에서 생활한다. 또한 일 년에 서너 차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한국에도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

내담 노인은 지적 욕구가 강하여 신문사에서 배포되는 각종 신문들을 읽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신 동향을 알기 원하며 기사 스크랩을 즐겨 한다. 신체 건강의 유지에 관심이 많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병치레 한번 하지 않고 건강하다. 사회적으로는 주일 하루 참석하는 교회 예배와 정명훈 일본 팬 클럽 외에는 그 어떠한 친목회나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한 내담 노인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많은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나 관심 분야가 같거나 본인의 필요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선다. 다소 고독한 삶을 사는 듯 보이나 본인은 가끔 고독함을 느낄 뿐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본인의 유산을 상속할만한 사람을 찾아 자신의 노후를 좀 더 안정되게 보내고 싶어한다.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교통수단과 주위의 도움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은 없으나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본연구원과 함께 운전 연습에 동참했지만 판단력과 반작용의 반응이 느려 사고가 났었고 다시는 운전을 배우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영어구사를 자유로이 하지 못하여 서류검토에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하다. 그래서 매주

일 예배와 친교 후 주 중에 모아 두었던 편지물들을 본연구원이 번역하여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클래식 음악 전도사라고 부르며 본 교회 아이들에게도 클래식 음악과 관현 악기를 배우라고 권장하고 있다. 내담노인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건에 집착하고, 어울려 지내기보다는 음악 감상이나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더 선호하였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내담노인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격려하여 아래 세대들에게 좋은 조언자와 지원자가 되게 해준다면 이분의 남은 노년의 삶은 더욱 뜻 깊어질 것이다.

한빛교회 노인 성도들을 담당한 노인 도우미 이민성(필라한빛교회 봉사자, 템플대학원 Social Work Study) 본 연구원의 상담 사례는 교회가 은사발견과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사가 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청지기인 신자가 그 몸의 각 지체로서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교회를 갱신한 웨슬레(John Wesley)는 만인사제직이나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예수그리스도의 종이요 사역자라는 사실에 연결된다고 강조 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은사는 기능적 인 것일 뿐만 아니라 회중적이다. 은사는 세상과 교회 이 두 영역에서 유익하게 쓰이도록 주신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다가가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러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될 것이다. 라즈에 의하면,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옳고 그름에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개인들이 건전하고 가치 있는 인생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사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평신도 신학 훈련이다. 자원봉사는 21세기 인류의 삶을 한 차원 고양시키는 주제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창의성과 자율성에 입각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민주성과 연대성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기도 하다.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기량과 지혜를 발휘한다. 고독을 떨쳐버리고 주류사회에 곧 바로 편입한다.

미국에는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RSVP)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노인 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자원봉사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계나 향약, 두레 같은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산업화로 인한 물질만능의 시대에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사라지다시피 했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사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며 개인에게는 올바른 여가 선용을 통한 에너지 창출과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사회통합이 지름길이다.

노인들은 나름대로 전문인이다. 일반적인 가정사의 상담자로서 뿐 아니라 전통문화 상담자이기도 하다. 뿐 만아니라 평생의 직장생활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전문직종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교육가로서, 사업가로서 법조계와 의료인으로서의 일들을 의미있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년의 생을 맞이한 이들에게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이들에게 모두 가치 있는 모습이다.

B. 이 0 0- 내담 노인은 현재 77세로 약 12년 전 좀 더 나은 삶을 원하여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였고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다. 미국에 와서 시민권 소유자 남편과 재혼하여 영주권자가 되었고 6년 전 한국에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현재 이혼한 아들과 손자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직 신분이 해결되지 않고 자립하지 못한 아들을 위해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하고 있다. 아플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며 열심히 가족을 뒷바라지 하는 내담 노인의 고민은 자식과 손자 그리고 남편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다. 소통을 원하지만 가족 그 누구와

도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없고 따뜻한 말조차 해주는 이가 없어 외롭다고 말한다. 현재도 교회에 홀로 참석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컴퓨터 장시간 사용등) 본인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기 의가 강한 내담인은 오로지 아들이 자립하여 손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싶다고 한다.

내담 노인은 각종 병원예약, 집수리, 유언서 작성 등 영어의 도움이 필요할 시 항상 본연구원을 찾는다. 이는 남편, 아들, 손자 그 누구도 돕지 않으려 하고 잘 모를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담 노인이 가족들과의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긴 본연구원은 세대의 의식차이를 설명하고 가족 개개인의 힘듦을 이해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내담 노인의 넋두리를,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잘 하고 계신 것인지 등을 이야기 하고 격려하며 위로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가사분담의 중요성과 서로의 소통을 위한 상담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지속적인 상담과 신앙 생활을 그리고 내담 노인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함께 만난다면 본인의 소망인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본인 또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원의 상담 사례는 교회가 역량 강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계속된 재사회화를 요구한다. 인간은 기성품이 아니라 되어 가는 실존이다. 노인은 각종 단체나 노인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인간관계나 TV의 연속극을 통해서 인간형성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교회의 메시지는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성인 교육은 대화와 참여를 위한 자율학습(andragogy)이어야 한다. 파울러 프레이리(Paulo Freire)는 의식화란 자연과 사회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정신 상태의 변화라고 정의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노인 사역은 놀이, 활동중심에서 교육중심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John Clinebell)은 ‘노년기는 전인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생을 전체로서 용납하는 것은 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는 노년기의 사람들이 인생 후반부에 풍성한 생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더욱 개발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이다 배움이 끝나면 곧 인생도 끝나는 것이다. 노인은 평생교육의 대상이 된다. 평생교육은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재창조라는 뜻에서 보다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꿈이나 환상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망해가고 있으나, 꿈이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핍박에도 견뎌내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 나간다. 그리고 인내로서 그 궁극의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회에서는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노인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노인들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목회자는 예배시의 설교나 각종 모임에서 노인들이 가지는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이 인생의 전체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노년기에 극복해야할 심리 사회적 위기에서 긍정적인 자아 통합이 발달하지 못하면 절망의 태도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자아통합은 노년의 삶을 의미 있고 지혜롭게 영위하도록 해주며 무엇보다도 자아 통합을 이룬 사람에게는 노년의 시기에 경험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인 죽음이 그리 심각한 고통이 되지 못한다. 교회에서는 노인들이 죽음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을 신앙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은 신앙성장에 노력해야 한다. 노인들이 신앙성장을 꾀하지 않으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된다.

노인들은 노령화 과정에서 힘과 의식이 감퇴할 때에 상처받기 쉬우므로 노인은 역량강화(Empowerment)가 필요한 계층이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를 가지거나 가

지도록 하여 서로 권고하면서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생활은 노인들에게 노년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매우 유익하다.

본 연구원의 상담 사례는 교회가 책임사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인간의 고령화 문제는 어느 개인, 사회 국가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리처드 니버(Richard H. Niebuhr)는 평신도 개개인을 가리켜 '문화의 변혁자'로 일컬으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가정은 신앙공동체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이다. 노인들은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창조하고 문화의 변혁에 기여할 수 있다.

가정요법의 전문가인 버지니아 세티어(Virginia Satir)는 문제가 없고 발달을 촉진하는 가정은 자아 가치가 높고, 커뮤니케이션은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구체적이고 정직하며, 규칙은 융통성이 있고 적절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사회에 대한 연결은 개방적이고 희망적이다. 라고 말했다. 뮐더(Walter G Muelder)가 사용하는 중간공리는 '책임사회' 개념이다. 그의 책임사회 윤리는 사회의 다양한 제도 속에 인격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가족, 교육, 정치, 경제, 종교 등 제반 제도들에서 인격적 공동체주의(Personalistic Commentarialism) 혹은 공동체적 인격주의 (Communitarian Personalism)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뮐더의 도덕법은 모두 15가지이다. 그의 도덕법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원화된 사회에 나아가 비기독교 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틀을 마련해준다.

자연과 운명 공동체임을 발견한 노인들은 병든 지구를 보살피고 지구를 책임질 수 있다. 자연환경의 보호가 없이는 미래사회에서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대화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평화를 만들고 보전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의 평화를 모형으로 오늘의 현실에

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고독한 노인들의 활동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회와 사회는 서로 협력해야하고 단체를 결성해야 한다. 고독한 노인들을 책임지는 인격적 공동체를 이룩하여야만 한다.

샤퍼(Kay Banister Schaffer)는 자원봉사가 노인들에게 자신이 늙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나아가 자원봉사가 사회화를 돕고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시민 단체, 종교단체, 의료 단체, 교육 단체, 환경 단체 등은 자원 봉사자들을 크게 필요로 하고 있다. 교회는 노인들이 사회 경제적 섬김과 나눔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정체성 회복과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C. 방 0 0- 내담 노인은 현재 80세로 노인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 약 40년 전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했고 그 이후부터 필라델피아에 이사온 15년 전까지의 이야기는 나누기를 꺼려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오래 전 급작스럽게 간질환으로 남편과 사별하였고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다. 그 아들은 한국어가 서툰 2세로써 뉴욕에서 지내고 있으며 매일 아침 안부전화를 묻고 일 년에 5-6번 정도 방문한다.

2010년 가을 내담노인의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 연구원은 처음 아들을 만났다. 아들은 내담 노인이 남편사별 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 우울증과 환청 등의 정신질환 치료를 오래도록 받아왔다고 했다. 결국은 보호자가 필요하여 버지니아에서 필라델피아에 사는 여동생 집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한빛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 간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여성 봉사센터에서 일했으며 교회에도 매 주 열심히 참석하였고 내담 노인에게서 그 어떠한 정신 질환의 증세도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우울증 증세가 시작되었다.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 후 더욱 심해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들과 그의 약혼녀가 자신을 감옥에 넣으려 하고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음모를 계속해서 본인과 몇 성도에게 이야기 했다.

그 후 또 다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허리를 심하게 다쳐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우울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행하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오래 전 미국에 와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지만 2세 아들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외로움은 더 크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메마름이 더욱 큰 문제이다. 지속적인 상담과 신앙의 회복으로 육체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다음 본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가벼운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해야 한다. 본인이 과거 잘했던 꽃꽂이, 빵 만들기, 찬양 부르기, 영어가 부족한 노인들 통역해드리기 등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고 격려한다면 본인과 아들 그리고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원의 상담 사례는 교회가 생명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구 생태계의 번영은 인간들의 복지보다도 선행 조건이 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관심사는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예수만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이 된다. 노인은 그들을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체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계층이다. 진정한 목회는 섬김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총체적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노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다. 성경의 노인은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해주

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다.

성서에 언급된 건강한 노인상은 본질적으로 자신감에 넘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모습이다. 성경은 노년이 죽음과 상실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것 뿐 만아니라, 노년은 인생 노정의 복된 순례의 과정이며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또 해야할 사명이 있는 시기임을 깨우쳐주고 있다. 종교는 용기와 힘과 안정을 주는 것이다. 그 결과로 환상과 도전과 모험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은 결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며 소외와 슬픔과 상실의 시기가 아니다. 성경의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데 대한 은총으로 이해된다. 성경에서 노인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노인의 존재는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2. 실버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사역

본 연구원(이승학 필라한빛교회 집사 컴퓨터와 친구들 강사)은 컴퓨터와 친구들이라는 컴퓨터 클래스를 2009년 2월 부터 필라 인근 한인 타운에서 시작했다. 컴퓨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사진 편집, 동영상 편집, 문서편집 가르쳤다. 이 교육에 실버들의 열정이 대단하여 인원수는 70명이 모집 되었고 클래스 수는 12개이다. 그 중 노인 참여자의 비율이 80%였다. 실버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매주 1, 2회 오전 오후 반을 운영하고 있다 실버들은 컴퓨터 교육을 통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년간의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노인들에게 컴퓨터의 활용을 알리는 컴퓨터전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처음에는 컴퓨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지만 클래스에 자주 나오셔서 배우시고 컴퓨터를 알아가면서 컴퓨터를 배움으로써 새로운 세

계를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컴퓨터를 모르는 주위에 친구 분들도 컴퓨터를 배우라고 권유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공부를 가르치는 소감은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 클래스에 오셔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나중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도 자유 자제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노인 분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글을 올려서 인터넷 작가가 될 수 도 있고, 음식의 솜씨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요리 강좌를 시작할 수 도 있듯이, 제 2의 인생을 컴퓨터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

1) 노인 설문조사

본 연구원 2011년 1월 한달 동안 컴퓨터와 친구들에서 컴퓨터를 교육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은사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했다 실제 설문지에 응답한 노인들은 16명 이었다.

연령: 조사된 노인은 남자가 50%(8명), 여자가 50%(8명) 이었으며 연령분포는 60-64, 18%(3명) 65-69, 12%(2명) 70-74, 25%(4명) 75-79, 31%(5명) 80-84, 6%(1명) 85-89, 6%(1명)로 연령이 많을 수록 크게 낮았다.

결혼상태: 유배우자가 16명(100%), 무배우자가 없었다.

교육수준: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국졸 6%(1명), 고졸56%(9명), 대졸 이상 37%(6명)

대다수가 비교적 고학력자였다.

종교: 전체 노인 중 기독교가 많았다. 기독교 81%(13명), 천주교 6%(1명), 무12%(2명)

출생지: 노인들의 출생지 여러 지역에서 출생했다. 농촌 37%(6명), 중소도시 25%(4명), 대도시 37%(6명)

가족형태: 전체 노인 중 단독세대가 많았다 자녀와 함께 37%(6명), 단독세대 62%(10명)

생활비: 전체 노인 중 자신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87%(14명), 자녀의존 12%(2명)

가정에서 하는 일: 노인들이 가정에서 주로 하는 일하는 일이 잡일이다 43%(7명) 그 외 집보기 12%(2명), 손자녀 돌봄 24%(4명)고 있으며 가정에서 주로 하는 일하는 일이 없는 이도 있었다. 18%(3명)

여가소일: 노인들의 여가소일은 컴퓨터교육을 받는 노인들이 가장 많았다. 100%(16명) 그 외에는 TV, 라디오 시청, 운동으로 여가를 소일하고 있다.

대화상대: 노인들의 대화상대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93%(15명) 자녀 18%(6명), 며느리 6%(1명), 친구 6%(1명)

단체활동 참여: 노인들의 단체활동 참여는 취미활동이 가장 많았다. 81%(13명), 친

목회18%(3명), 종교활동 24%(4명), 노인회 6%(1명)

노인학교: 노인들의 노인학교 이용실태를 보면 전혀나가지 않음이 가장 많았다. 81%(13명), 자주나감12%(2명), 가끔나감,6%(1명)

현재의 마음상태: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마음상태 행복하다가 가장 많았다. 75%(12명), 그저그렇다 24%(4명)

노인의 소망: 노인의 소망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건강 이었다. 81%(13명), 자손번영 30%(5명), 일자리 12%(2명)

고독: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고독은 반반으로 나타났다. 자주느낀다 12%(2명), 가끔 느낀다 36%(6명), 전혀느끼지 않는다 48%(8명)

배우고 싶은 것: 노인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컴퓨터가 가장 많았다.60%(10명), 영어 12%(2명), 국악 6%(1명), 식물학 6%(1명), 땐스 6%(1명), 피아노 6%(1명)

하고 싶은 일: 노인들이 하고 싶은 일 여행 24%(4명), 봉사 24%(4명), 선교 6%(1명), 꽃집 6%(1명), 운동 6%(1명), 네트웍비지니스 6%(1명) 손주 돌보기 6%(1명)로 나타났다

2)노인 설문지 분석

지난 날 노인들에게 있어 컴퓨터는 배우기 힘든 문명의 이기였으나 최근 컴퓨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제 2의 인생을 열어주는 보물 1호가 되고 있다. 노인 여가시

설로서 노인 여가에 대한 전문적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노인 설문지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이다.

첫째, 결혼가정으로서 남녀가 장수하는 노인들이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면을 발견한다. 이것은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미래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정의 성숙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21세기 새로운 가정 형태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신앙생활에 적극적이고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을 가졌다. 노인들은 은퇴로 많은 일에서 떠났지만 평생교육과 신앙심을 날마다 고취시키므로 또 다른 차원에서 일의 질을 찾는 은사가 개발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로서 제2의 인생을 책임있게 설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생활양상은 가정에서 하는 일이 많다. 컴퓨터를 배우기에 열심이다. 의사소통이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경로사상의 고취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편안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취미활동과 종교활동, 친목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학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인학교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노인 레져타운, 노인 카페 등 노인 문화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들의 생활의식은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손이 잘되기를 바라고 고독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배우며 봉사하면서 보람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회는 개교회주의와 물량적인 차원의 성장이나 선교를 지양하고, 노인들의 정체성과 은사를 발견하며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시켜주며, 가정과 사회, 자연속에 평화와 안정을 세워가는 생명공동체 운동을 해야 한다.

일곱째,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시간적인 의미는 역사 속에 별 의미가 없

다. 젊다고 하는 예비 노인들에게 교회는 근시안적인 인생 설계보다 포괄적인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 연구 결과 젊어서 충실한 삶을 영위한 자가 노인이 되어서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 시켜야 한다.

3. 한미 연합 예배 및 친교 사역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본 교회내의 자원 봉사자를 선발 하여 동시 통역기를 통한 미국 노인들 위한 예배 동시 통역, 점심 식사하기, 성경공부 하기, 건강 체크하기, 상담 하기, 편지,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하며 미국교회 교인들 섬겼다. 필라한빛교회는 2001년 4월 29일 본교회로 이전하여 임대교회로서 함께했다. 2003년 11월 2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미국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중 언어로 드린 예배는 감동적이고 은혜가 충만하였다. 설교는 본 연구자가 했으며, 이중 언어로 특별찬양을 드렸다. 2004년 6월4일 부터 미국교회와 주일 오전 11시에 현재 까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다. 처음에는 교인들의 불평이 젊은 층이나 노인층에서 있었다. 그러나 선교적 차원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예배공동체로서 관계를 가졌다. 2004년 8월6일 미국교회와 English Class 시작하였다(매주 금요일).

본 연구원 오창훈 집사(필라 한빛교회 안수 집사,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교수)는 미국 노인들 도우미로서 그동안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한빛교회는 10년 전에 미국 교회(Grace Bible Fellowship)를 임대해서 들어왔다. 잘 알지도 못한 동네에 와서 우연히 발견한 이 교회의 주보에 흑인의 얼굴이 있는 것을 보고 (백인 지역 교회) 문화적으로 열려 있는 교회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미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미국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를 환영해주었다.

미국교회는 13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지만 6년 전 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은 없었고 3-40대 부부 성도들은 있었으나 모두 타 지역으로 이사가고 지금은 노인 분들 만 교회를 지키고 있다. 미국교인들의 요청에 의해 2004년 6월부터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오전 11시에 현재까지 드리고 있다. 한국의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목소리와 활기찬 기운이 그리운 미국 교인들의 제안으로 두 교회는 점점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1달에 2회씩 상호 교환 주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린이를 좋아하는 미국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국 어린이 밴드팀을 만들어 절기예배 때마다 공연을 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는 1달 3회 연합예배 안이 검토 중이다. 한국교회 청년들(Dreamers)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미국 집사가 인도한다. 언어적 문제로 설교만 따로 듣고, 또 연합예배를 드릴 때는 본 연구원이 설교 통역을 하는 데 첫 주는 한국 목사님 설교하고 성찬식을 집례하며, 세째주는 은퇴하신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예배가 끝나면 전체가 한국식의 식사로 친교를 나눈다. 이제는 미국 교인들도 한국 음식을 즐겨먹는다. 연합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 함께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 교회 사모님께서 미국 분들에게 따로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한다.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미국 교인들께 한국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린다. 미국 교회에서는 한국 청년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통하여 격려해주고 있다. 전교인 야유회 행사도 미국교인과 함께 가진다.

한빛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미국 성도들의 가장 큰 이슈는 고령화이다 (평균 70대 중반). 남자 4명, 여자 성도 4명 총 8명 중 부부는 한 가정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를 사별한 외로움이 본 교회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원이 1 주일에 한 두 번씩 미국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 어디가 아픈지, 의사는 만나고 왔는지, 약 처방과 관련된 보험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물어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 본연구원이 하는 일은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이다. 질병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만 (part-time이지만 직업이 있는 분은 한 명) 그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해 줄 이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국 교인들의 자녀들은 그다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교인 분들이 좋지 않은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미국 교인들은 스스로 협력하며 참석시 Ride, 질병 발생시 상호 방문 등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전화 심방을 하며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 노인 분들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분들에게 본 연구원의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건강문제 등에 대해 의식적으로 상담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미국교회의 산 역사인 그 분들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들을 하였는지 질문하고 회상하도록 도와주며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극찬하며 그 덕분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교회 내에서 고립감이 들지 않도록 해 드리기 위함이다. 사실 이 분들은 본 연구원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비슷한 연배이므로 본 연구원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시다.

미국교인들을 위하여 2년 전 부터 동시 통역기를 구입하여 예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몸이 편찮은 미국 교인들을 위하여는 절기예배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전해드렸다. 그 동안 장례식이 두건이나 있었다. 온 교회가 정성을 다해 참여하고 도와드렸다. 미국교회 교인 중 알라바마주에 사는 자녀 가정의 주택이 불이나 전소했을 때에도 다이앤 가정 돕기 캠패인을 벌여 정성을 모아 여려운 가정을 도와 주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고 이로 인해 그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결과가 있었고 교인간에 더욱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곳에 보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2년 전 미국교회 교세가 약화되자 교단에서 교회를 매매하여 선교 지역에 나누어 주자는 안이 상정되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미국 교인들이 지금 한국교인들은 세입자가 아니라 이 교회에 주인이라고 만장일치로 반대하여 한

국교회가 이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남아있는 미국 교인들은 교회가 처분되기보다 교회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 역할을 한국 교회가 계승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지난 2010년 3월 6일 진정으로 두 교회가 연합하게 되었다. 교단과 교회가 상호 존중하고 선교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기로 한 것이다.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을 발견한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모습이라고 본 연구원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본 교회 담임목사님이 미국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2011년 2월 12일 회의에서는 한국교회 교인 중 1명이 미국교회 재정의 signer로 참여키로 결정하였다. 재정적으로는 분리 되었으나 이미 한 교회라고 상호 간에 느끼고 있던 차에 재정적 연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한인교회와 미국교회 사이에 선교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교적인 관계속에서 미국교회의 전통을 이어갈 한인 교회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원의 상담 사례는 교회가 창조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창조 공동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친구관계는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에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기본법칙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있다. 모든 참된 친구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노인에 대한 봉사와 노인의 봉사가 서로 교환됨으로써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대들보 역할을 해온 그 성도들은 교회와 연합된다. 부버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관계의 행위로 보는 깊은 독창력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소그룹 운동이 점차적으로 일어나 1994년 현재 미국인 중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 인격적으로 흐르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 때문이다.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간의 구원은 우주적, 총체적 구원이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 성서적인 'ministry' 는 섬김의 뜻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재 창조해야 한다.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공동체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새로운 가족 형태와 따듯한 인간관계를 다시 찾아야 한다.

현대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성을 잃어 버렸으므로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들이 교회에 나가면 그들은 젊은이 프로그램, 가족봉사, 또 부부 모임의 활동들을 강조하는 집회에서 자신들을 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진실한 목회는 가정에서 식탁을 준비하는 활동과 같은 가정적인 의미가 담긴 봉사여야 한다.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일 때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평등해질 수 있다.

교회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역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브라질 바닥 공동체에서는 생명체로서 다양 속에 통일을 유지하기위한 기본 틀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기, 서로에게 봉사하여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기, 하나님의 복지를 앞세워 끊임없이 회개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용하기, 형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기 등 이다.교회는 노인의 노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의 이론에 근거한 생명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 노인들이 그 동안 떠나왔던 자연을 체험하며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과 희망을 실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상처입고 소외된 인간은 물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창조적인 능력과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일치성을 가져온다.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John Clinebell)은 지구와 함께 건강한 상호작용에 의

하여 양육되는 성장과 치료를 생태치료(ecotherapy), 성장을 자극하는 과정을 생태교육(ecoeducation)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의존적인 삶의 차원을 여섯 개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독한 한인 노인들을 창조 공동체 속으로 이끌어 친구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 기독교의 영성이란 본질이 아니라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은 초월의 체험을 가져오며, 새로운 의식, 의식의 확장, 새 삶의 출발 등의 전환을 가져온다. 바울은 살전 5장 23절에서 전인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성과 치유사역이라고 언급했다.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기 위한 밥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친교 프로그램은 활용하여 인격적으로 노인들을 대우할 때 그 속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도 사라지고 밥상 공동체(Tischgemeischaft)의 경험도 풍부해질 것이다. 교회는 노인을 소외로부터 해방시키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와 교회에는 노인을 무시하거나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는 고독한 노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고독한 한인 노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히 가지며 서로 솔직하고, 수용하며, 각자의 독특성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가족을 포함하여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은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 율법적인 신앙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는 복음적 신앙 훈련이 필요하며, 인본주의적 윤리 규범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개발해야 하며, 개인주의적 구원의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공동체적 구원의 측면을 보완하며 진정으로 통합적이요 전인적 구원의 방향으로 영성훈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Ⅲ. 현대사회에서의 노인 문제의 배경

1. 급변하는 후기 산업사회

1) 사회의 현대화

20세기의 인류 문명의 특징은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지고 사람들의 요구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 또는 고독을 느끼게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산업사회의 변화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게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노인들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14] 사회학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10%가 넘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규정하고, 20%를 넘으면 초 고령사회 또는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규정한다.[15] 한국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1년 11월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3.1%를 차지하게 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유엔기준에 따르면 노령인구비율이 7%이상이면 노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노년 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4% 미만인 나라를 유년 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나라를 성년 인구국(mature population), 그리고 7% 이상인 나라를 노년 인구국(aged

---

[14]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45-246.

[15]문화일보 2003년 8월 9일

population)이라고 한다.[16] 유럽 국가 중에서 고령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있는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뿐이다.

노인(older adult)이란 용어는 후기 성인(later adult), 노령자(aged person), 장로(elder), 연장자(elder person), 원로(senior citizen)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 관습적으로 한국의 노인 연령은 60세부터였으나 1981년 6월 5일에 제정 공포된 노인 복지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이란 일상적으로 이해되기는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실제적 관찰을 통하여 네가지로 규정한다.[17] 첫째로 자각에 의한 노인이다. 스스로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학적 노인이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와 은퇴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셋째로 연령에 의한 노인이다. 개인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연령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넷째로 기능적 연령으로 노인이다.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영역에서 기능의 정도에 따라서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현대화 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현대화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18] 노인이 되어 가면 그에게 주어졌던 역할이 점점 상실된다. 직장에서의 퇴직, 사회적 지위의 상실, 가정에서의 권위와 역할을 상실하게 되며, 사회 활동의 기회가 제한 받게 된다. 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네가지 고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빈곤, 질병, 소외, 고독이다. 특히 노인이 퇴직 후 소득 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즉 경제적 빈곤은 매우 심각하다.[19]

---

[16]김성순, *노인복지론* 71-73.

[17]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45-48.

[18]Cowgill, D,O & Holmes, L D,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orfts, 1972), 1-13.

[19]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145.

노화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20]

이 론	내 용
▶연령계층화 이론 *Age Stratification Theory*	Riley에 의하면 사회는 연령등급에 의하여 서열화 되어 있으며 한 연령계층이 공유하여 온 경험의 일치는 다른 연령집단과 구별된다. 각각 다른 집단은 사회적 역할 수행의 능력, 의지가 다르고 사회가 부여하는 권리와 특권도 다르다.
▶하위문화 이론 *Subculture Theory*	Rose에 의하면 노년기에 속하여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과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노인들끼리만의 상호작용을 하기에 용이한 조건이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노인들 특유의 하위문화가 형성된다.
▶현대화 이론 *Moderization Theory*	Cowgill에 의하면 현대화의 정도가 빠를수록 노인의 지위는 더욱 하락한다. 보건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달, 도시화의 촉진, 교육의 대중화로 인하여 노인은 노동 현장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지적, 도덕적으로 고립된다.
▶분리 이론 *Desengagement Theory*	Cumming에 의하면 노인 개인이 원하든, 사회체계가 원하든간에 노인과 사회는 분리를 희망한다. 노인은 사회와 관계를 유지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분리를 결정한다. 사회는 노인의 사회 공헌도가 약화되면 대행자를 찾는다.
▶활동 이론 *Activity Theory*	Havighurst에 의하면 노인은 사회 참여도와 비례하여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론은 활동참여→ 역할지지→ 긍정적 자아상 유지→ 높은 생활 만족도로 표시된다. 생물학적인 면과 건강의 불가피성을 제외하고는 노인은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2) 핵가족 제도의 보편화

급변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노인은 객체화된 사회로부터 소외된다. 피터 버거(Peter L Berger)는 현대사회를 하나의 변증법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했다.[21] 이러한

[20]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노인 정신의학* (서울: 중앙문화사, 1998), 54-56.

[21] Peter L Berger, *종교와 사회* 이양구역, (서울: 종로서적, 1992), 15-16.

사회의 변증법적 과정은 노인을 소외시킨다. 노인들은 무료함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19세기 말에 생겨난 핵가족 제도의 보편화에 따라서 가정의 노인들에게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상실하게 하였다.[22] 핵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제도를 말하며, 여기에 대칭되는 것은 그 이상의 확대된 혈연 관계의 친척들로 구성된 확대 가족이다.[23] 현대 가정의 붕괴와 분열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핵가족 제도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문명의 몰락을 가지고 왔다. 소외당하는 노인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노인 계층의 증가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24]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와의 심화로 노인 부부만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심화되는 현대화로 개인 간의 상호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가정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었다. 개인화로 가족 안의 규범과 결속력이 약화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복종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가족적 연결망이 지니는 구속력은 감소하고 가족외의 다른 생활 형태 속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증가고 있다.[25] 가족은 문화적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전통적, 제도적 성격이 해체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은 부정적인 현상이 더 부각되고 있으니 곧 탈핵가족화 현상이다.[26] 이 현상은 독신 인구의 증가, 무자녀 상태에서 자유로이 사는 문화, 급증하는 이혼에 따른 가정의 붕괴, 결손 자녀의 문제, 그리고 이혼 후의 재혼 문제 등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핵가족의 우세함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족형태들이 부각되고 있다.

---

[22]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21-22.

[23]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3), 82.

[24]은기수, “노인문제:노령화와 노인들에 대한 이해”, 권태환 외 편, *전환기 사회문제* (서울: 믿음사, 1996), 181-182.

[25]이진숙,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이행과 핵가족” *가족과 문화* 제2집, 92.

[26]Alvin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Morrow, 1980), 227-229.

3) 위험한 은퇴기

'리더십의 법칙‘'생각의 법칙' 등 수많은 리더십 관련 책들을 통해 참다운 리더십을 설명해온 미국 샌디에이고 웨슬리안 스카이라인 교회(Skyline Wesleyan, San Diego, California) 존 맥스웰(John Maxwell) 목사는 앞으로의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빠를 것을 지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미국의 전형적인 대학생들은 그가 죽기 전에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세배나 훈련해야 한다. 또 은퇴하기 전에 30군데 정도의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27]

한국사회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불과 39%뿐이다. 미국사회도 7800만명(전체인구의 26%)에 달하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s)들이 위험한 은퇴기가 시작되었다고 미 시사주간 타임 인터넷판이 보도했다.[28] 일과 직업을 잃는 것으로 노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역할의 축소로 인하여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29] 어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봉사할 수 없고 옷을 잘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60세 이상 미국 한인 이민자들의 비율이 1970년에 1%에서 1984년에는 77%로 늘어난 것은, 시민권 자녀들이 노부모님을 초청한데 기인한다. 앞으로도 한인 노인 미국 이민자들은 증가추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동안 집안에 있는 노인들은 “사육인간”이 되기 쉽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게 된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노인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개발 국가에서는 어린 아이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 경제적 가치에 의해 인간 죽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후기 산업사회 이후로 경제력이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한

---

[27]Elmer L. Towns,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김홍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32.

[28]코리안 데일리 뉴스 2010년 12월 29일(수) A13.

[29]고영복, *현대사회의 문제* (서울: 사회문제연구소, 1994), 326.

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은 생산 지상주의의 장애 요인이다. 후기 산업사회의 성장에 경제력이 약한 노인은 어떤 권력도 없으며, 자신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전환되는 속도는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일본의 25년에 비해 한국은 2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30] 후기 산업사회의 성장주의 정책은 노인에 대한 배려를 적합한 한도 안에서 조절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복지연금의 고갈을 초래하고 결국 노인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노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아시아 이민자 노인 빈곤률(%)

미주한국일보 연창흠 부국장의 심층분석 “한인노인 노후대책”에 의하면 1995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은 22.4%로 최저 빈곤선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인 노인들이 일본계, 필리핀계, 중국계, 베트남계 등 아시안 지역사회 가운데서 가장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나타낸다.[31] 한인 노인들은 산업화와 이민의 영향으로 그들이 살아온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함은 물론 재화를 획득하고 축적하던 기반을 상실하였다. 노인들은 육체의 쇠약으로 인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대 핵가족 사회, 더 나아가서

---

[30]이성국, *고령화 사회의 노인보건 복지정책* (서울: 현문사, 1998), 14.

[31]미주한국일보 2001년 11월 6일

다원화된 가족 형태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 세대에 걸쳐 가족들이 존재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사망률의 감소는 노인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32]

4)노인의 시간

의식적인 사고 작용을 하고 있는 한의 모든 형태의 행위와 사고를 활동이라고 말하며 이 활동은 일과 여가로 구분하는 데 일은 하기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하도록 부여된 활동으로서 의무적이고 시간 제약적인 것이고 여가는 자유시간의 활동으로 임의적인 것이다.[33]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로 진입했다. 노인들은 잠이 적고 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짧아지는 현상 속에서 노인이 겪는 문제는 많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겠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은 사회에서 은퇴한 후 평균 2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가정과 사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갖지 못한 채 무료함과 방황, 그리고 정신적인 불 건강 속에서 삶을 지탱하고 있다.[34] 한국사회는 독거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대부분 빈곤층이어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35] 따라서 노인은 시간 관리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민족 문화 속에 살아온 한인 노인들은 미국사회 속에서 문화 충격을 겪는다.[36] 한인 노인들은 미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이란 여가선용을 잘하는 생활을 말

---

[32]은기수, *전환기 사회문제* (서울: 미음사, 1996), 181.

[33]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233.

[34]김동배,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서울: 집문당, 1999), 18.

[35]코리안 데일리 뉴스 2010년 12월 29일(수) A13.

[36]현용수, *문화와 종교교육* (서울: 쿰란, 1993), 27.

한다. 여가를 보내는 양상은 그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고독을 떨치고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현대 노인의 가장 큰 과제이다.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활동하는 노인에게는 불안과 짜증이 없어지며 질병과 고독이 줄어든다. 활동하는 노인은 희망과 재미가 있으며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37] 노년층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실버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노인계층은 사회나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에 대한 국제 비교

활동내용		활동비율	주 10시간 미만	주 10시간 이상
노 동	미 국	13%	79%	21%
	영 국	5%	54%	46%
	일 본	29%	82%	18%
	독 일	4%	28%	72%
	캐나다	6%	58%	42%
자원봉사	미 국	34%	10%	90%
	영 국	12%	10%	90%
	일 본	12%	6%	94%
	독 일	13%	3%	97%
	캐나다	28%	13%	87%
아이보기	미 국	31%	19%	81%
	영 국	19%	13%	87%
	일 본	9%	26%	74%
	독 일	24%	18%	82%
	캐나다	22%	15%	85%
이웃과 상부상조	미 국	83%	46%	37%
	영 국	86%	48%	38%
	일 본	86%	36%	50%
	독 일	85%	37%	47%
	캐나다	80%	43%	37%

* 이 조사는 5개 선진국 약 900명씩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도에 따른 비교문화적 연구

[37] 김동배,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19-20.

2. 현대사회의 특징

1)노년의 인구 증가

현대사회를 특징 지워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젊음 지향의 경향과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서로 상반된 현상이다.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변화와 영양 공급의 선진화와 그 밖에도 생활환경의 변화 등 도 노년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때 연령구조에 의한 인구 모형은 피라밋 형태에서 원통형으로 변형되어질 것이다.[38] 노인 문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며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인간 발달에서 가장 긴 시기가 노년기이다. 보통 노년기를 젊은 노년기(60-70세), 중간노년기(70-80세), 초 고령기(80세 이상)인 세단계의 시기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령기를 구분하는 것은 노인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긴 노년기를 더 이상 같은 시기로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노년기는 그 단계별로 각각의 욕구와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 수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장된 수명을 어떻게 인간다운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시기의 연장이라는 현상은 교회가 점차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이다. 사실상, 교회의 노령화 현상은 이미 구미 각국에서 보고 있다. 후기 고령노인이 되면 각종 만성질환과 심신 기능 장애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허약노인들에 대한 장기보호대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

[38]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부, 1985) 8.

2) 노인의 위기 의식

위기란 위험한 고비, 어떤 일의 전환점이라고 정의하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외적 위험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반응이라고 정의 한다. 위기에는 보편적 위기와 우발적 위기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데 보편적 위기는 예측이 가능하며 우리 모두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다.[39]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난과 질병, 고독감과 역할의 상실이라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은 세 가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① 자녀들에 대한 실망

오늘날 가족 공동체는 산업화, 도시화라는 역사적 현실 때문에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도 개체화 되어가고 있고 공동체로서의 연대성 곧 이웃됨을 상실해가고 있다.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는 핵가족화와 심각한 경제적 위협,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년의 실존이다. 현대 가정에서 독신자와 노인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노인부양을 둘러싼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간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두 세대간 갈등의 상황을 초래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의 변화와 그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상담을 논하였다. 한국사회는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위상이 절대적이어서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고, 그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1960년 이후, 근대화와 더불어 노인들을 모시기 힘든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노인부양에 대한 절대적 책임감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 가운데 자신들의 노년을 자녀가 당연히 부양할 것으로 생각했던 노인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세대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두 세대간의 갈등 상황에서 상담자들은 노인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절대적 가치의 의미가 희미

---

[39]Howard W. Stone and Geoffrey Peterson, *위기상담*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7-39.

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속에서도 성경은 여전히 절대가치의 방향을 제시한다. 노인은 상실과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중과 공경의 대상임을 상담자가 바로 알고 갈등상황을 풀어갈 때 바른 성경적 상담이 진행되어지고 세대간 화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② 자신의 건강과 활력의 쇠퇴

인간의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쇠퇴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다. 한번 노인은 죽을 때 까지 노인이다. 모든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진행되기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 기능이 쇠약해져서 결국 장애인과 유사한 처지가 된다. 노인들은 감각기관과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퇴보한다. 여러 가지 병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동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으며, 자신이 치매(소리없는 유행병)에 걸리지 않는가 하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면서 더욱 고독해지고 있다.[40]

치매 (dementia)는 일상생활에 손상을 주는 기억과 인지능력의 점차적인 악화로 정의되며[41], 일반적으로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인지기능의 저하와는 구별된다. 치매 초기에는 흔히 기억력의 손상을 보이며, 점차 추상적인 사고, 문제해결능력, 인지세트(cognitive set)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손상을 보이는 진행성의 기질적 장애를 보인다. DSM- 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IV)에 의해서 치매를 분류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multi0infarct dementia), 다른 질병 상태인 에이즈, 두부외상, 파킨슨씨병, 헌팅톤병(Huntington disease), 피크병(Pick disease),크로츠펠드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비타민 b12결핍, 갑상선기능 저하증 등에 의한 치매, 독소나 마약 등의 물질에 의한 지속적인 치매, 복합적 원인에 의한 치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42], 그

---

[40]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186.

[41]한경희외 9명, 노인성 치매연구 (서울: 교문사, 2002), 31.

중에서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발생율이 높다.[42]

대부분의 노인은 활동적인 은퇴 초기와 홀아비나 과부시기 그리고 죽음에 가까운 병상시기를 거친다. 노년기의 중심과제는 자아통합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며, 좌절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지금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43]

노년 건강 점검표

문제와 고통	자아통합과 희망
● 건강문제의 대두	● 육체적 건강을 위한 자기관리의 능력 함양
● 행동력의 쇠퇴	● 참된 '존재하기'를 위한 풍성한 시간과 자극
● 은퇴에 따른 직업적 손실과 슬픔	●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적극적인 은퇴생활
● 축소된 수입 (가난이 다가 오는 경우도 있다)	● 욕심의 절제
● 노령화에 따른 자아 존중의 상실	● 자아존중의 내면적 탐구
● 과거에 잡지 못한 기회들	● 자신의 일과 업적에 만족하기
● 빠르게 변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 현재를 즐기며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충족감 배우기
●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	● 시간 사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취미활동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
● 가까운 친지나 배우자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	● 슬픔을 딛고 친근한 관계를 강화해 가는 능력
●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대항	● 살아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과 생활의 소홀	● 운동과 바른 식생활로 노화현상 줄이기

42)서유현, *노인성 치매* (서울: 한국생화학회, 1992), 238.

43)Howard Clinebell, *전인 건강* 오성춘, 이종헌 역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5), 338.

③ 사회에서의 소외

현대 노인은 핵가족화와 친구들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상당기간 동안 혼자 살기 때문에 역할 상실과 소외감은 깊어진다. 여성 노인은 평균적으로 6-8년을 더 살고 있다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상실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미국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 공포증(gerontophobia, 나이가 많아지는데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년을 생각하면 움칠해지고 그들 스스로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피하고 있는 현실이다.[44] 노인들은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안전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높게 된다. 본 교회 노인들 가운데도 노인 공포증에 시달리는 이가 있다. 가끔 우울하고 힘이 없고, 할 일도 없고, 시력과 청력이 쇠약해지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장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무료함과 외로움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가 자신의 노예가 되는 현상이다.

3) 노인의 성격

현대는 노년을 마치 일종의 수치스런 비밀처럼 여기고 있다.[45] 노년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울증적 성격이다.[46]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얼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이 먹으면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의 빈도도 증가 한다. 노인의 특징은 유머와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노인은 가족과 친구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채로 외롭게 살아가고는 가치없고 쓸모없는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다. 이러한 우울증이 지속되면 자살 충동까지 생기게 된다.[47] 노화와 질병

---

[44]Gary R Collins, *크리스챤 카운슬링* 388.

[45]Simone de Beauvoir, *노년* 홍상희, 박혜성 역, (서울: 책세상, 1994) 8.

[46]김태련,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4), 404.

[47]호태석, 황정혜, *교회와 노인복지* (서울: 갈릴리출판사, 2002), 187.

으로 무력감과 의존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상실들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우울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다.

노년기의 감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불안정이다. 의심이 많고 불신하며, 불확실한 주저함이 있으며, 강한 호기심이 있고, 계속되는 불평이 있으며, 과거의 생활에 대한 집착이 있으며, 희로애락이 극심하고, 허영심이 강하고, 아집이 강하다. 과장된 표현을 하고, 신경질이 있다.[48] 이러한 노인의 심리적 배경에는 체력, 감각, 기능, 신경세포 등의 활동저하로 인한 생리적 조건, 역할상실, 인간관계 등의 사회적 요인이 있다.

노년기의 성격변화는 기복이 심하다.[49] 우울증적 경향이 나타나는데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사정의 약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소외 및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이 원인이 된다. 노인은 내향성과 수동성을 나타내며 노화에 따라서 경직성이 증가되며 조심성이 증가된다. 노인들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며 노년기에는 젊은 시기의 3배내지 6배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50] 스트레스를 연구한 토마스 홈즈(Thomas Holms)는 홈즈스트레스표(Holms Stress Chart)를 고안하여 삶의 변화 단위 점수를 매겼는데 200점 이상이 되면 건강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삶의 변화 단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배우자 사망으로 100점이다.[51]

어떤 노인들은 질병과 신체의 허약 등의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많은 노인들은 교회 안의 변화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노인들의 역할 때문에 자주 갈등을 느낀다. 젊은 교인들로부터 자기들이 축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

[48]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1996). 391.

[49]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181-189.

[50]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74.

[51]Gorden Macdonald,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홍화옥 역, (서울: IVF, 2003), 56-57.

다. 본 교회 어떤 노인들도 이와 같이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판단력이 부족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3. 사라져 가는 사람들

1) 노인의 고독

성서에 나타난 노인의 고백은 육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우울하고 고독하게 나타난다. 시편 71편9절과18절에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한 것은 노년기에 처한 사람의 고독한 심리 상태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52]

고독은 인간 고통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후에 “사람이 독처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53]고 선언했다. 이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고립되거나 외롭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진 원래의 인간은 축복의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인간의 본래의 능력을 상실케 하였고 결과적으로 전 인류를 파멸케 하였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절되고 정죄를 받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다. 갈등은 변화의 근원일 뿐 아니라 결과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기심과 상호관계의 긴장으로 외롭다는 감정이 인간에게 생긴 것이다. 이러한 고독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엄습하는데 잠깐 동안인 경우도 있고 때론 일생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노인의 고독은 신체적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신앙으로 사는 노인들을 하나님은 사요하셨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

[52]Hans Walter. Wolff,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6), 216.

[53]창세기 2장 18절.

성서에서 말하는 노인은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존경의 대상이고,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다. 노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노인의 문제

인간은 언제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이며, 언제든지 인생의 잉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54] 그 문제들은 존재의 근원, 실존적 존재, 삶의 의의, 공동체 문제, 사회, 역사 등 이다.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전통적인 모습들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55]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는 노년층을 친족과 직업과 지역사회에서 기능적으로 고립화 시킨다. 사회적 역할에서의 은퇴는 신분의 반환을 의미한다.[56]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은 사회적인 주류에서 밀려나 소외되고 있다. 현대 노인들은 사회에서 일과 직업을 떠나므로 역할의 축소로 인하여 고독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정과 교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가족은 생을 영위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영속적인 결합으로서 부부와 거기에서 생긴 자녀로서 구성된 생활 공동체이다. 핵가족 형태는 기동성과 실용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가사 담당 문제 등 여러 가지 약점들이 노출되고 있다.[57] 가정에서도 경제적 능력의 상실과 자녀들이 결혼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면서 자신의 위상이 축소되는 것을 느낀다. 또한 주변의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도 네트워크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에서까지도 사회적인 은퇴와 함께 중심의 역할을 하던 위치에서 주변의 사

---

[54]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9), 71.

[55]Alvin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Morrow, 1980), 198.

[56]김정후, 한만주, *노인인력 활용정책과 프로그램* (서울: 집문당, 1998), 23.

[57]김주숙, “사회 변화와 가족 형태”,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5월호.

람들로 소외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노인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소외와 고독이며 그 다음이 여가 선용, 열악한 건강, 경제적 빈곤, 종교, 재취업, 재혼 순으로 나타났다.[58] 이처럼 어디서나 노인들을 환영하지 않으므로 노인들의 고독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인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59] 노인이 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고독감이라는 고립과 쓸쓸함은 사회적 교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쓸쓸함은 개인 간의 접촉이 평소에 비해 갑자기 소멸되는 축소를 의미한다.

3)노인의 과제

현대 사회의 특성은 가정보다는 개개인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가정생활의 전통적 역할이 변화되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추락되고, 부부사이에도 동등의 주장과 함께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60] 오늘날 이민사회의 한인 노인들도 대부분 소외된 자들의 부류에 속한다. 미국이민 한인 노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젊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현재까지 미국에 살면서 노인이 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의 초청으로 노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한 경우가 있다.[61] 그러나 필라델피아 노인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초정으로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은 노후에 자녀들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 가정에서 독신자와 노인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

[58]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250.

[59]문영탁, “교회와 노인”, 풀빛목회, 1982년 12월호, 32.

[60]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85.

[61]민병갑 외 9인, *미국속의 한국인* 54.

새 이민자들은 두 문화 사이에 끼어서 변두리 생활을 한다고 변두리 사람이라고 했다[62] 변두리 성격 때문에 인종과 민족의 주체성이 불안정하게 되고 그들의 이민 생활도 불안하게 된다. 아시아 이민자들 중에서 한인이 우울증세가 가장심하다. 타 민족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지만 영어 장애도 많고 낮은 직업에 종사한다. 미국문화 동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증세는 감소하나 미국 문화에 동화 되지 못하면 건강에 까지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63] 한인 노인들은 이 세계에서 사라져 가는 사람들이다.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세상 고락을 체험한 하나의 인간이 최후의 20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노동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64]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는 모든 사람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또한 노인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다.[65] 현재 한국의 교인들은 전 인구의 20%가 되나 미국의 한인 교인들은 전 한인 인구의 80%가 되어 미국에는 한국인이 모이는 곳에는 한인 이민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100년간 교회가 제일 큰 공동체였다. 초창기 본 교회는 이와 같은 고독한 노인들을 교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므로 많은 가정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현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연구와 사역을 통하여 고독한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돌보아야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다.

---

62)최학녀, *미국 이민생활 속의 스트레스* (New York: 가나안 인쇄, 1993), 60.

63)Ibid., 99.

64)Dorothee Soelle, *사랑과 노동* 박재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12.

65)Ernst Bloch, *희망의원리* 박설호 역, (서울: 솔출판사, 1997), 70-71.

4. 성례전적 우주

1) 기독교인의 세계관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생명을 이해하는 세계관이다.[66]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간창조와 가정형성이요 역사의 오메가는 예수의 재림이다. 창조와 재림의 두 점 사이에 인류의 범죄와 징벌과 예수의 속죄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승천과 교회의 성장이 전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관하신다고 믿는 점에 있어서 다른 역사관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어 역사 안에서 살게 하면서 인간의 존재양식을 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그러나 계속된 인간의 과오로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인류역사를 시정하셨다. 예수 사건 전에는 율법으로, 예수사건 후에는 복음으로 시정했으며,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회제도를 만들어 인류역사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인간 단독으로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역사에 동참하시어 인류역사를 구원 완수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역사는 무목적적이거나 불확실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관계한다.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피조물과 사물이 도덕적인 관계성의 그물 안에 놓이도록 도덕률에 변혁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창조주가 계시됨으로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짐승의 주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67] 에카르트(Erhart)도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관계(relation)라고 했다. 한국의 고유문화는 하늘과 땅과 자연과 인간을 불이적(不二的)

---

[66]Robert E Webber, *기독교문화관* 이승구역, (서울: 엠마오, 1987), 15.

[67]James A Nash, *기독교 생태윤리* 이문균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7), 169.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68] 웨슬리의 구원론은 종말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종말론적인 구원은 우주적이다.[69] 그러므로 고독한 노인은 우주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영적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상호 의존적 관계

성서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상호 의존적 관계 가운데 있다. 모든 피조물의 친족 관계는 창세기 2장의 창조이야기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템플(William Temple)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례전적 우주 속에 살고 있다. 그 안에서 물질적인 존재 전체는 근본적으로 거룩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시의 효과적인 매개물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수단이요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70]

이처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발달하며 다른 것들과 공생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인간은 세계와 상호 관계 속에 있으며 세계의 산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계속 만들어지고 양육되는 존재이다. 성경은 인간을 관계 속에서 정의한다. 관계에는 의존적, 독립적, 상호의존적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이 세가지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사라질 때 인간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취적이고 성례전인 실현이다.[71] 고독한 노인들을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68]이정배, *생명의 하느님과 한국적 생명신학* (서울: 새길, 2004), 126-127.

[69]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6 "새로운 창조" 218.

[70]William Temple, *Natrue, Man and God* (London : Macmillan, 1934), 482-495.

[71]Leonardo Boff, *교회의 권력과 은총.* 유종순 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90), 12.

3)문화적 고독

관계를 박탈당한 인간은 비존재로 전락한다. 관계에서 유리된 인간은 탈육된 존재, 하나님과 인간 및 자연과의 삼중관계의 세계에서 제외된 존재이다. 은퇴 후 노년생활이 지루하고 고독하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언어의 장벽 때문에 문화적 고독은 더욱 심화된다. 동 서양의 문화의 차이는 현저하다 동양인은 집단주의가 우선하며 서양은 개인주의가 우선 한다.[72]

미국 최대의 노인단체(Administration on Aging)에 의하면 향후 15년 이내에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인구 구성은 해당 인종 3명당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73] 이것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노인 인구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인의 본격적인 이민 역사가 40년이 되면서 1세들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가족이민의 증가되어 한인 노인의 수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노인의 4중고인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중에서 한인 노인들은 2가지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노인들은 스스로 늙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다. 노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기에는 너무 재주가 없다고 느끼며 실망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노년기를 명확하게 의식하며 그것을 위해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종년기에 처한 노인들은 고립된 삶 속에서 예리한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건전한 노인 의식을 소유하지 못한 채 노년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교회 노인들도 세계와 상호관계 속에서 공생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례전적 우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은 역할상실과 문화와 언어의 단절로 인하여 정서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이민자 노인문제는 가시적인 현상을 줄이기보다는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수치적인 분석 이전에 한인사회의 의식구조, 가족 형태의 변화와 노인의 상황을 동시에 관찰하여야 한다. 한인 가정교육, 한인사

---

[72]오세철, *조직행동* (서울: 박영사, 1983), 126-138.

[73]미주한국일보 2001년 11월 6일

회의 노인인력활용, 한인사회의 노인복지증진, 한인교회의 노인의 고독을 해결하는 목회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면한 이민교회 목회 전략은 노인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며, 해결할 것인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Ⅲ. 노인 문제의 발생 원인

1. 사회의 위기

1) 테크놀리지(Technology)

지난날의 전통적인 현상들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기술은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74] 과학기술은 최고가치가 되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났다.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 변화를 가져왔다.[75] 테크놀리지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해방자이면서 동시에 위협을 가하는 실제로 등장한다.[76] 고독, 인생 구조의 붕괴, 인생의 의미 상실이 산업 문명의 쇠퇴가 빚은 것이다.[77]

컴퓨터로 인하여 테크놀리지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과학 만능화의 가치관이 팽배하였고, 상대적으로는 신의 존재나 인간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는 현상을 빗게 되었다. 노인이 가진 전통적인 경험은 새로운 정보혁명시대로 갈등을 야기시킨다.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어 그 상황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78] 기술산업 사회를 선봉 하는 자들은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용성과 능력 생산성만을 가치기준으로 삼을 때 노인은 비능률적인 존재, 반 사회적 존재, 그리고 타자적인 존재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

[74]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64-76.

[75]Peter Drucker,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57.

[76]Ian G Barbour, *Ethics in an of Technology* (San Francisco: Harper, 1993), 20.

[77]Alvin Toffler, *제 3의 물결* 홍갑순, 심정순 역, (대일서관, 1982), 419-420.

[78]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0.

현대사회의 생활 원리는 과학과 테크놀로지의적 지식이며,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기술 관료적인 힘이다. 인간의 삶은 기계화와 전자화를 통하여 극도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나 인간의 심성은 고갈되고 있으며 자기가 속한 사회로부터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실하고 있다. 후기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강화에서 비롯된 혹독한 경쟁주의는 공동체적 문화를 더욱 파괴한다. 사람들은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적인 취향에 몰두한다.[79]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려면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재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유교적 전통에 익숙한 노인들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80].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는다.

현대교회의 멀티미디어와 물량주의에 의한 운영체계는 교인들의 성향을 바꾸어 놓고 있다. 한 공동체나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로 여겨졌던 교인들은 여러 종교 프로그램들을 종합하여 취향에 맞는 신앙체계를 스스로 재구성한다. 현대 교인은 공동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개인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81] 토마스 럭만(Thomas Luckmann)에 의하면 멀티미디어에 의해 수집된 종교 상징들을 종합하여 독자적인 신앙관을 소유한다. 신앙의 공동체성의 상실은 교회에서 노인의 자리를 박탈한다.

신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성에 의해 강화된다. 일상적인 관계의 얽힘으로 막혀있던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쉽게 말씀할 수 있도록 전 존재를 기울여 듣게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유행은 진리가 아니며 예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복음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믿음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세대 종교인들은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직관을 수용하여야 한다.

---

[79]한상용, "멀티미디어시대의 교회 공동체성 진단" 목회와 신학 1996. 1. 72.

[80]Edwrd Shill, *전통: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김병서 역, (서울: 민음사, 1992), 35.

[81]John Maisbitt, *Megatrends 제4의 물결* 서문호 역, (서울: 원음사, 1983), 51.

2) 도덕성

앤드류 첼린(Andrew Cherlin) 존스합킨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년의 미국인들은 가족 가까이에 있지만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의 개인주의라고 지적한다.[82] 미국의 베넷(William J Bennett)은 The Book of Virtues란 책에서 미국사회를 건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하고 있다.[83] 이것은 모두가 도덕성을 회복해야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종교 이론을 편 미국의 사회학자 벨라(Robert N. Bellah)는 '사회의 위기는 도덕성과 영성의 상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종교를 통한 도덕성 및 영성의 회복만이 사회의 공동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84] 뒤르켐(Emile Durkheim)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도덕성이야말로 공동체를 위해 개인적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85]

현대사회는 도덕성과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성서를 읽는 일과 현재의 세계를 분별하는 일은 결국 상호적이다. 신앙인들이 먼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 곧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고, 참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신다.

---

[82]조선일보 2001년 5월 30일(수)

[83]미주조선일보 1994년 4월 20일(토) 15.

[84]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201.

[85]Ibid.

3) 노인과 일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소비와 안식의 기능을 넘어 일과 가정이 결합할 때 가정은 새로운 창조의 현장으로 변한다고 강조한다.[86] 사람은 일을 통해 자신을 찾게 된다.[87] 일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노인이 일을 잃은 것은 자기 정체성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은퇴는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쌓아온 전문성까지 함께 묻혀지는 것이다.[88]

노년은 육체적 노동력은 잃어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역량은 개발하면 얼마든지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거의 모든 노인들은 생산적이다. 노인의 1/3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있고 1/3은 교회나 병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89]

그러므로 노인을 사회에서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노인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가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면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험과 숙련된 전문적 지식을 갖고, 현장에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한 가치있는 조력자로 그리고 상담자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안에서 받은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 할 수 있어야 한다. 겸손의 미덕은 봉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진다.

---

[86]Alvin Toffler, *제 3의 물결* 233-235.

[87]Mattew Fox, *The Reinvention of Work : A New Vision of Livelihood for Our Time*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1992), 5.

[88]Ernst Bloch, *희망의원리* 9.

[89]John Rowe, Robert Kahn, *성공적인 노화* 최혜경, 권유경 역, (서울: 신정, 2002), 54.

2. 포스트모던니즘(postmodemism)

1) 포스트모던시대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던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일 수많은 양의 정보가 인터넷과 신문, TV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고 각종 광고와 매체를 접하며 우리는 혼란스러운 포스트모더니즘 속에서 매일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던니즘은 21세기 후반을 특징짓는 시대정신이다.[90] 포스트모더니즘은 '이후에','탈'이란 뜻의 'post'와 '현대주의'라는 뜻의 'modemism'이 결합된 용어로서, 우리말로 '후기현대주의' 혹은 '초 현대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이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근대성이 산출한 모든 것, 즉 서구문명의 축적된 경험, 산업화, 도시화, 첨단기술, 국민국가, 생존경쟁을 비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관점은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학문적으로 경계를 나누는 데 동의하지 않고 학문간 접목을 지지한 해석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며 판단을 회피하고 검증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이성중심주의의 편협성에서 벗어나고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으로 복수성, 다양성, 유연성 등과 같은 사상을 구원하려 하는 이념이다. 하지만 "어떤 것도 포스트모더니즘이 아닌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마치 구멍 뚫린 치즈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에게 올바른 현실 인식을 불가능하고 끝내 주체를 상실해가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포스트모더니즘 속에서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객체로 전락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정확한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며 포스

---

90)김동욱 편, *포스트 모던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12-13.

트모더니즘의 폐해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아는, 나아가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2)젊은이 위주의 문화

퇴니스(Toennies)가 말한 이익 사회의 특성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수량화 되고 신뢰와 상호성이 사라진다는 점이다.[91] 절대적인 진리의 해체로 규정되는 이 정신이 새로운 자기 정체 확립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사회는 젊은이 위주의 문화에서 살고 있다.[92] 이런 현실 속에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한국 사회는 철저한 다종교 다교파 상황의 전형적인 다원주의 양상을 띠고 있다.[93]

지금까지의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때 풍요로움과 편리함 뒤에는 생각지 못한 상처가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되어 온 사람들의 인식과 그 상처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은 이를 더 깊어지게 하였다.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은 경제권 자였으며 의사결정자였다. 또한 교육과 경제적 기능이 가정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청장년의 경우에 노인의 조력 없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 경험 지식 습득과 사회적 지위의 취득에 노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노인의 가정 내 지위와 권위는 효사상과 경로사상을 통해 유지되었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반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노인의 지위와 권위는 매우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사

---

[91]Gregory Baum, *Religion and Alienation* (New York: St Paulist Press, 1975), 61-75.

[92]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241.

[93]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32.

회에서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러한 노인공경사상 의 위협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주인공들인 이들이 노인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노인공경사상의 위협이 주는 영향과 함께 청소년과 노인의 '문화적 간격'이 주는 영향은, 청소년들이 노인문제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 한국 문화 속에서의 이러한 청소년과 노인의 문화적인 차이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차이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청소년들이 노인들을 하나님 안에 한 지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 성인들이 노인을 대하는 실제적인 태도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노인들을 존경하는 공식적인 윤리에 순응하나, 결국은 노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한다.[94]

교회는 종교다원주의의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수적 성장과 개개인의 실존에 머무른 종교는 공동체성과 역사성을 무시하고 ‘사사화(a private matter)’로 전락하였다.[95] ‘사사화’란 어떤 분화된 영역들이 공적 영역의 지배적인 제도로부터 분리되어 사적인 영역으로 퇴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당수의 한인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 교회로부터 단절, 트리아지(Triage)를 경험하고 있다. Triage는 프랑스 말에서 온 것으로 어떤 물건이나 회원을 열등하다고 판정을 내린 후에 그들을 제쳐놓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은 의학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에까지, 정부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자들에게는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96]

한인 노인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첫째로 이민 1세대로

---

[94]Ibid., 297.

[95]Meredith B. McGuire, *Religion: The Social Context* (Belmont: Wadsworth, 1981), 39.

[96]Howard Clinebell, *Pastor and Parish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166.

삶을 개척하고 바쁘고 열심히 살다가 은퇴한 노인들이다. 둘째로 이민 온 자녀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년에 미국에 온 경우이다. 일선에서 물러난 노인들은 경제권도 함께 소멸된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노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노인들은 갈 곳이 없다. 더구나 한인 노인들은 문화의 공간을 찾을 수 없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병원에 자유롭게 갈 수가 없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 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개발되기는 했으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실정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써 사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힘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인 노인들은 미국사회에서 타자적 존재이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현재 무관심 속에 있는 노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앞으로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 기독교 문화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노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노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써 인식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노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들에게 교육시켜야 노인문제 해결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3. 인간소외

1) 죄의 정의

인간의 소유욕과 팽창욕은 땅이 저주를 받게 만들었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죽어가고 있다.[97]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는 죄를 오만이라고 기술하면서 ‘지식과 권력과 도덕성의 오만은 파괴된 관계를 가져오면서 하나님과 내 이웃으로부

---

[97] 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230.

터 고립된다'고 말했다.[98] 이처럼 교만은 관계를 단절시킨다.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사랑의 결핍이 죄'라고 하면서 '나의 사랑의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원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사랑의 결핍도 관계를 단절시킨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인간소외(alienation)의 개념을 가지고 죄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하였다.[99] 인간소외는 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100] 매튜 폭스(Matthew Fox)는 선함이란 근본적으로 관계적이며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악이란 이러한 상호 연관성의 부정이다.[101]

2)소외된 관계

사회학적 관점의 병리적인 현상은 관계의 단절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치유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치유는 생태계 안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102]. 만물의 창조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질서는 관계를 통하여 유지된다. 인간관계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며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전제로 한다. 노인들은 가족과 교회, 사회 구조로부터 소외된 존재이다. 관계의 단절은 노인존재의 근원을 파괴하며 공동체의 고통을 유발시킨다. 병든 공동체는 노인들에게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며 노인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다.

성서의 중심적 이슈 중의 하나는 힘있는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취급하는 정치적인 책이라는 것이다.[103] 오늘날 핵가족화 되어 가는 즈음에 가족관계가 식어져

---

[98]Reinhold Niebuhr,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 사회* 이병섭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72), 35.

[99]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7), 56.

[100]John J Carey, edited. *Kairos and Logos* (Mercer University Press, 1978), 141-165.

[101]Matthew Fox, *Original Blessing* (Santa Fe NM: Bear and Co, 1983), 46.

[102]James A. Nash,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Nashville: Abingdon, 1991), 208.

[103]Justo L Gonzalez, *Manana* (Nashvill: Abingdon Press, 1992), 85-87.

가고 있다. 결국 노인은 가정과 가족 관계 속에서 소외되기 쉽다. 또한 노동력의 손실과 노령화로 인하여 대인 관계에도 많은 장애가 있다. 한인 노인들의 삶이 관계를 박탈당한 노인들로 비존재화 되고 있다. 한인 노인들은 이 사회 속에 존재하지만 이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단절된 계층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이중으로 소외되고 있다. 노인도 인간으로서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결핍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유리된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죄악의 형태가 아닐 수 없다. 성공적인 노화는 질병과 장애가 없고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인생참여를 지속하는 것이다.[104]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한인 노인들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4. 관계의 단절

1)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우리가 현실과 접촉하도록 해주고 또 우리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관계의 의지는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에 의해 강조된 쾌락의 의지나,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에 의해서 강조된 권력의 의지, 혹은 빅토르 프랭클(Viktor Frankl)에 의해 강조된 의미의 의지 보다 훨씬 강하다.[105] 인간은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의 능력, 건전하고 현실적인 삶의 자세를 배울 때 그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남들과 교제하고 외로

---

[104]John Rowe, Robert Kahn, *성공적인 노화* 최혜경, 권유경 역, (서울: 신정, 2002),60-61.

[105]Howard. J Clinebell, *성장상담학* 김선도 역, (서울: 광림, 1983), 33.

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식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실은 유동성과 사생활과 편의성을 더 추구하므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노화는 모든 생물의 변화 과정이다.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취약점들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시기이다. 정상 노화 과정을 이해함으로서 이러한 과정으로부터의 변이를 확인하고 그 취약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2) 과학기술의 발달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과학기술 사회에서는 이미 과학기술은 자유인의 손에 쥐어야할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고 지배하고 규정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106]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 때문에 고독해진다. 이 시대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여 외로움은 더욱 만연해졌다. 립튼(Robert J. Lifton)은 핵시대의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의 본질은 역사적 단절, 단편적 이데올로기, 불사의 추구라고 말했다.[107] 과학기술의 발달은 능률 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익의 극대화 현상은 능력없는 자의 도태를 의미하게 되어 사회가 이해타산 중심적으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유동성 때문에 우정은 깨어지고 가족들은 분산되고 이웃이나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다. 도시화는 서로 의심하고 움츠러들게 하므로 심한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텔레비전은 이웃과 친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다. 이처럼 현대의 과학기술로 인한 급속한 변화는 서로간의 친밀감을 방해하고 외로움을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또한 이것은 비인간화를 촉진시키므로 노인들은 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들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108]

---

[106]Herbert Marcuse, *The One- 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2-52.

[107]Henri J. M.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 역, (분도출판사, 1990), 19-26.

현대화 이전의 노인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노인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문명발달과 교육을 통한 지식전달은 그들을 사회 주변인으로 전락시켰다. 막스 베버는, 역사와 사회의 기본구조로서는 지배를, 발전원리로서는 합리화를, 구체적인 현대의 상징으로서는 자본주의를 지목했다. 베버가 지배와 합리화 및 자본주의를 삼각의 축으로 하는 삼위일체의 학문체계를 미완성상태로 남겨 둔 것을 후학들이 정리한 것이 "경제와 사회"이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를 좀더 정리해보면 베버는 사회체계, 경제체계, 법체계, 정치체계, 종교체계 별로 사회의 기본구조를 분류한 다음 "지배의 사회학"에서 역사적 시각을 동원하여 결론적인 총정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개념이 베버의 모든 학문체계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 전체가 곧 지배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은 현대화가 될수록 자신들의 지위를 잃는다.[109] 노인들이 기초를 세운 사회가 노인을 거부한다. 더욱이 이민 1세대인 한인 노인들은 미국 사회의 이방인으로 존재하면서 단절을 경험한다. 미국 사회의 기술과 합리성, 문화의 수평성 때문에 인하여 한인 노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3) 의사소통의 상실

세계사회는 흰머리의 증가로 인한 고민을 안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면 노인들의 노동력이 문제가 된다. 대부분 고독한 사람들은 독신이거나 과부이며 슬픔에 잠겨 있는 노인들이다. 노인들이 외로움을 당하는 원인은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110] 첫째로, 역할의 상실 및 여가시간 문제. 둘째로, 수입 감소 및 경제적 문제. 셋째로, 건강 보호의 문제. 넷째로, 심리 사회적 고립과 소외문제. 특히 의사소통을

---

[108]김정후, 한만주, *노인인력 활용정책과 프로그램* 23.

[109]Max Weber, *Economy & Society 지배의 사회학* 금종우, 전남석 공역, (서울: 한길사, 1993), 19.

[110]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244.

할 수 없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거의 대부분 문제들의 원인이다. 의사소통하기를 싫어하거나 솔직하게 그 방법을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111]. 그러므로 노인들은 산업화와 도시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본 교회 노인들도 이 시대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때문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여 외로움이 더욱 심화되었다.

인간 수명의 연장은 세대 간 가치체계를 현격하게 벌려 놓았다. 부모와 자녀는 가치관의 차이로 서로가 간섭과 거부로 이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노부모와 사회규범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부양은 부모에게는 분노를, 자녀에게는 죄의식을 유발시킨다. 일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행복감이 감소하고,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자아정체감을 상실하고, 우울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112]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손자녀의 인생주기에 중요한 심리적 발달을 도모하며,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제공한다. 조부모에게는 생의 연속성을 느끼게 하며, 노년기의 통합 발달에 도움을 준다. 노인은 가족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위기를 지탱하는 충격흡수의 역할을 한다. 이민 노인은 손자들과 언어적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조부모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노년기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한다.

두 세대간의 갈등 상황에서 상담자들은 노인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절대적 가치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도 성경은 여전히 절대가치의 방향을 제시한다. 노인은 상실과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중과 공경의 대상임을 상담자가 바로 알고 갈등상황을 풀어갈 때 바른 성경적상담이 진행되어지고 세대간 화해의 모습으로 나아

---

[111]김정후, 한만주, 165.

[112]차흥봉 외 5인,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0), 119.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노인들의 의식

1)노인의 소외

인간은 연령에 따라 관심도 달라질 수 있다. 어릴 때는 장난감과 놀이에 대한 관심, 10대는 학업· 진학· 성에 대한 관심, 20대는 사랑과 가정에 대한 관심, 30대는 가정과 직장에 대한 관심, 40대는 돈과 자녀에 대한 관심, 50대는 명예와 인정받음에 대한 관심, 60대는 종교와 죽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생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현대인의 불안의 원인은 고독에서 온다.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에서 축적된 노인들의 귀중한 인생의 경험이나 지혜는 간과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113] 역할상실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노인들이 가지는 심리적 고독은 소외감이다. 노인에게서 소외는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다.[114] 이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사역은 노인 역할을 되찾고 노인의 정체감을 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 구조 안에서 한인 노인은 이중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간다. 긍정적인 면에서 공경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능률의 저하로 불필요한 존재임을 강요당하고 있다. 대중매체들은 젊음을 미화시키는 자극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은

---

113)사미자,“노년의 심리”,*한국교회와 노인목회*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63.

114)맹용길, *노인복지 목회론*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1160.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경직성, 조심성, 의존성, 애착심의 증가는 심리적인 것으로 대부분 우울증 경향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인 노인의 성격 특성은 자기중심성, 보수성, 의심, 질투, 유연성의 부족, 유통성이 없다, 고집이 강하다, 적응력의 저하, 아는 체 함, 의존성과 욕구의 증대 등 이다.[115] 한인 이민자들의 높은 스트레스는 많은 정신장애를 일으킨다.[116] 한인 정신 건강의 문제는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노년기에 동일 연령, 동일 취미 등의 새로운 친밀한 인간관계가 더욱 필요하다.[117]

노인들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대안과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한인 노인들은 미국 사회에 유입되기 전까지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살아왔다. 미국에서의 삶 역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그들의 내면에는 피해의식이 존재한다. 노인들의 현재 삶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시기인데 여전히 그들은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노인차별로 인하여 분노가 잠재되어 있고, 언어장벽은 문화적응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킨다. 노인들은 교회 생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 부재로 인하여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잔재한다.

2)노인의 죽음

인간이 당면하는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음의 문제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도 없다.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죽음의 문제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죽음의 그

---

[115]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47.

[116]Pyong Gap Min, *Asian Americans* 47.

[117]한국선교교육연구원, *교회교육 핸드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101-102.

림자가 서서히 다가옴을 느낀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즐거운 날을 맞이해도 기쁨이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 경험의 어디에나 다 있고 노인은 젊은이 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하다. 노인들은 동고 동락한 반려자, 친구 같은 배우자와 사별할 때 가장 고독하게 된다.

정신 병리 학자 큐블러-로스(Kubler-Ross)는 불치병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한 결과 다섯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1)부정과 고립의 단계 2)분노하고 발악하는 단계 3)타협의 단계 4)의기 소침한 우울의 단계 5)죽음을 진실히 받아들이는 단계이다.[118] 이는 인간이 죽음 그 자체보다는 헤어진다는 사실 즉 모든 것을 상실함에 더 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죽음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과 대화를 회피한다. 인생이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사실을 덮어두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노인들은 죽음에 직면하면 육체와 영이 조화를 이루는 초월적 경험을 갈망한다. 죽음을 거룩한 행위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노년과 죽음은 인간에게 필연의 과정이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노인에게 죽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성장의 기회일 수 있다. 죽음을 흔히 인생의 종말로 표현하는데, 종말을 뜻하는 그리이스 단어 '테로스(τεροσ)'는 완성, 성취, 통합의 의미를 포함한다. '테로스'란 제멋대로이고 무책임한 자신을 뛰어넘어 보다 높은 정신적 차원에 도달하는 실존적 성숙을 의미한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노인은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남은 자를 위로한다. 성서의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다. 신의 구원은 작업의 마무리가 아니며 영원을 향하여 시작하는 작업이다.[119] 죽어가는 과정도 성장의 최종 단계일 수 있다.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서 파생된 것이다. 노년에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맞는 신앙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으로 노인의 건강한 죽음을 연습할 수 있다.

---

118)Elisabeth Kubler-Ross,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an Co, 1974), 38-113.

119)최효섭, *노인과 죽음* (서울: 쿰란출판사, 1997), 73.

노인들은 앞으로 남은 세월이 짧다는 것을 느끼며 죽을 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한다. 그것은 자손, 예술작품이나, 문학 작품, 독특한 기술, 지식, 신앙, 부동산이나 돈 등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노인이 연령이 높을수록 남녀 공히 죽음을 원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120] 죽음은 하나님의 인류 창조 질서 가운데 마지막 단계이며 죽음 후의 세계는 새로운 창조이다. 죽음이란 그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121] 그러기에 제2의 죽음에 대처하는 노인들에 대하여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포근함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정신으로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120]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96.

[121]Edward Thurneysen, *목회학 실천론* 박근원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248.

Ⅳ. 노인의 고독을 해방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

1.생명공동체로서의 역할

1)생명에 대한 이해

생명은 미래사회의 도전을 받는 처음이요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며 동시에 그 도전을 받을 주체요 그 과정을 설계하고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주체이다. 생명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미래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생태계의 번영은 인간들의 복지보다도 선행 조건이 된다. 지구가 병들면 우리의 의학을 가지고서도 존재시킬 수가 없다.[122]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123] 우리의 생명에 대한 관심사는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의식주 중에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세상사에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처럼 요란한 전쟁이나 분쟁이나 빈부격차로 말미암는 사회갈등 문제가 적지 않게 해소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밥퍼공동체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극빈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숨은 선행자들이 있고 우리보다 가난한 소수민족 공동체에게 수시로 거리에서 불고기 파티를 열어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양식은 일생의 양식이지 영생의 양식은 아니다. 일생의 떡은 먹고 또 먹지만 죽음을 피하게 할 능력이 없는 떡이다.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가릴 것 없이 육체를 위해 먹거리에는 크게 관심을

---

[122]Howard Clinebell, Ecotherap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3.

[123]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219.

두지만 영적인 생명, 영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수만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이 된다.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예수는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굶주린 이웃들에게 육적인 떡을 나누어 주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생의 양식도 나누어 주고 보다 더 큰 일은 영생의 양식 곧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예수는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즉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자들의 친구였고, 이들의 해방자로 오셨다.[124] 노인은 그들을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체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계층이다.[125] 진정한 목회는 섬김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총체적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2)성경의 노년의 삶

성서는 노년을 인생의 한 단계로서 인식하고 있다.[126] 인간은 결코 고립된 자아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본질상 '공동체 안의 인간(person-in-community)'이기 때문이다.[127] 가트워드(Norman K Gottward)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 이스라엘을 민족개념이 아니라 사회계층 개념으로 이해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종교 공동체를 가리킬 뿐 아니라 생존과 건강한 삶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주권적인 재부족화 사회를 가리킨다.[128] 이 공동체는 가나안 군주들이 군림하는 도시국과들과 애굽의 절대 권력에 대조되는 하나의 평등주의 공

---

124)Adolf Holl, *소외된 사회의 예수* 김희은 역, (서울: 종로서적, 1983) 34-36.

125)서인석, *성서 속의 가난한 사람들* (분도출판사, 1991) 37.

126)Hans Walter Wolff, *구약성서의 인간학* 210-214.

127)Ibid., 269.

128)Norman K Gottward,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1985) 288.

동체인 것이다. 기독교는 히브리 유산 중에서 이러한 공동체 개념을 잃어버렸다.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129] 메시야적 공동체로서의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는 해방된 자의 공동체이며, 회개한 자의 공동체이며, 소망하는 자의 공체로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130]

노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다.[131] 베른하르트 랑(Bernhard Lang)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석에서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동사 '킵베드'의 의미는 노년의 부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드린다는 뜻이라고 밝히고 있다.[132] 성경의 노인은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해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다.[133] 한 개인의 신앙과 생의 철학은 자기성실을 굳게 하는 데 있다. 이 자기 성실로부터 나오는 힘이 지혜이다.[134] 젊은이가 힘을 갖고 있는 반면에 노인은 그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인해 존경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

효란 부모부양의 기틀이 되는 윤리 규범이다. 동양 유교문화는 계급질서, 파벌주의, 가부장제도 등 왜곡 문화를 만들어내었지만 '경로-효' 사상은 노인부양의 규범을 마련하였다. 시대 변화에 따라 효를 형식적이며 강제적인 과거의 유산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효는 여전히 한인 사회의 규범으로 생활에 내재화되어있다.[135] 한국인과 미국인의 공통적인 효행 동기는 애정, 보은, 책임으로 나타나

---

129)Marvin R Wilson, *기독교와 히브리 유산* 이진희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6), 217-218.

130)김영한, *기독교신앙개설,* (서울: 형설출판사, 1987), 448.

131)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에베소서 6:1-2.

132)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49. Exo 20:12 ךיבא־תא דבכקעמל ךמא־תאולע ךימי ןו
כראיהוהי־רשא המדאה:ךל ןתנ ךיהלא

133)신명기 32장. 열왕기상서 2:1 이하. 창세기 49:1-28. 사무엘하서23:1-7. 신명기 33장. 창세기 27장. 디모데후서 4:6-8.

134)Howard. J Clinebell, *성장상담학* 김선도 역, (서울: 광림, 1983), 194.

며, 한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동기 이외에 가족조화, 희생, 존경이 타나난다.[136] 한인 생활의 근간은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원간의 친밀한 정서이다. 한인들은 부모-자녀 모두가 효를 긍정적인 윤리로 받아들인다.

부모 세대는 효를 절대적인 가족윤리로 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들은 형편에 맞는 효를 요구한다.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효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것이어야 한다. 효는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방도로 재정립되고, 가족체계 내에서 역할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효가 부양만을 강조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효는 형식으로 전락한다.

성서적 관점에서는 노인을 현대사회가 보는 관점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생의 노년기까지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성서의 하나님은 노약자를 사랑하시고 노년시대를 변함없이 돌보시며 축복할 것을 약속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137] 성서에 언급된 건강한 노인상은 본질적으로 자신감에 넘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모습이다.[138] 성경은 노년이 죽음과 상실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것 뿐 만아니라, 노년은 인생 노정의 복된 순례의 과정이며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또 해야할 사명이 있는 시기임을 깨우쳐주고 있다.[139]

종교는 용기와 힘과 안정을 주는 것이다. 그 결과로 환상과 도전과 모험을 가지게 한다.[140]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은 결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며 소외와

---

135) 김명자, *현대노년학-효와 노부모 부양*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231.

136)성규탁, *부모부양 위지의 비교 문화적 고찰* (서울: 나남출판, 1995), 43.

137)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50-51.

138)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 과학* 254.

139)김중은,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48.

140)J. Richard Spann, *목사학*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97.

슬픔과 상실의 시기가 아니다.[141] 칼 바르트(Karl Barth)는 의인과 성화에 대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은 인간을 의롭게 보는 것을 의미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은 인간의 성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142] 성경의 노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데 대한 은총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하여 노인에게는 후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143] 성경에서 노인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노인의 존재는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2. 역량 강화의 역할

1) 노인의 평생교육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계속된 재사회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재사회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안겨준다. 인간이 한창 나이일 때 그 내면에는 이미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다.[144]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낄 때 회복의 첫 단계는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시인하며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포트홉(Harvey Potthoff)은 외로움을 처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방안들을 제시했다.[145] 첫째로, 유익한 영적 생활을 가지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한 유머 감각을 개발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다. 둘째로,

---

141)시편 92:14. 고린도후서 4:16. 고린도후서 5:1.

142)James H. Cone, *눌린자의 하느님* 현영학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309.

143)Hans Walter Wolff, *구약성서의 인간학* 219.

144)Simone de Beauvoir, *노년* 12.

145)Harvey H. Potthoff, *Loneliness: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It* (Nashville: Abingdon, 1976), 2-10.

교제를 계속하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킨다. 셋째로,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목적이나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우울증과 외로움을 피해야 된다. 노인 사역은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의 공통된 관심사로서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노인 사역은 지도자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노인 계층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의 일치감을 도모 하도록 해야 한다.

폴 랑그랑(Paul Lengrand)은 생애교육론에서 "변화가 심한 현대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은 몇 해가 지나면 벌써 쓸모가 없어진다"고 하였다.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이 완성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고 교육의 계속성과 통합성을 제안 했다.[146] 인간은 기성품이 아니라 되어 가는 실존이다.[147] 노인은 각종 단체나 노인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인간 관계나 TV의 연속극을 통해서 인간형성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 노인 사역은 기독교 노인 교육과 직결된다. 바른 노인 교육을 위해서는 주일학교 노년부 교육과 함께 노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많은 노인들은 불안정감과 무용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 감정을 가지고 있다. 상담과 정신요법의 역할과 기술을 이론화 시킨 로저스에 의하면 상담자가 통찰을 얻을 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통찰이란 지각면의 재체계화, 새로운 관계 파악, 혹은 자아의 새롭게 정해진 방향 등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48] 그들에게 전해지는 교회의 메시지는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자아의식과 유용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신앙적 준비를 하게하며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를 잊고 사죄의 은총을

---

146)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213-214.

147)김형태, *목회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251.

148)Carl R. Rogers,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한승호 역 (서울: 집문당, 1989), 200-204.

받게 해야 된다.

2)노인 교육의 방법과 내용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젊은이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전체교인을 위한 균형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인 교육은 대화와 참여를 위한 자율학습(andragogy)이어야 한다.[149] 파울러 프레이리(Paulo Freire)는 의식화란 자연과 사회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정신 상태의 변화라고 정의 한다.[150] 그러므로 앞으로의 노인 사역은 놀이, 활동 중심에서 교육중심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보탬이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보탬이 되려면 자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행복 해야지만 남에게 손길을 내 밀 수 있다. 자신의 재능 또한 발굴, 발전시켜 나가는 자원 봉사 활동은 앞으로 급속히 변해가는 미래사회 리더 양성의 지름길이다.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John Clinebell)은 '노년기는 전인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151] 생을 전체로서 용납하는 것은 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는 노년기의 사람들이 인생 후반부에 풍성한 생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더욱 개발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이다 배움이 끝나면 곧 인생도 끝나는 것이다. 노인은 평생교육의 대상이 된다.[152] 평생교육은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재창조라는 뜻에서 보다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꿈이나

---

149)김재은, *성인교육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2) 127-128.

150)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Contiuum, 1993), 57.

151)Howard John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Abingdon Press,1984), 208-214.

152)이정호, *기독교 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2), 38-41.

환상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망해가고 있으나, 꿈이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핍박에도 견뎌내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 나간다. 그리고 인내로서 그 궁극의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153]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회에서는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 때문에 사귐을 찾는다. 그들은 홀로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 있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사귐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귐 안에서 살 수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154] 홀로 있는 표는 침묵이다. 말은 사귐의 표이다. 침묵은 말의 넘침이요 말의 도취요 말의 제사이다. 침묵이란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아래서 다만 고요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침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낮은 데로 가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155] 기도와 명상과 상상은 영성적 성장을 위한 오른쪽 뇌의 경험적 자원들이다. "고독에 찌들어 있어야 할 때와 병인시절의 병석에서도 고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묵상의 덕이다"[156]라고 박종렬 원로목사는 말했다.

교회는 노인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노인들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영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노년기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며, 균형된 프로그램은 교육, 예배, 봉사, 친교로 구성된다. 노화로 인한 생동감 상실을 신앙으로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는 예배시의 설교나 각종 모임에서 노인들이 가지는

---

[153]David A. Seamands, *좌절된 꿈의 치유* 이갑만 역, (서울: 두란노, 1994), 15.

[154]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1), 124.

[155]Howard J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07.

[156]월간목회, 1998년, 1월호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3)노인의 발달

많은 노인들은 불안정감과 무용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감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많은 부분에서 쇠퇴기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숙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생 주기적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을 설명해주는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8단계 이론이다.[157]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이 인생의 전체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노년기에 극복해야할 심리 사회적 위기에서 긍정적인 자아 통합이 발달하지 못하면 절망의 태도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자아통합은 노년의 삶을 의미 있고 지혜롭게 영위하도록 해주며 무엇보다도 자아 통합을 이룬 사람에게는 노년의 시기에 경험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인 죽음이 그리 심각한 고통이 되지 못한다.[158] 교회에서는 노인들이 죽음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을 신앙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죽음에 대한 교육이야 말로 교회가 해야 할 과업 중의 하나이다.

노인은 신앙성장에 노력해야 한다. 노인들이 신앙성장을 꾀하지 않으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된다. 파울러(J. W. Fowler)는 사람들의 신앙발달 단계를 6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지관적-투사적 신앙(제1단계), 신화적-문화적 신앙(제2단계), 비분석적-관습적 신앙(제3단계), 주체적-반성적 신앙(제4단계), 접속적 신앙(제5단계), 보편적 신앙(제6단계)이다.[159] 아직 현대교회는 제3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다. 제6단계의 보편적 신앙이란 현실을 변혁시켜 초월적인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일

---

[157]Erik H. Erikson, *아동기와 사회* 윤진, 김인경 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8), 260-268.

[158]Ibid., 313.

[159]James. W. Fowler, *신앙의 단계들* 이재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149-265.

생을 바치는 단계이다. 노인들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고 헌신의 삶을 살도록 노인들의 신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인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이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이다.[160] 노인들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것은 고독한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적응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육체적, 전신적, 사회적 안녕이란 기존 건강의 정의에 영적 건강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161] 교회는 노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하나님의 피조물 됨을 자각케하고, 구속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인들이 건강할 때에도 그들의 유용성을 자각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일을 주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관계와 그룹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노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한국은 삼한시대부터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시작한 계와 신라시대의 두레, 고려시대의 향약 등에서 자원 활동을 볼 수 있다.[162]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힘이 부치고 일손이 모자랄 때에 두레를 통하여 그들의 부족을 극복하였다.[163] 두레는 전형적인 역량강화(Empowerment)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고독한 노인이 전인적 건강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서 운영하는 두레운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노령화 과정에서 힘과 의식이 감퇴할 때에 상처받기 쉬우므로 노인은 역량강화(Empowerment)가 필요한 계층이다.[164]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를 가지거나 가지도록 하여 서로 권고하면서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생활은 노인들에

---

160) B. M. Newman, & Newman, P. R, *현대 발달심리학* 박아청 역, (서울: 형설출판사, 1990), 398.

161) 최종진, "Hubris의 유혹을 경계하라" 한국성결신문 2010년 12월 4일

162)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4),

163) 신용하,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서울: 한길사, 1989), 440.

164) Jane Myers, *Empowering Old People* (Connecticut: Auburn House, 1995), 111.

게 노년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매우 유익하다.

3. 창조 공동체의 역할

1) 친구관계

창조 공동체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물들의 공명(Sympathies)을 발견하며 의식적으로 창조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모든 창조 공동체의 희망은 그의 창조자와 구원자가 그의 목적에 도달하며,이 공동체 안에서 본향을 발견하게 된다.[165] 창조 공동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필리아(philia)는 공동생활의 기초'라고 말했다.[166] 친구관계는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에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기본법칙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있다. 모든 참된 친구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노인에 대한 봉사와 노인의 봉사가 서로 교환됨으로써 오랬동안 다른 사람들을 대들보 역할을 해온 그 성도들은 교회와 연합된다.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 일 때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평등해질 수 있다.[167]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나와 너(Ich und Du)라는 책에서 "태초에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다.[168] 부버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관계의 행위로 보는 깊은 독창력을 보여준다. 관계의 세계는 나-너 차원과 나-그것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이 구분은 부버가 인간을 둘러싼 모든 대인관계를 제시하는 규범

---

165)Jurgen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8.

166)Jurgen Moltmann, *생명의 영*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18.

167)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87.

168)Dorothee. Soelle,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서광선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266.

이 된다. 내가 내가 되려면 네가 필요하다 내가 내가 되면서 나는 너라는 말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소그룹 운동이 점차적으로 일어나 1994년 현재 미국인 중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 인격적으로 흐르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 때문이다.[169] 개개인의 인생과 전체인류의 역사에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도 이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의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2)인간의 구원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자연을 제외한 인간의 구원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존재의 전체성에 있어서 모든 것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는 자연의 참여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구원에는 우주의 참여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간의 구원은 우주적, 총체적 구원이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170] 성서적인 'ministry' 는 섬김의 뜻이며 ,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71] 공동체 창조를 통한 기독교 사회 교육은 참여와 책임이 동반되는 함께함이 강조되는 새로운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 변화의 폭이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이며, 이 같은 창조적 공동체의 현존은 또 다른 역사의 변혁도 가져오는 누룩집단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공동체 창조란 관계의 설정이고, 이 관계는 소외된

[169]홍일권 편저, *세계 기독교 정보* (서울: 나단, 1994), 96-97.

[170]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141-147.

[171]김형태, *목회 문화* 15.

노인들을 다시 엮어가는 사랑의 예술이 될 수 있다.

3)열린 공동체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 정서적, 성적, 영적 역할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해준다면 친밀함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감각적인 영성이 관계속에서 더욱 극적인 것이 될 수 있다.[172] 노인들의 마지막 남은 삶은 명상을 위해 주어져 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대화이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크리스챤의 삶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173] 노인들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재 창조해야 한다.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교회는 어느 개인만을 위한 폐쇄된 단체가 아니다. 디트리히트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며,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이해 한다[174] 교회는 타자를 위해 열린 공동체이어야 한다.[175] 몰트만(Moltmann)은 인간의 객체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성 안에도 똑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말하면서 인간의 사회성 즉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다.[176]

공동체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새로운 가족 형태와 따듯한 인간관계를 다시 찾아야 한다.[177] 현대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성을 잃어 버렸으므로 노인들이 교회 안

---

[172]Howard. J Clinebell, *성장상담학* 김선도 역,(서울: 광림, 1983), 186.

[173]정웅섭, *기독교교육개설*,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2), 350-351

[174]손규태, "본회퍼" *103인의 현대사상* (서울: 한길사, 1996), 328-329.

[175]Jose Balado, *떼제 이야기* 이미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3), 14.

[176]Jugen Moltma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김균진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38.

[177]Alvin Toffler, *제 3의 물결* 412-417.

에서 소외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들이 교회에 나가면 그들은 젊은이 프로그램, 가족봉사, 또 부부 모임의 활동들을 강조하는 집회에서 자신들을 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진실한 목회는 가정에서 식탁을 준비하는 활동과 같은 가정적인 의미가 담긴 봉사여야 한다.[178]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일 때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평등해질 수 있다.

교회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역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179] 브라질 바닥 공동체에서는 생명체로서 다양 속에 통일을 유지하기위한 기본 틀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기, 서로에게 봉사하여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기, 하나님의 복지를 앞세워 끊임없이 회개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용하기, 형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기 등 이다.[180] 소외된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브라질 바닥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대안적 사회로 나타나 문화를 변형시키는 모형으로서 작용해야 한다[181] 교회는 노인의 노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182]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의 이론에 근거한 생명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 노인들이 그 동안 떠나왔던 자연을 체험하며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과 희망을 실현하여야 한다.[183]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상처입고 소외된 인간은 물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창조적인 능력과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일치성을 가져온다.

---

[178] John E Burkhart, *Worship*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1982), 99

[179] Howard A Synider, *21세기 교회의 전망* 박이경, 김기찬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89.

[180] Joachim Georg Piepke, *브라질바닥 공동체* 강원돈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0), 305.

[181] Scriven Charles, *The Transformation of Culture* (Scottdale, Herald Press, 1988), 180.

[182] Leonardo Boff, *교회의 권력과 은총* 유종순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6), 30.

[183] Howard John Clinebell, *Ecotherapy* 27.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John Clinebell)은 지구와 함께 건강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양육되는 성장과 치료를 생태치료(ecotherapy), 성장을 자극하는 과정을 생태교육(ecoeducation)이라고 말했다.[184] 그는 상호의존적인 삶의 차원을 여섯 개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그중 다섯가지 차원은 수평적인 삶의 차원이요, 나머지 한 차원은 수직적인(영적인) 차원이다. ① 정신·정서적차원, ② 몸의 차원, ③ 이웃과의 관계의 차원, ④ 사회적 삶의 차원, ⑤ 자연과 관계적 삶, ⑥ 하나님과 관계적 차원, 즉 영적인 차원이다. 그에 따르면, 다섯 가지 차원의 수평적 삶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다른 차원의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는 수평적 차원의 삶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상담이나 목회는 전인적인 회복을 염두에 두고 상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 핵심은 영적인 차원에 중심을 둔 인간회복이라는 데에 있다. 즉 모든 수평적인 삶의 차원들은 영적인 삶의 차원들에 연계되어 있으며, 모든 수평적인 삶의 차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에 놓일 때에 영적인 차원으로 화하게 된다는 것이다.[185] 그러므로 교회는 고독한 한인 노인들을 창조 공동체 속으로 이끌어 친구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

4. 책임사회의 역할

1) 문화의 변혁

오늘날 사회를 일컫는 말 가운데 통제 불능의 사회,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생산 소비의 사회 등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은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고령화 문제는 어느 개인, 사회 국가차원의 문제만이 아

---

184)Ibid., 3.

185)Howard John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Aingdon Press,1984), 210-214.

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학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40년경이다. 노인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연구의 차원을 다루게 되었고 그 목표는 인간 수명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능력 감퇴와 장애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정립되었다.[186)]

그러기에 1991년에는 UN에서 노인을 위한 UN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였으며 그것은 자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그리고 존엄성(Digity)으 원칙이다.[187)] 미국 상원에 소속되어 있는 노화 특별위원회에서는 1984년 노인을 행정적인 목적에서 구분했다 즉 55세 이상은 older population, 65세 이상은 elderly, 75세 이상은 aged, 85세 이상은 very old로 구분했다[188)]

미국 시카고대학의 저명한 심리학 교수인 버니스 뉴가튼(Bernice Neugarten)은 처음으로 노인들을 두 연령 집단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첫째는 청노인 집단으로서 65세에서 74세의 연령으로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노인들이다. 둘째는 노노인 집단으로서 75세 이상으로 허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자는 이생의 마지막 4분기에 있다고 기술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이 노인 인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89)] 21세기에 새로운 사회 문제는 노인문제가 될 것이다.

다원사회는 전체주의와 획일성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와그만(J. Philip Wagaman)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심각히 질문한 바 있다.[190)] 막스 웨버(Max Weber)는 공동사회에서는 이른바 전통적 권위가 나타나는

[186)]김성순, *노인복지론* 71-73.

[187)]호태석, 황정혜, *교회와 노인복지* 259-260.

[188)]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187.

[189)]John Rowe, Robert Kahn, *성공적인 노화* 최혜경, 권유경 역, (서울: 신정, 2002), 24.

반면에 이익사회에서는 합리적 법적 권위가 통합된다고 말한다.[191] 윤리는 공동체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한 생명에 대한 긍정이며, 형제인 인간들 사이의 정의로운 사랑의 관계이다.[192] 코이노니아 윤리로 유명한 폴 레만(Paul Lehmann)은 개인이 자신의 성숙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독교적 공동체주의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193]

리처드 니버(Richard H. Niebuhr)는 평신도 개개인을 가리켜 '문화의 변혁자'로 일컬으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194] 기독교 가정은 신앙공동체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이다.[195] 노인들은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다[196] 이와 같이 노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창조하고 문화의 변혁에 기여할 수 있다.

2)인격적인 공동체

가정요법의 전문가인 버지니아 세티어(Virginia Satir)는 문제가 없고 발달을 촉진하는 가정은 자아 가치가 높고, 커뮤니케이션은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구체적이고 정직하며, 규칙은 융통성이 있고 적절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사회에 대한 연결은 개방적이고 희망적이다.[197]라고 말했다. 뮐더(Walter G Muelder)가 사용하는 중간공

---

190) J. Philip Wogaman, *Christian Perspective on Politic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191) Max Weber, *지배의 사회학* 11.

192) Enrique Dussel, trans. Barr R Robert, Matyknoll, *Ethics and Community* (New York: Orbis Books, 1993), 99-109.

193)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per, 1963), 346.

194) 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209.

195)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27.

196) 이인수,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1), 384-385.

197) Virginia Satir, *피플 메이킹* 배영자 역, (서울: 보이스사, 1979), 394-403.

리는 ‘책임사회’ 개념이다. 그의 책임사회 윤리는 사회의 다양한 제도 속에 인격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가족, 교육, 정치, 경제, 종교 등 제반 제도들에서 인격적 공동체주의(Personalistic Commentarialism) 혹은 공동체적 인격주의 (Communitarian Personalism)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뮐더의 도덕법은 모두 15가지이다.[198] 그의 도덕법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원화된 사회에 나아가 비기독교 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틀을 마련해준다.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이다. 노동자는 부단히 지속되는 창조과정에 대한 살아있는 상징이다.[199] 한인 노인들은 이민1세로서 한인 1.5세와 2세를 위해 희생하는 세대였다.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은 무형의 자산이다. 그들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므로 새로운 문화의 계승의 계기가 된다. 이것은 전통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신앙적 자세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책임 사회를 위한 노인들의 역할은 더불어 사는 삶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

행동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에도 활동성을 유지하는 노인은 생활만족이나 사기도 높고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200] 선진국에서는 퇴직 연령을 65세 내지 70세로 연장하고 고령자에게 가급적 오래도록 일을 하는 노인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 인력은 뚜껑을 따지 않은 인력 자원이다.[201] 행복한 노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할을 새롭게 얻을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내면화 되어 자아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갖게 되며 만족감을 갖게 된다.

기독교 신학 안에서 창조의 교리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양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공동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202] 자연과 운명 공동체임을 발견한 노인들은

---

[198]Walter George Muelder, *Moral Law in Christian Social Ethics* (Richmond: John Knox Press, 1966). 167.

[199]Dorothee Soelle, *사랑과 노동* 117.

[200]서병숙,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1995), 110.

[201]김정후, 한만주, *노인인력활용 정책과 프로그램* 3.

병든 지구를 보살피고 지구를 책임질 수 있다. 자연환경의 보호가 없이는 미래사회에서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대화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평화를 만들고 보전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의 평화를 모형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미래에 포괄적 의미의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종교의 형태로,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시민종교의 형태로 지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다[203) 그러므로 고독한 노인들의 활동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회와 사회는 서로 협력해야하고 단체를 결성해야 한다. 고독한 노인들을 책임지는 인격적 공동체를 이룩하여야만 한다.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생산적인 노후생활, 건강한 노후생활, 통합적인 노후생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04) 은퇴한 노인의 경우 매일 매일의 생활이 여가생활이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취미나 오락, 놀이, 관광 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봉사, 문화적 활동 등 광범위하다. 역할을 상실하므로 고독한 노인들이 사회 활동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인 자원 봉사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노인들 모두가 외롭고, 건간을 잃고, 권태롭고, 가난에 시달리고, 또 이용당하는 것은 아니다. 샤퍼(Kay Banister Schaffer)는 자원봉사가 노인들에게 자신이 늙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205)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나아가 자원봉사가 사회화를 돕고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시민 단체, 종교단체, 의료 단체, 교육 단체, 환경 단체 등은 자원 봉사자들을 크게 필요로 하고 있다. 교회는 노인들이 사회 경제적 섬김과 나눔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206) 교회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정체성 회복과 건강한

[202)Dorothee Soelle,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서광선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65.

[203)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1997), 598.

[20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174-176.

[205)Lucy Rose Fischer and Kay Banister Schaffer, *Old Volunteers : A Guide to Research and Practice* (Newbury Park: Sage Pub,1993), 9-10.

[206)김용복, *교회와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30-31.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5.성서적 영성을 개발하는 역할

1)삼위일체적 영성

신학적인 인간론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본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연적 영성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활동태라기보다는 가능태로 존재할 뿐이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능태적인 영성의 잠재성을 역동성이 있는 현 실태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없다.[207] 여기서 부터 비로소 기독교 영성의 핵심에 이른다. 타락된 본성적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지고 활성화될 때, 인간의 자연적 영성은 활동태로의 변화를 겪으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게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에게 개입하시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적 수행능력을 약화시키거나 인간의 윤리적 결단 능력을 배제하지 않는다.[208]

오히려 성령의 개입으로 인하여 영적인 존재가 된 인간은 보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스스로의 분별력으로 자유롭게 응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요구를 향하여 인간이 지속적으로 반응할 때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육적인 삶'이란 말은 죄악된 속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반면에 죄악된 속성을 지닌 육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죄악된 속성을 극복할 때의 삶의 형태를 '영적'이라 하였다.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체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구체적인 역사 현장 가운데서 구현

---

[207]Arnold B. Come, *인간의 영과 성령* 김성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50.

[208]Ibid., 194-195.

시켜 나간다.[209)]

기독교의 영성이란 본질이 아니라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은 초월의 체험을 가져오며, 새로운 의식, 의식의 확장, 새 삶의 출발 등의 전환을 가져온다. 결국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210)] 기독교의 영성훈련의 기본요소는 삭개오 모델을 통해서서 찾을 수 있다. 즉 준비, 만남, 교제, 변화의 단계를 통해서 삭개오와 같은 전인적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211)] 이러한 의미에서 성서적 영성은 "삼위 일체적 영성"이다. 바울은 살전 5장 23절에서 전인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성과 치유사역이라고 언급했다.

2)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영성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다. 관계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이다. 성경적 영성은 절대적으로 관계 중심이며 가정 중심이다. 예수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자신의 형제나 자매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며, 한 가정의 식구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은 사회적인 실재이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공동체를 기뻐해야 하며, 남자나 여자 각각이 아닌 오직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하다. 따라서 인간의 의무이자 운명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됨을 표현하며 함께 인간이 됨을 기뻐하는 것,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는 사람의 가정과 하나님의 가정의 요구를 하나로 통합한 사람의 완전한 모범이시다. 창세

[209)]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9), 70-71.

[210)]맹용길, *노인복지 목회론*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19.

[211)]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290.

기 25-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가정의 영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부모가 인정, 한계, 소망, 이 세가지를 제공해 주면, 그들은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함을 언급한 것은 시간에 대해서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삶 전체와 관계되는 문제이다. 일상생활의 영성은 '세속적인 동시에 비세속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세속성과 세속적인 거룩함이 동시에 필요하다. 성경은 맨 처음에 사물과 사람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과 피조물이 만든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재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212]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하나님도 인간도 일하는 존재이다. 노동은 창조주와, 창조 활동을 하는 그의 피조물을 연결해 주는 강력한 고리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어떤 일이든 차별이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직업을 묻지 말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만 물어 보면 된다. 활동으로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노동, 가정, 이웃, 정치, 교회 회중과 같은 삶의 모든 차원을 포괄한다.[213] 어떤 직업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노력 없이는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 노동은 신령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것은 직장, 가정, 교회, 이웃, 사회, 등 우리의 모든 생활을 포괄한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노동을 통해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다. 예수는 보잘 것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으며, 나중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일을 하시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의 영성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안식일 체험이다. 안식일은 일을

---

212)요한계시록 21-22장.

213)에베소서 4장 1절.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며,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날이다. 교회는 노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영적인 짐을 덜어주는 알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기 위한 밥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친교 프로그램은 활용하여 인격적으로 노인들을 대우할 때 그 속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도 사라지고 밥상 공동체(Tischgemeischaft)[214]의 경험도 풍부해질 것이다.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전부 살리고 공동체 안에서 인간화를 실천해 나가는 윤리방법론이 될 것이다.[215] 건강한 영성과 성숙한 영성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영성이다.[216]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생의 채험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체험하여 삶의 전 분야에서 중생 문화의 건설이 있어야 한다.[217]

성경에는 이런 신비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 성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새 사람으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비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신비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월적 연합, 곧 사회적 결합을 가리킨다.[218] 결혼생활 그 자체가 바로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다. 우정은 사역의 조건이 아니라 사역 그 자체이다. 중보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사역 가운데서 특히나 뜻깊은 사역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려면 우리는 상호 의존적 삶을 살아야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회적 연합의 삶이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교회는 노인을 소외로부터 해방시키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와 교회에는 노인을 무시하거나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는 고독

---

[214]박익수,“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운동들” 크리스천 아카데미 신학연구회 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색, 1992), 47.

[215]민영진,“하느님의 백성의 인간화”, 크리스챤아카데미 신학연구회 편, *공동체 신학 모색*, 16-40.

[216]김상복,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횃불, 1993), 53.

[217]김남식, *기독교에서 본 문화*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17.

[218]에베소서 3장6절, 2장11-22절, 4장4-6절, 5장32절.

한 노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3) 꿈꾸는 노인

어거스틴(Augustine)은 영성생활이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고 보았다.[219]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개념은 인간의 의식적 영역에서는 경험될 수 있는 실존은 아니다. 혹자는 건강한 삶 즉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게 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라너(Karl Rahner)는 하나님이 자기자신을 내어주시는 세 가지 양식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실존의 완성과정을 말하고 있다. 즉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 또는 로고스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주어진다."[220] 영성이라는 것은 근본에 관한 문제이며, 깊이 뿌리박힌 피상성을 탈피한 삶에 관한 문제이며,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생활의 현장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제를 매일의 삶, 현실의 삶으로 구체화하고 구현하고 엮어 내야 할 것이다.

홀로 있음은 일부러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계획된 시간을 내어 드리려는 것이다. 내적인 진실성을 확보하는 한가지 훈련은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일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이며, 기도를 글로 옮기는 것이며, 자기의 경험 세계보다 크신 그 분 앞에서 자기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엘더 블룸하드(Elder Blumhard)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차례의 회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리스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회심과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는 그 다음 회심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필로에 따르면, 경건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사람

[219]홍성주, *영성과 행복*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74.

[220]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An Introduciton to the Idea of Christianity,* (New York: Crossroad, 1989), 137.

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관한 물음의 답을 줄 수 있는 영성의 발달은 노인이 겪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영성은 노인 우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며 노인의 실존적 안녕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 정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꿈꾸는 노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한다. 꿈은 인간의 영적인 완성을 돕는다. 그리고 인간이 총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자아(ego)를 영적인 구심점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꿈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려주는 것이다.[221] 고독한 한인 노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히 가지며 서로 솔직하고, 수용하며, 각자의 독특성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가족을 포함하여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은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 율법적인 신앙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는 복음적 신앙 훈련이 필요하며, 인본주의적 윤리 규범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개발해야 하며, 개인주의적 구원의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공동체적 구원의 측면을 보완하며 진정으로 통합적이요 전인적 구원의 방향으로 영성훈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6. 은사의 발견과 개발자의 역할

1) 은사의 활용

카리스마(charisma)`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기원후 50~62년부터였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전파를 위해 보냈던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재능` 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후 기도서나 여러 서신에서 유래된 말로 감사자비,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를 뜻한다[222]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사가 있

[221] John A Sanford, *꿈* 정태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87.

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청지기인 신자가 그 몸의 각 지체로서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교회를 갱신한 웨슬레(John Wesley)는 만인사제직이나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예수그리스도의 종이요 사역자라는 사실에 연결된다고 강조 했다.[223]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224] 교회는 세상을 변화 시키는 대행자이다.[225] 공동체란 계속적인 경험, 전통,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간들의 그룹이다. 서로에게 도전하고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다.[226]

은사는 기능적 인 것일 뿐만 아니라 회중적이다.[227] 은사는 세상과 교회 이 두 영역에서 유익하게 쓰이도록 주신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다가가는 하나님의 도구이다.[228] 목회자들의 임무는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이다. 또 다른 임무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229]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모두 우리가 사용해야하는 자원이며,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 때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230] 은사는 노인들에게 인생의 문제에 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영원히 함께살게 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도록 해준다. 은사 중심과 기쁨이 넘치는 삶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될 것이다.

---

[222]Leonardo Boff, *교회의 권력과 은총* 238-249.

[223]Howard A. Snyder,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187.

[224]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4), 32-41.

[225]Matthew Fox, *Original Blessing* (Santa Fe: Bear & Company, Inc,1986), 19

[226]Robert C Linthicum, *Empowering the Poor* (Monrovia California: MARC Press, 1991), 83.

[227]Jack W MacGorman, *The Gifts of the Spirit* (Nashville: Broadman Press, 1974),31.

[229]Paul R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 역, (서울: IVP, 1992), 36-55.

[230]C.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52.

2)다문화주의

세계화로 인하여 현재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직인구가 세계도처에서 거주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직원이 되고, 직원채용기준은 개인의 언어능력, 창의력, 분석력, 자원봉사경력이 된다고 예측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변하고 있다. 다문화 이론가인 라즈(Joseph Raz)는 교육을 통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상호 인정과 관용의 전통을 구축하고 서로 문화집단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공동의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길로 제시한다.[231)]

라즈는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자율성에 대한 믿음과 가치다원주의를 접합시켜 자유주의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제시했다. 라즈에 의하면,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옳고 그름에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개인들이 건전하고 가치 있는 인생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는 타율성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가치관의 확산을 막을 도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관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032년에 인구는 80억 정도가 되며, 수명연장으로 평균수명은 100세가 되고, 저출산은 여성인구 사회진출과, 피임제 사용, 빈곤퇴치운동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절반의 인구는 도시에서 살고, 25%는 경제구역 25%는 문화구역에 산다. 세계

---

231)Joseph Raz, *The Morality of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400-448.

인구가 2050년 90억이 되었을 때 60세 이상 노령 인구 20억 명에 달하며 한국은 2050년이 되면 55세 이상인구와 55세 이하 인구가 같아진다. 출산율 감소는 노령인구증가, 노동력감소로 선진국의 은퇴정년이 75세까지 높아지고 65세에도 왕성한 노동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영위하며 이웃에게 혜택을 주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 컴퓨터는 장애인들에게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23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233] 지난 날 노인들에게 있어 컴퓨터는 배우기 힘든 문명의 이기였으나 최근 컴퓨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제 2의 인생을 열어주는 보물 1호가 되고 있다.[234] 노인 여가시설로서 노인 여가에 대한 전문적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7년에 다가오는 지구촌 인구 90%의 인터넷사용으로 지구촌 200여개 국가는 하나의 문화로 통일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대에 도덕적 윤리적 개념을 재정리하고, 현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신세대의 감각에 맞으며 그들의 다양한 관심도와 사고의 공통 분모를 공동 관심사로 만들고, 각각 조그마한 자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컴퓨터와 통신기기와 친숙한 세대들을 국가를 위한 공동체 일원으로, 또는 긍정적 건설적인 사회봉사와 사회헌신의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커뮤니티 정신은 식품과 에너지 자급자족과 지역 환경에 대한 자부심으로 협동과 자원봉사를 이끌어 낸다.

4)자원봉사의 활성화

교회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사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

---

[232]홍일권 편저, *세계 기독교 정보* (서울: 나단, 1994), 59-60.

[233]코리안 데일리뉴스 2010. 12. 30(목) A13.

[234]Sunday Journal 2006. 12. 22

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평신도 신학 훈련이다. 이러한 훈련이 없을 때 사회 참여나 봉사나 증거가 있을 수 없고 다만 타협이 아니면 동화만 있을 수 밖에 없다.[235] 자원봉사는 공동체 감정이다.[236] 자원봉사는 21세기 인류의 삶을 한 차원 고양시키는 주제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창의성과 자율성에 입각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민주성과 연대성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기도 하다.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기량과 지혜를 발휘한다. 고독을 떨쳐버리고 주류사회에 곧 바로 편입한다.[237]

미국에는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RSVP)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노인 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238] 우리나라는 본래 자원봉사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계나 향약, 두레 같은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산업화로 인한 물질만능의 시대에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사라지다시피 했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사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며 개인에게는 올바른 여가 선용을 통한 에너지 창출과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사회통합이 지름길이다.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복지사업, 자원봉사사업이 있다. 사회교육사업으로는 장수교육, 특별행사(가정의 달 기념은빛 체육축제, 노인의 달 기념 은빛 문화축제, 작품전시회), 자치활동(동아리 활동), 간담회 (강사, 교육원생, 동아리간담회), 정보화교육(현대 정보화 사회의 적응능력향상을 통한 자신감 배양), 공개강좌(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

[235]이장식, *현대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413.

[236]한국노인복지회 편, *재가 노인 복지사업* (서울: 홍익제, 1997), 244.

[237]김동배,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13.

[238]한국노인복지회 편, *재가 노인 복지사업* 124-125.

및 지역 어르신들 대상), 장수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능회복사업으로는 수지침, 건강검진,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사업으로 실버텃밭,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바둑실, 탁구실, 당구실, 영화상영, 정보방, 매점, 도서실, 이·미용실, 무료급식, 경로당이 있다. 지역복지사업으로 실버 건강 체조, 탁구교실이 있고 자원봉사사업으로 일반자원봉사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이 있다. 특별기획 사업으로는 지역 어르신 건강증진사업과 케어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지역밀착형 수발 프로그램, 관절염 예방사업, “아름다운 동행 행복지기”가 있다.

노인들은 나름대로 전문인이다. 일반적인 가정사의 상담자로서 뿐 아니라 전통문화 상담자이기도 하다. 뿐 만아니라 평생의 직장생활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전문직종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교육가로서, 사업가로서 법조계와 의료인으로서의 일들을 의미있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년의 생을 맞이한 이들에게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이들에게 모두 가치 있는 모습이다.

Ⅴ. 본 논문의 프로젝트 과제 평가

1. 변화 전환을 위한 계획

1)교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계획

이민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교인 구성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문제이다. 노인문제는 노인 자신의 수동적인 심리상태, 교인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교회와 사회의 왜곡된 구조에서 기인한다.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은 노인에게 자신의 비독립적 상황과 그 상황을 타개할 여지가 현실적으로 희박한 데에 따른 여러 딜레마를 겪게 한다. 교회는 노인의 3고(苦)인 가난 질병 외로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노인들을 무시하고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노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편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하여 그릇된 근거를 가지고 그 본질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해리슨(D. K. Harrison)과 코울(W. E. Cole)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 왜곡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239)]

(1) 모든 노인들은 다 비슷하다.

(2)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급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3) 많은 노인들은 건강이 나빠서 많은 날을 병상에서 지낸다.

(4) 노인들은 학습 능력이 없다.

(5)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6) 나이가 많으면 노망이 들게 마련이다.

---

239)이석철, “목회상담학에서 본 노인이해와 삶의 관리”,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54.

(7)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들의 자녀와 같이 살기를 더 좋아한다.

(8)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점점 더 종교적이 된다.

(9)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덜 생산적이다.

(10)연령이 많아지면 뚜렷한 지능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은 노인이나 노화 과정과 관련하여 매우 많이 퍼져 있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노인 이해가 필요하다.

성서는 노년시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하나님은 노인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백발은 하나님의 복으로 지혜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은총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다. 노인들은 비록 육신은 약하나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과 영성은 위대하다. 교회에서 노인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노인목회에 대한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위에서나 교회 교인들이 노인목회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노인목회를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노인목회를 할 경우 목회자 의지가 중요하지만 교인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교인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노인목회 현장을 탐방하고, 전문가의 교육을 통하여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노인목회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노인이해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2011년 6월 6일부터 20일까지 필라지역 교회와 노인대학을 선정하여 노인문제와 노인이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2.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제직회

2011년 6월 30일까지 설문 내용을 분석하여 교회가 노인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제직회를 통하여 유도한다. 교회 구성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으로 전환시키는 의식개혁운동을 교역자와 당회가 주도한다.

3.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제시

2011년 7월 3일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전교인이 노인목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필라 노인회와 공동으로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노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각하도록 독려한다. 이 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노인들을 파악한다.

4. 노인문제 중심의 주일설교

2001년 7월 10일부터 까지 노인과 노인문제를 주제로 일정기간 주일설교를 실시한다.

5. 노인문제 세미나

전 교우들에게 노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노인을 이해하며 노인을 도와주고 경외하도록 한다. 노인교육의 날을 정하고 노인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이해를 위해 전교인 대상으로 2회의 노인문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화와 노인, 노화에 대처하기, 노인의 복지제도, 성서에 나타난 노인이해, 창조와 생명의 가치, 교회와 공동체의 의미, 인간의 본질과 노인, 노인의 치유회복 사역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준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이다. 형제 자매를 섬기는 훈련을 한다.

6. 노인 은사개발 설문지 조사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인들의 잠재력, 구매력, 정치적 파워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노인이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하며 봉사자

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는 노인이 상실한 건강과 역할을 회복시키고, 노인을 문화충격과 사회적 고립에서 해방시키며, 죽음에 대한 불안을 확실한 소망으로 전환시켜서 피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온 가족예배(Family Service)를 실시

2011년 8월 5일 전교인이 참석하는 Family Service를 실시하며, 예배순서의 일부를 노인들이 진행하도록 한다.

8. 온 가족 치료

매월 Family, Psycho-Therapy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무료진료와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의사협회와 협조한다. 그리고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죽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제도를 목회 현장에 도입한다.

9.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

한국학교, 중고등부 집회, 청년회 집회, 정기적인 젊은이들 모임에 예절교육, 한국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노인 강사팀을 운영한다.

10. 예비노인 교육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는 첫 세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의식조사를 한 결과 93%가 자식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14.6%(712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늙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노인 단독가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예비노인들의 의식 변화를 교육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를 진단하고, 교인들이 노인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맞추어 스스로 근로생애를 재설계하는 일도 필요하다. 교회와 노인은 노인들이 주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교회교육의 차원에서 전교인이 노인과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인문제 해결의 참여자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노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계획

노인들에게는 노인준비기(50대), 은퇴 노인기, 병약기, 노인후기의 단계가 있다. 노인들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나 장애자와 같다. 교회는 상처받고 소외된 모든 노인들에게 노인 치유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인과 교회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노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들의 영육을 치유하고,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들은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이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 발달 단계의 과정이며, 질병 혹은 이상 현상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게 마련이며 노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인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이유로 가족과 사회에서 의존성이 높아지지만 노인들에게 교육함으로,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생산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역할 상실과 퇴화의 속도를 줄이며,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 의미있는 존재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급속도로 변천하는 사회를 이해하며, 세대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를 극복하여 사회의 능동적인 일원으로 참여함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회는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를 해소시켜주고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노년기에 삶의 소망의 기대감이 낮아지고 우울이 증가하는 시기에 신앙을 통해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교회의

풍부한 인적자원들을 노인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노인의식화를 위한 노인성서연구반

2011년 9월 1일부터 노인의식화를 위한 노인성서연구반을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실시한다. 성서에 나타난 노인상 교육을 실시하여 노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노인 성경공부 교재를 연구 개발한다. 성서 연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한다. 노인 신앙 강좌를 시행한다. 교인들의 교회관, 목회, 공동체의식, 경제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2011년 10월 1일부터 노인의 사회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축되고 소심해진 노인들을 재사회화시키는 교육을 실시 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의식 개발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노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노년의 성공적인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적용한다. '꿈꾸는 노년(장로교 출판사)'을 공부하고 토론한다. 노인의 희망적인 죽음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유언장 쓰기 운동을 장려한다. 유언장의 내용에 본인은 나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년 월 일, 싸인, 주소, 유언집행자(변호사, 지정인)가 기록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도덕 재건운동을 실시 한다. 대인관계훈련, 노인 취미 오락, 운동, 여행, 신문 읽는 것, 춤추기 등의 교육을 실시 한다.

3. 노인의 영성 교육

노인이 진행하는 특별기도 주간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전반을 교회에서 주관한다. 노인에게 세례와 성찬은 거룩성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노인 부흥회를 실시한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신앙공동체와 자기의 정체성과 은사를 발견하게 한다.
노인 수련회를 갖는다. 매년 전교인 수련회를 가족단위 수련회로 개최하되 신앙 간

증, 은사 활용, 영성 훈련, 헌신하는 결단, 기도회, 찬양의 시간을 가진다. 노인 영성원 (침묵의 집/대화의 집/나눔의 집/섬김의 집)을 활용한다

4. 자선 봉사 활동

노인의 사명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건강에 맞는 사역을 배정하고 격려하여 사역을 감당하도록 지도한다. 팀웍 훈련을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은 공동체 생활의 중요 요소이다. 노인 성가대를 조직한다. 장로 부부성가대는 연령적, 신앙적, 사회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모임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 끼니 거르는 노인들 식사 대접하기 등의 자선활동을 한다. 노인 건강을 위한 종합 휴양센터의 건립과 노인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의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작년 12만 가구였던 홀몸노인은 2020년엔 151만 가구, 2030년엔 234만 가구로 늘어난다. 처음엔 노부부가 함께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뒤 홀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1인 가구가 보편화해 사회의 부양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산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노인집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모습과 사회의 활력이 크게 달라질 것이 노인도 목회와 지역사회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인들은 자식의 집도, 양로원도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어한다. 노인 방문 요양 서비스가 늘어나고, 노인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과 노인에게 맞춰 기능을 단순화한 가전제품도 대세를 이룰 것이다. 노인들이 교인들과 지역 사회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관심(돌봄)은 목회의 일차적인 표현이다. 교회 및 지역사회의 환자, 유가족, 소외된 자, 고독한 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돌보아야한다. 심방, 편지와 카드 쓰기, 기도하기, 전화하기로 노인상담 및 위탁하는 일을 하게 한다. 직업을 지도하는 일, 장애노인 및 보호자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들을 위로하기위해 전문성을 가진이 들 즉 음악인들의 합창단 조직, 섹소폰 동우회 등의 그룹 활동을 시작한다. 노인들의 자연사랑, 환경운동으로 꽃가꾸기, 쓰레기 분

리수거, 청소하는 일을 실시 한다.

2. 노인의 고독 해방을 위한 실천 계획

1. Silver Happy Class(노인행복교실)를 통한 노인 회복

행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오히려 불행한 가정이 많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주셨는데 인간이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이다. 많은 노인들에게 행복교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노인을 위한 제 1기 행복교실을 2011년도부터 9월부터 시작한다.

다음과 같이 Silver Happy Class를 조직한다

Silver Happy Class 조직

원장: 이대우 목사

부원장: 이경림 권사

행정: 오창훈 집사

강사: 이대우 목사(예배인도, 노인교육)

상담: 이경림 권사

의료: 이지현 의사

컴퓨터지도: 이승학 집사

음악지도: 이민성 선생(피아노, 노래)

미술지도:

무용지도:

여행안내: 김희영집사

게임인도:

급식: 임영화 집사

차운행:

수요학교는 다음 시간표대로 진행한다.

Silver Happy Class 진행

1교시: 성경공부(오전 10:00-10:30)

2교시: 중보기도(오전 10:30-11:00)

3교시: 노인 교육(오전 11:00-12:00)

4교시: 점심 식사(오후 12:00- 1:00)

5교시: 특별순서(오후 1:00-3:00)

모임 참가자들: 본교회, 필라노인회, 각 교회 노인대학등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행복교실에서 다루는 내용

1. 한인 노인의 정체성

1) 사라져 가는 사람들 2) 관계의 단절 3) 생명 공동체

2. 한인 노인의 전인적 성숙

1) 현대 사회의 특징 2) 노인들의 의식 3) 자아통합

3. 한인 노인의 영성

1) 성례전적 우주 2) 인간소외 3) 창조 공동체

3. 한인 노인의 은사 개발

1) 급변하는 후기 산업사회 2) 사회의 위기 3) 책임사회

행복을 준비하는 성서적 원리와 노인들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Vision과 Mission 을 나누면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자신의 적용하여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강사: 이대우 목사외 전문가

행복교실이 주는 유익들

(1) 노인 서로 간에 형제의식이 생기고 격려하게 된다.

(2) 노인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3)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4) 고독한 노인이 행복 교실을 찾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된다.

(5) 행복 교실에서 배운 은사개발을 통해 서로 위로와 사랑으로 따뜻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게 된다.

행복교실의 특별 순서들

(1)달란트 축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부 공동행사로 달란트 축제를 분기마다 실시한다.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년부에서 행사장을 설치하고, 행사물품을 지원받고, 차량을 운영한다.

(2)노인 모시기

교인들의 각 가정에서 노인들을 2박3일로 모시기 사역을 전개한다. 전교인이 노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임을 깨닫도록 한다.

(3)양로원 방문

청년부로 구성된 양로원 위문 팀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 노인과 젊은이의 결연을 통하여 편지쓰기, 전화하기, 생일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유아부에는 위문공연을 실시한다.

(4)전교인 병원 심방

병원에 장기 입원한 노인들의 심방을 위해 심방편성표를 만든다. 병원심방 사역 팀을

조직하고 전교인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병상의 노인들을 위로하며 말벗과 놀이의 상대가 되어준다.

(5)호스피스제도

노인의 병간호가 필요한 가정을 위하여 호스피스 팀을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호스피스학교 교육을 전문 기관에서 받는다. 인간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소망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시킨다.

(6)효도관광

노인들은 2세들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한다. 효에 대한 동서양 가치관의 차이로 가정과 교회에서 젊은이와 노인들의 미묘한 갈등이 일어난다. 노인들이 서구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효를 교육하는 것도 시급하다.

(7)효도학교

노인들로 구성된 효도학교 강사진을 편성하였다. 한국학교에 한국예절, 의상, 음식, 전통, 한국사 과목의 특강을 개설하여 교사로 활용한다. 한국학교 발표회 시간에 예절프로그램을 편성한다.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학교를 효도학교로 개명한다. 노인 교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경로사상과 예절과 전통교육, 서당교육을 실시한다. 회갑, 진갑 잔치는 합동으로 교회에서 주관하여 축하한다. 이러한 전통 풍속과 상례를 연구하여 아시아 문화재로 육성한다.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와 장한 어버이, 모범 가정, 노인복지 기여자등을 매년 5월 어버이 날을 기념하여 발굴 포상한다. 경로효친과 관련된 교육 또는 계몽 활동을 강화시킨다. 경로효친을 위한 강연회와 경로잔치를 베풀고,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효도관광을 시켜드리고, 언론기관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한다. 효도관광: 노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고 동포들의 효의 정신이 2세, 3세들에게도 이어지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8)노인봉사대

은퇴전 전문직에 종사하였던 노인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대 구성한다. 봉사팀은 매

주 목요일에 활동한다. 노인학교 커리큘럼에 봉사학습과목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직간접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재가 노인 봉사사업: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단독세대 노인들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시킨다. 무숙자들을 섬긴다. 노인 봉사회 운영: 노인이나 젊은 교인들로 하여금 자원 봉사 형태로 운영한다. 노인들의 취업을 알선해준다.-빈집 봐주기, 아기 돌보기, 화초관리, 잔디 깎기, 경로병원과 결연 관계, 효도미팅, 노인연금실시(건강보험, 생활보험, 장례보험), Day Care Center운영, 두레농장, 무의탁노인을 위한 노인 아파트 주선, 노인 상담소 운영, 노인은행, 노인 부모 모시기(영친 운동) 장수자 표창, 노인 한국 방문단, 노인 선교 팀의 선교사역을 실시한다. 지역봉사 지도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지역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 충효 사상 및 전통 문화 전수 교육 등을 지도하게 한다.

(9)노인들의 건강교실

노화방지를 위한 신체놀이,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두뇌반복활용놀이, 생태계의 건강유지를 위한 환경참여놀이를 실시한다. 특히 치매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무료건강진료의 날을 분기별로 정하고 진료와 치료를 병행한다. 노인환자는 심신성 질환으로 물리적 치료와 정신적 치료가 장기간 병행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집단의 료진, 치료적 환경의 요소가 장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노인 걷기 대회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노인은 활동적인 은퇴 초기, 홀아비나 과부시기, 죽음에 가까운 병상시기를 거친다. 노년기의 중심과제는 자아통합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며, 좌절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지금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 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제는 보호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며 노인들이 여생을 풍요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10)평생교육 대학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 할 수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양교육, 취미 오락, 신앙교육, 봉사활동 등을 배운다. 노인들을 위한 도서관을 개설하여 이용하게 한다.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009년 말 현재 1,280개소의 노인교실이 있으며, 노인교실의 운영형태는 대부분 개별 교육프로그램 위주이며 종교단체(교회, 성당 등)가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시조창 교실, 서양화, 노인교실, 풍수지리, 마술교실, 한자급수반, 바둑교실 등 초등학생~노인층을 대상으로 서대문구 거주 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창작 난타교실도 있다. 노인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11)노인 공동 작업장 운영:

사업장 설치가 가능한 노인회관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선정하여 노인들이 직접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립화를 유도한다.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경로당이라고 한다.

(12)가정봉사원(노인도우미) 파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13)노인들의 컴퓨터교육

노인의 삶은 소외와 고독으로 이행된다. 대화상대가 없거나 소외되고 있는 노인이라면 인터넷은 매우 적절한 해결책 일 수 있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은 노인복지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컴퓨터가 노인문제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배워 노년을 즐겁게 살자.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의 컴퓨터 이용률은 14%다. 그

러나 그 성장속도는 어느 연령층보다도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 컴퓨터를 배우려는 노인들의 열기는 해를 더할수록 가열되어가고 있다. 세대 간에 격차를 줄이고 손자들과의 이메일이라도 주고받으려는 마음이, 배우기는 힘들지만 컴퓨터를 배우려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이제는 그 노인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다. 전문적인 수준으로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은 물론이고 스위시등 고급기술에까지 이르고 있다.

2. 건강한 노인을 위한 성서교육

제1과 : 성서적 인간관

성경본문: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찬송가 27장, 기쁨의 찬양 20)

학습목표:

1. 모든 인간의 평등하게 살 권리

2.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학습진행

1. 인간의 절대 가치에 대한 설교

2. 행복한 가정 녹화 테이프 상영

3. 재창조된 피조물의 역할

참고자료

꿈꾸는 노년 I [2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꿈꾸는 노년 II [5과: 하나님을 닮은 자]

인간 [3장 VI: ‘신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제2과 : 성서적 노인관

성경본문(시편 92편 14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시편 71편 9절)“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찬송가 463장, 기쁨의 찬양 68)

학습목표

1. 노인의 실상 이해
2. 노인은 여전히 가능성의 존재임을 인식시킴

학습진행

1. 노인 개인의 평가 a. 최대 관심사 b. 행동 계획
2. 개인 평가의 나눔
3. 건강한 노인들의 삶 다큐멘터리 상영

참고자료

꿈꾸는 노년 I [20과: 축복하는 삶으로서의 노인]

꿈꾸는 노년 II [42과: 노년의 지혜로]

노년학을 배웁시다 [노인은 누구인가]

제3과 : 성서적 창조관

성경본문 (창세기 1장 1-31절)“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로마서 8장 22-23절)“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찬송가 217장, 기쁨의 찬양 174)

학습목표

1.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기한다.

2. 인간 죄악과 자연계 오염의 상관관계를 공부한다.

학습진행

1. 환경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환경 전문가의 강연

2. 보존된 자연계와 오염된 생태계를 비교한 슬라이드 상영

3.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보존을 연구하고 토의

참고자료

꿈꾸는 노년 I [32과: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보존]

기독교 생태윤리 [4장: 신학의 견고한 기반]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4장: 창조신앙의 세계관]

제4과 : 성서적 교회관

성경본문(에베소서 4장 11-12절)"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찬송가 245장, 기쁨의 찬양 148)

학습목표

1. 각자가 부여받은 은사를 발견하는 공동체

2. 그리스도 공동체는 서로 의존하는 지체

학습진행

1. 자기를 특징있게 표현한 이름표 만들기

2. 개인의 은사개발 점검 확인

3. 교회 봉사실에 부착한 '내가 할 일'란에 자기가 할 일 기록

참고자료

꿈꾸는 노년 I [25과: 성도의 사귐]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만들기 [9장: 봉사의 일]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IV: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3. 노인 교육 세미나

제1단원(1주) : 충동적 행동의 인식

학습목표: 역기능 가정에서의 성장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충동적으로 방해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함

성장목표: 충동적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

성경본문 로마서 8:5-15

학습내용

1일:강박적 사고의 부정적인 모습

목표:충동적 행동의 일곱 가지 특징을 습득

2일:통제에 대한 강박 충동

목표:역기능 가정에서의 성장이 일, 상황, 사람에게 어떻게 충동적인 통제를 유발하는지를 자각

3일:두 종류의 사고

목표: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의 세 특성과 안에서 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을 습득

4일:불순종의 고통

목표: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개인의 정서적 고통과의 관계를 이해

5일:충동적 행동으로부터의 자유

목표: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자유를 습득하기 위한 매일의 과정을 발견

암송구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7)

제2단원(2주) : 수치심으로부터의 해방

학습목표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어떻게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는지를 자각하도록 함

성장목표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의 탈출

성경본문 로마서 8:33-34

학습내용

1일: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가정적인 요인

목표:역기능 가정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심어주는지를 자각

2일: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감 형성

목표:수치심에 기반을 둔 자아 정체감이라는 의미를 이해

3일:수치심에 기반을 둔 삶

목표:수치심에 기반을 둔 자아 정체감이 생각과 행동에 어떻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

4일:수치심으로부터의 도망

목표:사람들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을 연구

5일:수치심의 극복

목표:수치심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

암송구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사 54:4)

금주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제3단원(3주) : 즐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극복

학습목표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왜 즐기는 것이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지를 이해

성장목표 즐기는 것과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 죄책감으로부터의 탈출

성경본문 로마서 8:15

학습내용

1일:즐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이해 I

목표: 역기능 가정이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세가지를 학습하고 각 개인에게 적용

2일:즐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이해 II

목표:역기능 가정이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학습하고 각 가정에 적용

3일:즐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

목표:즐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

4일:자신의 성공을 방해함

목표: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를 반복하는지를 연구

5일:즐김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목표:기쁨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암송구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

금주확신: 나는 예수님께 나의 두려움을 맡겼다.

제4단원(4주) : 고통스러운 기억의 치유

학습목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어떻게 현재의 정서적, 영적 건강을 해치는지를 이해

성장목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 직면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전받음

성경본문: 로마서 8:26-27

학습내용

1일:고통스러운 기억이 현재에 영향을 미침

목표: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당신의 영적,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과정을 이해

2일:“기억나지 않는 기억”의 징후”

목표:들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숨겨진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3일:“기억나지 않는 기억”의 회복

목표:고통스러운 기억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의 터득

4일:고통스러운 기억의 치유

목표: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터득

5일: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영적인 힘

목표:고통스러운 기억을 직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

암송구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3-14)

금주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제5단원(5주) :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

학습목표: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자각하고 용서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함

성장목표: 진정한 용서를 향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도록 용기를 얻기 위함

성경본문: 누가복음 23:34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학습내용

1일:용서의 필요성을 부인함

목표: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네가지 요소를 인지

2일: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

목표:용서에 대한 잘못된 네가지 개념을 이해

3일: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해

목표: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함

4일: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목표:용서에 대하여 도전을 주는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고, 용서의 필요성을 인하여 기도하도록 함

5일:용서하기로 결심함

목표:쓰라린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그 당시를 조명해 보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도록 도전받음

암송구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금주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4. 노인을 위한 설교

제1회 :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설교본문: 창세기 1장 27-31절 (찬송가 78장)

설교목표: 하나님의 자연창조의 의지를 일깨우는 작업

참고자료

1. 생태계 보존과 기독교의 책임

2. 피조물에게 해방을, 사람에게 정의를, 민족들에게 평화를

제2회 : 고향의 상실

설교본문: 창세기 3장 17-21절 (찬송가 79장)

설교목표: 창조질서의 회복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 필요함을 강조

참고자료

1. 구약신학의 주제

2. 보시니 참 좋았다: 성서가족을 위한 창세기 해설서

제3회 : 행동하는 신앙

설교본문 : 야고보서 1장 26-27절 (찬송가 379장)

설교목표: 봉사하는 삶, 참여하는 삶

참고자료

1. Empowering the Poor

2. 목회와 지역사회

제4회 : 사랑받는 청지기 노인

설교본문: 고린도전서 9장 6-15절 (찬송가 376장)

설교목표: 사역의 다양성과 노인의 역할 강조

참고자료

1. Effective Church Leadership

2. 노인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제5회 : 더불어 사는 삶

설교본문: 베드로전서 3장 8-9절 (찬송가 523장)

설교목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성숙해지는 삶

참고자료

1. 그리스도교 사회론

2.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6회 : 노인의 명예로운 삶

설교본문: 신명기 32장 1-7절 (찬송가 304장)

설교목표: 노인의 당당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환원

참고자료

1. From Age-ing to Sage-ing

2.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제7회 : 함께 옮기는 울타리

설교본문 (사도행전 11장 1-17절) (찬송가 514장)

설교목표 교회안에 제한된 교회 사역의 범주를 교회밖으로 넓히는 작업

참고자료

1. Compassionate Ministry

2.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3. 구조변화를 위한 계획

1) 교회구조 변화

과거의 노인에 비해 오늘의 노인은 건강하고 내일의 노인은 수명이 더 길어진다. 육체적으로 왕성하며,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 노인목회는 장례목회가 아

닌 노인의 진정한 필요와 관심을 반영하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간, 지역사회, 자연에 대한 이해 없이 교리와 의식에 길들여진 교회생활과 반고립화된 가정생활, 신체쇠약에 따른 경제력 상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노인들이 전인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구조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회는 노인들의 전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에 대한 사역을 재고하여야만 한다. 노년층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평신도 사역 단체로 보아야 한다.

1.노년부 편성

교회학교 부서로 노년부를 편성한다. 노인준비기(50대), 은퇴 노인기, 병약기, 노인후기. '노인관리위원회 설치' : 노인문제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교회를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개방하고 노인들의 전인치유의 장으로 활용한다. 노약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한다.

2.노인 전담 교역자 청빙

노인 전담 사역자를 통하여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한다. 노인들의 참여의식 고취와 실제 방법론을 도와줄 노인 전문 사역자를 배치한다. 전문 지식을 가진 자가 지도자를 훈련하고 노인 복지와 연계하여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회에 노인 전담 사역자를 두고 노인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교회 건물이 노인문제의 극복을 위한 장소가 되도록 사용한다. 교회는 한인 노인의 소망이 내세에 완성되는 것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노인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무료급식소 운영과 정기적인 무료진료와 치료를 실시하여 노인을 돌본다. 급식프로그램과 병원의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실시한다. '노인상담소' : 노인들이 직

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교회의 협조를 요청한다. 노인상담 전화를 설치한다. 교회에 노약자 공간을 설치하여 노인환자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4.노인 문화 센터

교회의 시설과 공간을 평일, 주야간에 Community Center로 활용한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노인들의 문화적응을 위한 노인 놀이방을 개설한다. 농악반, 노래반, 그리기반, 수예반, 영화반, 컴퓨터반 등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인문화학교 설치' : 이중문화를 극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종 여행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영상을 통하여 문화를 비교하며 학습한다.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한다. 창작활동 반을 운영한다.

5.노인 영성훈련 프로그램

노년부 회원을 각위원회의 자문위원, 중보기도자로 위촉한다.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고 노인의 기도를 지원 받는다. 노년부와 유초등부가 연합하는 정기모임을 실시한다. 달란트축제를 어린이 교회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동심을 발견하도록 한다. 섬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군'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 떡과 복음'을 동시에 나누도록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

6.사회봉사자 학교

교육 대상, 시간 및 장소

교육 일정 및 강사

교육 참여자

오병이어 사랑나눔

프로그램 시행의 배경

회원 및 기금현황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볍

지원대상자를 위한 특별활동

독거노인 나들이 : 「아름다운 동행」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실천한 프로그램

7.경로대학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천한 프로그램

주요 조직, 학사일정 및 시간구성, 예산

특강 : 교양강좌

컴퓨터 교실

수학여행

주민초청 경로잔치

프로그램 시행준비 : 대상자 파악

행사를 위한 봉사자 동원과 배치

경로잔치 순서 및 예산

2) 가정구조 변화

한인 노인문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사회보장 체계는 매우 열악하고 전통적인 효친과 경노사상은 점점 약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복지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현상으로 급격하게 변화 되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화되면서 부양의식과 효사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교회 목회자들이 노인문제에 바로 인식하고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빛과 소금의 역활을 담당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룬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격차이와 남녀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건강한 가정생활 이해하기','자라난 가정 이해하기와 건강한 자아상 세우기', '가족대화법과 세대간의 갈등 처리', '부부 성 생활'등을 교육함으로서 건강한 가정이되도록 해야 한다.

행복교실은 노후생활과 관련된 강의와 나눔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성경적인 행복과 가족 치료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배우고, 대화법등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사역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 핵가족 제도를 지양하고 부모와 자녀와 후손들이 함께하는 효도공동체를 권장해야 한다.

3) 노인들의 생활 변화

노년기에 이를수록 이 자아 에너지의 투입이 소극적이고 그 강도가 점점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과 주관적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일에 지구력과 적극성이 약해진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주저한다. 따라서 사물의 판단과 활동방향을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돌리는 내향적 행동양식이 많이 나타난다. 소극적 성향의 증가는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과거 지향적인 성격으로 굳어진다. 노인의 소외는 대부분 타자에 의해 일어난다. 노년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상실한다.

노인의 건강과 신체적인 기능의 상실, 가정과 직장에서 지위와 역할의 상실,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 상실은 자신감과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노인이 소

유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인은 자신이 조직의 일원으로 계속 존재하기를 희망한다. 노인의 참여, 피동적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에로 전환, 하나님의 선교는 참여, 나눔의 요소에 의해 완성된다. 따라서 교회는 노인의 심신질병이 치유 회복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노인이 방관자, 은퇴자가 아닌 참여자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지혜와 영감을 개발하여 교회와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한다. 노년부에 의한 봉사센터를 운영한다. 노화과정은 외부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아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타자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노년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의 시기이다. 무능력한 존재로 피해의식, 죽음, 내세만 생각하던 노인들이 남은 생애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교리와 의식에 집착하던 풍토에서 지역사회, 자연생태계, 이웃의 실질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로 바뀌고 있다. 매월 1회씩 화단가꾸기, 마을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노년부 중심으로 사물에 대한 애착을 단절하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하늘에 보물쌓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유서 잘쓰기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지역사회 의사협회와 협력하여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실시한다. 홈리스와 양로원 방문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노년부 주간으로 실시하고, 양로원을 방문한다.

노인예절학교를 운영하여 피교육자와 교육자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교육을 위하여 노인들을 한국학교 예절교사로 위촉한다. 체험신앙을 교육하도록 교회학교 일일 신앙 강사로 임명한다. 각 기관의 행사에 노인들을 활용하는 일이 증가하였다. 한국역사, 예절교육, 전통놀이, 음식잔치에 노인들이 강사로 초빙되고 있다. 노인의 날을 정하여 분야에 따른 시상을 한다. 노년부와 교육부 주관으

로 효도관광, 경로잔치와는 달리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 봉사한 노인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전교인이 참석하는 가족예배 시간 중에 행사를 진행한다. 노년부에 의해 진행되는 노인 발표회를 마련한다. 은퇴자와 방관자인 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마련한다. 노인에 의해 연출되고 노인들이 참여하는 종합발표회를 실시한다. 노인들은 공연 준비과정에서 소외감정을 해소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다.

1.5, 2세들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풍토가 조성한다.
노인들에게 인사 잘하기 운동과 불편한 노인들 찾아가 빨래해주기 프로그램이 진행한다.

노인 전담사역자를 통하여 신앙상담, 교육,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지역사회의 소외당한 노인들에게도 동일한 도움을 준다. 예배 프로그램의 부분을 노인이 담당하도록 한다. 노인이 주체가 되는 실험예배를 구성하고, 년 중 예배순서에 노인의 역할을 일정하게 배분한다. 노인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영어, 컴퓨터,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이민법 상담을 실시한다. 노인을 위한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 영어권 청년부가 운영하는 상황설정 영어 회화 교실을 개설한다.

4) 주변 사회적 조건의 변화

교회와 지역사회의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 은사를 가진 노인들과 자매결연 행사를 갖고 종합적으로 돕는다.

한인 사회의 노인들의 도덕 재건운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인 시민단체들과 연합하고 시민윤리 강령을 선포한다.

노인들의 자연사랑: 환경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환경의 날로 설정하고 꽃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 주변 청소 등을 본 교회와 한인 단체들을 통하여 실시한다.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사랑과 평화스런 분위기가 될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깨끗한 도시가 된다.

음악 봉사 단체를 만들어 사랑을 노래와 함께라는 행사로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아파트를 찾아 연주로 위로하고 한다

필라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봄(어버이날)과 가을(추수감사절)에 한인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베푼다. 경로사상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이다 노인들과 연계한 행사는 양자 모두가 보람있는 일이다.

필라 충효본부 행사를 지원한다.

노인 도우미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노인들과 젊은이들로 구성된 자원 봉사 단체로서 상담, 노인은행, 노인부모 모시기, 노인선교사역, 무의탁 노인을 위한 노인 아파트 주선, 노인연금, 자매결연 행사를 실시한다.

밀알사역 봉사
필라밀알 장애인 단체 봉사를 통해 노인장애자 및 모든 장애인들을 섬기게 한다.

구세군 자선 냄비 봉사: 예수님의 오심을 온 세상과 함께 라는 주제로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나눔 행사에 참가하여 평일과 토요일에 한인 마켓 앞에서 참가한다.

귀니드 양로원: 필라 지역 한인이 많은 양로원(50명)으로 인근교회를 연결하여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필라 교회 협의회와 필라목사회를 통해 특별예배(부활절,어버이날, 추수감사절,성탄절)와 성찬식과 선물(내의 화장품세트,생필품)을 전달한다.

필라 기독상조회를 통하여 노인 배우자의 이별을 위로하고 함께 장례를 돕는다.

교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명예, 원로제도를 없애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교단총회에 상정하고 전교회가 이를 강력히 시행하도록 촉구한다.

평생교육 노인학교를 범 교회적으로 설립하여 한인회와 노인회와 연계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며 다방면의 전문 교수와 재정 후원자들을 확보한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 보장, 기타 일상 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게 한다.

현재 한인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교를 효도학교로 개명하고 노인 교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예절과 전통, 서당 교육 등 뿌리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한다.

노인 봉사회를 설립한다.

미국교회 교인 섬기기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본 교회내의 자원 봉사자를 선발 하여 동시 통역기를 통한 미국 노인들 위한 예배 동시 통역, 점심식사하기,성경공부하기, 건강 체크 하기, 상담하기 편지,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한다.

4. 노인 고독 해방을 위한 시행에 대한 평가(예상하는 기대 사항)

임상 목회의 목적은 노인을 포함한 전교인이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들의 고독을 치유하여, 노인들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은퇴한 무능한 인간으로 취급받고, 자신을 비교할 준거집단에서 탈퇴로 자신의 역할을 상실하였던 노인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 기능, 동기, 열정을 회복하게 된다. 노인 회복이란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되고, 왜곡된 사고와 구조로부터 해방되어 궁극적으로는 해방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구조 변화를 통하여 노인에게 접근하는 유동성을 보여준다. 전담교역자를 두어 노인목회를 전문화한다. 교육, 오락, 심방,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년 중 1회 효도관광, 주중 1회 무료급식, 년 중 2회 무료진료 및 치료를 실시한다.

노인들의 전인 회복을 위해 문화생활의 폭을 넓혀주고, 노인의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심신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교회의 몫으로 수용하기에 어렵다. 그러나 노년부 회원을 주축으로 시작된 노인에 대한 의식개혁의 결과로 노인문제는 교회 목회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교회학교에 노인들이 지도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과 한국예절을 비교하여 교육한다. 노년부에서 교회 기관, 선교회, 교육 부서에 각기 1인의 자문위원을 파송한다. 각 기관의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어 담

임목사에게 보고한다. 노년부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한다.

실버행복교실을 시작하고, 노인들의 활동이 불편했던 공간을 노인들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개조한다. 노인들과 연관된 직간접 행사에 교인들이 관여한다. 노인은 숨겨진 존재가 아닌 드러난 존재로 교회에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기는 공동체이다. 서로의 기능을 존중하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위치에서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개발하여 교회와 사회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한다. 교회 중심의 목회를 지양하고 교회와 가정, 사회와 자연을 연결하는 공동관심의 목회를 해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교회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개교회의 특성, 즉 예산규묘, 시설공간, 주의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를 실시하고 지나친 방대한 계획을 세워 무리하여 교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번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계속하여 노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획과 배려가 필요하다. 교회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방만한 운영보다는 내실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운영할 경우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좋은 소문과 함께 교회 복음증거에도 큰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기체적 예수공동체라는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확고히 되어야 한다. 파트너쉽, 팀웍이 잘되야 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격려하는 태도가 많아져야 한다. 평소에 소외 되었던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신체 장애인들, 무숙자를 섬김, 노인들의 목회 참여가 조화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교회의 존재는 예수

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섬김에 있다. 교회란 예수그리스도를 중심한 사랑과 신뢰 희생과 봉사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육신은 약하나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과 영성의 위대함을 전 교인들이 깨닫고 노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아야 한다.

한인 교회들은 노인들에 대한 관심보다 한인 1.5세, 2세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년 시기를 인생의 최고 단계라고 인식되어, 노인 시기를 저가치화하며 사회적 무시로 이르게 한다. 한인 이민 1세 없이 한인 1.5세, 2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인 이민 1세(노인들)의 희생은 한인 이민 역사의 중요한 다리 역할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노인들의 위치를 재발견하고 그들의 존재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은퇴 후에 직업과 관련된 역할이 상실되면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을 무의미하고 무용하다고 느끼게 된다. 가을 낙엽처럼 사라져 가는 노인들의 황혼기를 보람있게 살도록 도와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성 훈련을 통해 노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

교회 청소년들을 적극 참여시켜 오늘날 기성 세대와의 관계성이 사라져 가는 때에 돌봄의 대상인 노인과 자원봉사자인 청소년들의 어울림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의 영성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인 교회 노인들과 한인 노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설문조사의 방법을 실시한다. 성서적인 영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를 개발한다.

노인들의 영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인 신앙 강좌를 분기별로 교회나 한인 노인단체에서 실시한다. 노인들의 영성 함양을 위하여 필라장로회에서 장로부부합창단(노인 성가대)를 활성화하고 특별행사에 찬양을 발표하도록 한다. 노인들

의 영적인 대인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매년 본 교회 전교인수련회를 통하여 노인들을 섬기도록 한다. 노인들의 영적인 체험을 확신시키기 위해 필라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필라복음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발견하게 한다. 복음화 대회는 큰 행사인데 찬양과 예배 분위기, 강사에 이르기 까지 온 교회 각 계층이 참여하기는 세대차를 발견하게 되어 많이 노력해보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노인들의 요청에 의해 Family Service를 연중 4회 실시하고, 노인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한다. 예배와 기도회에 담당순서를 진행한다. 노인들이 기도하고 심방하며 전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의 성장은 물론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노인들의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인 자신들도 놀라운 영적 변화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

노인성경공부

성서적인 영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로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를 본 교회 노인들을 중심실시한다. 주일 예배후 각 부별로 성경공부시간을 모이고 노인부는 본 연구자가 맡아서 지도한다. 교재는 그림성경공부로 복음에 충실하여 효과적이다. 노인들은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문화속의 간격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노인 의식화를 위한 성서 연구반에서 노년부회원의 의존적 성격이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바뀐다.

노인 신앙 강좌

노인들의 영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인 신앙 강좌를 2회 한인 노인대학에서 실시한다. 노인의 정체성과 자기발전의 필요성을 강의하고 기관이나 단체가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한다.

전교인 수련회

노인들의 영적인 대인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본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노인들을 섬기도록 한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영적가족 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교인들에게 나누도록 하였는데 매우 보람을 느끼게 된다.

노인들의 은사 개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사 확인 검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느가를 배우게 되어 전 교인이 자신을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의외로 은퇴한 노인들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출발하도록 하는 기회가 된다. 자원 봉사 활동에 더욱 보람을 느끼며 진지하게 임하게 된다.
노인들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본 교회 교인들의 한인교회와 한인 노인단, 영적 은사조사, 노인들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역할을 계속해서 조사 한다. 은사 개발 설문지를 사용한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 은사를 가진 노인들과 자매결연 행사를 갖고 종합적으로 돕는다.

한인 사회의 노인들의 도덕 재건운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인 시민단체들과 연합하고 시민윤리의식과 행사를 돕는다.

노인들의 자연사랑

노인들의 자연사랑과 환경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4월을 환경의 달로 설정하고 꽃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 주변 청소 등을 본 교회와 한인 단체들을 통하여 실시한다.

노인 도우미 선정

노인 도우미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젊은 은사자들을 발국하여 교육하고 노인도우미의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자원 봉사 단체와 연합한다.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노인복지 운영을 위해서 교회 자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교회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폐쇄성은 개선되어야 한다. 항상 교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회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원 봉사자와 실무자의 경우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복지를 통하여 노인들의 다방면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것이다.

노인 봉사회를 설립한다.

노인 봉사회의 활동은 한인 사회에 효과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으로 고독한 노인들을 서로 도우며 살 때 그들이 많은 위로나 안정을 느끼게 되며,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보람을 가지게 된다. 노인들과 젊은이들로 구성된 자원 봉사 단체로서 상담, 노인 은행, 노인부모 모시기, 노인 선교 사역, 무의탁 노인을 위한 노인 아파트 주선, 노인 연금, 자매결연 행사를 실시한다

노인문제 상담소

노인문제 상담소에서 순번제로 자원 봉사를 한다. 노인학대로 고통당하는 노인들을 돕는다. 지역사회 노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문제 상담소를 유치하고, 월 1회 법률 상담과 취업 상담, 재혼 상담을 실시한다.

노인들의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는 퇴직과 사별이다. 이것이 노인 치매의 원인도 된

다.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유용성을 자각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인구노령화는 제2의 인구혁명이라고 말한다. 교육성취가 낮은 노인들의 권력이나 권위를 젊은이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적 분위기로 인해서, 노인들의 역할은 자연스레 감소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인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가진 인생의 지혜와 영감을 개발하여 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전 인류의 생존 문제가 담긴 생명 공동체 운동에 참여 한다. 노인을 통한 교회의 참된 봉사와 권위를 세워야 한다. 은퇴한 노인들은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재능들의 집결소이다. 노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이나 자원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밀알사역 봉사

필라 밀알 장애인 단체 봉사를 통해 노인장애자 및 모든 장애인들을 섬기게 한다. 장애아 및 장애 노인 도우미를 파견한다. 이승학, 이민성, 구자왕, 정운나, 이유현 이상윤 등, 찬양과 상담, 장애자 교육, Ride, 장애특별 행사에 후원키로 한다. 자원봉사의 의미와 실천을 배우게하고 노인 봉사가 마치 장애인 봉사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구세군 자선 냄비 봉사

구세군 교회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온 세상과 함께 라는 주제로 어린이들과 청년들, 전교인이 나눔 행사에 참가하여 평일과 토요일에 한인 마켓 앞에서 봉사하므로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갖게 한다.

귀니드 양로원 봉사

귀니드 양로원은 랜스데일에 위치하고 있다. 필라 지역 한인이 많은 양로원으로 한인

노인이 50명 정도로 양로원 전체 노인 중 17%가 한인이다. 한국 간호원과 한국 음식으로 돌보고 있다, 디렉터 수산나 박과 함께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필라 교협과 필라 목사회가 협력하여 매년 한인 노인을 위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예배 및 성찬식과 선물(내의 화장품세트,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회를 실시한다.

인근교회를 연결하여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필라 교회 협의회와 필라 목사회를 통해 특별예배(부활절,어버이날, 추수감사절,성탄절)와 성찬식과 선물(내의 화장품세트,생필품)을 전달한다.

귀니드 양로원은 매년 방문할 때마다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4-5명이 되신다. 예배와 성찬식, 안수기도는 병들고 연약한 노인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사모하고 있다. 단체로 방문하여 순서를 갖는 목사들에게도 영혼의 귀중함과 복음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있다.

귀니드양로원과 청소년, homeless shelter를 방문하여 사랑나눔운동을 실천한다. 노년부 회원으로 구성된 목회지원팀이 구성되어 홈리스, 양로원, 병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진행한다

필라 기독상조회 봉사

필라 기독상조회를 통하여 노인 배우자의 이별을 위로하고 함께 장례를 도우며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교회 노인복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교회를 개방해야 한다. 상당수의 교회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본 교회 교인 중심이 되기 쉬움으로 지역사회 봉사의 차원에서 완전히 개방하여야 한다.

교회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결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달 체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우선 교회 내 사회봉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가능한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하여 보다 조직적인 노인복지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예, 원로제도를 없애기 위한 헌법 제정

교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명예, 원로제도를 없애기 위한 헌법 제정을 2012년 교단총회에 상정한다.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청지기 훈련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의 원로나 명예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구조나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 임을 강조하고 직분의 임무보다 영적 자격을 더 중요시해야한다.

평생교육 노인 학교

지역사회를 섬김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요, 임무이다.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 하는 일을 위해 교회의 섬기는 일들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한인 노인들에게는 한국어 학교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와 수영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젊은이들은 과거의 전통이나 과거와의 연속성 등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역할은 상실되고, 시대낙오자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평생교육 노인 학교를 범 교회적으로 설립하여 한인회와 노인회와 연계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며 다방면의 전문 교수와 재정 후원자들을 확보한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 보장, 기타 일상 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게 한다. 2011년도 현재 필라 인근에 있는 노인대학은 필라노인대학, 연합열린학교, 제일노인대학, 안나노인대학, 안디옥 평생교육대학, 벅스카운티 경로대학, 체리힐 보람학교, 렌스데일 경로대학 등 이 있다.

현재 한인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교를 효도학교로 개명하고 노인 교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예절과 전통, 서당 교육 등 뿌리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한다.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교회가 협력하여 함께 교사와 운영위원회에 참여

하며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버대학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노인 컴퓨터 교실, 어학교실, 수영교실을 적극 권장한다 한인 노인 센터에서 실시하도록 재안한다. 참여도는 노인들의 학력이나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 노인 프로그램이 유치되고, 노인 학교가 신설되고, 노인의 급식을 담당하고, 노인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인프로그램은 도서관, 무용반, 기초영어반, 영어회화반, 판소리반, 컴퓨터반, 치매예방반, 각종놀이방이 개설되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원로목사 및 은퇴 홀 사모 초청 위로회
필라 목사회 주관 원로목사 순회설교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이다. 필라지역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교인들에게 효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2세들에게는 한인의 문화를 배우게 한다.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필라 교협과 필라 목사회가 협력하여 원로목사 및 은퇴 홀 사모 위로 섬김 잔치를 매년 12월에 초청 교회에서 원로목사 및 은퇴 홀 사모를 초청하여 예배와 선물과 위로회를 실시한다. 이 섬김 잔치는 필라 동포사회에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며 교회가 앞장서서 이 행사를 가짐으로서 동포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후원이 있다. 동포사회에도 이런 행사가 마련되도록 한인회에 요청하기로 한다. 필라 한인 목사회 설날 하례회는 매년 갖는 연례 행사로 선후배간의 친밀함과 한민족 문화의 전수와 교회에서 노인들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다. .

노인 의료 봉사
한인 사회와 한인 노인들을 섬기기위하여 Albert Einstein Healthcare Network에 참여하여 한인 사회 유대와 필요를 공유하게 한다. 노인들이 예방의학, 재활의학 세미나에 적극 참석하게 한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의료선교회의 주기적인 봉사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노인들을 돕는다. 의료팀이 구성되어 무료진료와 처방, 간단한 무료

치료, 정신과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명 인사 초청강좌가 수시로 실시된다.

미국교회 교인 섬기기: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본 교회내의 자원 봉사자를 선발 하여 동시 통역기를 통한 미국 노인들 위한 예배 동시 통역, 점심식사하기, 성경공부하기, 건강 체크 하기, 상담하기 편지,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한다.

충효사상 운동
필라 충효본부 행사를 지원한다 본 연구자가 2009년부터 지도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매년 필라 충효본부에서 주관하는 충효사상을 고취시키 위해 행사가 준비된다. 효부, 효자, 선행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치하한다. 이제 15주년을 맞이하여 기관과 단체가 계속지원을 해야 하겠다.

교회가 노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교회의 사명이요 시대적인 요구이다. 노인목회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현대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이다.

Ⅷ.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Personal Evaluation)

1. 연구반원의 평가

1)연구 반 조직(Site Team)

본 실험 연구 논문에 동참하여 함께 연구하고 평가했던 연구반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총 인원 5명 중 남자 2명, 여자 3명으로 필라 한빛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찬양단과 중보기도, 교사 등으로 섬기고 있다.

번호	성명	나이	직업	직분	학력	생활정도
1	이경림	56	교 사	권사	대졸	중하
2	오창훈	43	교 수	집사	대학원졸	중
3	김희영	39	사무직	집사	대졸	중
4	이승학	30	학원강사	집사	대졸	중하
5	이민성	28	통역사		대학원재	중하

2) 연구 반 조직의 특성

연구 반 조직은 교회 형편에 맞추어 나이, 직업, 학력,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앞으로 연구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회의 성장과 사회봉사 및 목회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소그룹 운동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과 의욕적인 성도들로 구성하였다.

3) 연구 반 운영계획

매월 한번씩 교회에서 모여 주제에 관하여 연구, 토론하였다. 연구반 전원이 참석하도록 상호의견을 존중하여 긍정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였다. 현재 교회의 당면한 과제

를 분석하여 이상적인 교회 목표를 제시함으로 교회의 미래상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4) 연구반원들의 평가

연구반원들은 본인의 성격이 적극적이며 성실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다음과 같은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갖추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가) 목사:

목회는 목사와 전체 교인의 공동사역이다.[240] 진실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지도하는 원만한 목자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목회자로서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하심을 받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양치기의 모습이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한 사람들과 질병과 사고로 상심한 자들을 볼보며,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목자의 심정을 풍성한 사랑으로 서기를 원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은 물론, 소외되거나 뒤로 쳐지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는 일 역시 선한 목자의 역할이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한다.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맡겨진 양무리를 섬기는 일에 신실하게 임한다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주었다.

나) 교육자:

교육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은 언어를 통해 가르치는 것과 구체적인 삶을 통해

[240]Howard J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49.

모델이 되어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는 초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라는 의미에서 '선견자'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예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함께 바라보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비전의 사람이어야 한다. 한 때, 선지자의 이미지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처럼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와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는 사회변혁가로서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언자로서의 역할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친구처럼 늘 동행하는 자의 이미지이며, 무너진 교회의 벽과 기초를 다시 쌓는 재건축가 혹은 교회의 무너진 곳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지자 같은 이미지이다.

예언자로서의 목회자는 교회와 사회를 끊임없이 정화하며, 비판하며, 개혁해 나가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양 떼와도 같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옳은 길을 제시하고,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성경과 신학을 잘 조화시켜 최선을 다하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다) 설교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석하여 이 시대의 회중에게 이해하기 쉬운 최상의 언어와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테크닉까지 겸비한 탁월한 설교자로 보았다. 특별히 성경의 다양한 문학 장르와 개성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설교에는 목사 개인의 독창성과 스타일이 자신의 설교에 그대로 묻어 나와 다양한 문학적 기교와 수사학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특별히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상기기를 이용한 설교의 도입,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설교의 표현이 가능해

졌다. 또한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의 능력자라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속에서 설교라는 형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어 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영적인 개방성이 있는 설교자라고 보았다.

설교의 권위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본문에 있다[241].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설교문을 훌륭하게 작성하는 것 못지않게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그들의 갈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힘과 용기를 주고, 자발적인 헌신을 하도록 사람들의 독려하고 있다. 특별히 자신이 설포한 말씀에 자신도 감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본을 보이는 겸손한 설교자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온유한 심령과 친절한 미소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진지함이 있다고 보았다. 상황에 맞게 성경적인 설교를 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5) 연구 반원의 조언

연구반원들이 지적한 본인의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신학자:

자신의 상황에서 말씀을 특수한 시간과 장소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성숙한 학자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활동적인 성서 연구에 종사해야 한다. 성서신학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 대하 포괄적인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현대신학과 삶의 정황을 정립하여 미주 한인 사회를 분석하고 미주 한인 사회에 필요한 실천적 목회에 기여할 것을 조언했다.

---

[241]총회 교육국 편, *강해설교와 교회성장*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89), 62.

나) 상담자:

상담자는 피 상담자와 공동체 의식이 싹틀 때에 상담이 가능하다. 피상담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력과 사례분석 등 전문적인 상담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와 교회, 가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고독한 노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조언했다. 지식이 사람을 크게 보이게는 하지만 사랑만이 사람을 완전히 성장하게 한다.[242]

---

[242]Warren W. Wiersbe and David Wiersbe, *목회자 안내서* 한상식 역, (서울: 나침반사, 1986), 41.

2. 목회 능력 개발 시행

1) 신학자

성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훈련을 하며,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상담학이나 심리학 및 음악과 미술 및 건축과 문학 그리고 경제학과 경영학 언어학 고고학 등 일반 학문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야한다. 보수주의적인 신학이나 다소 급진적인 신학을 이해하며 통합하여 유익한 것을 취할 줄 아는 균형이 잡힌 신학자로서,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신학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학문, 하나님의 의한 학문, 하나님을 위한 학문을 시대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변화요건에 비추어 해석하여, 경험적인 삶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신학을 재창조하는 창조적인 신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신학과 목회현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통전적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주 한인 사회 분석을 위해 동아일보, 한인회 행사와 한인 단체들을 접촉해보니, 목회 사역의 종합적인 면을 얻게 되었고, 한인 교회가 한인 사회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어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어 팀웍이나 네트워크 사역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243]가 되기 위해 매주 1회 지역 인근 목회자들과 신학 서적이나 경건 서적을 읽고, 현대 목회, 설교 연구 모임을 가짐으로써 목회장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고, 서로 다른 달란트를 나눔으로써 목회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간격과 교회의 벽이 있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할 과제로 발견되었다.

---

[243]Eduard Thurneysen, *목회학 원론* 291-299.

소외 계층에 대한 연구를 신학대학원에서 연구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후원회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기독교 사상과 현대 목회, 신학 논단 등을 정기 구독함으로써 현대 신학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전문적인 면은 전문가에 의해 강의되어야 함이 발견되었으나, 그들의 초청이 쉽지 않았다.

한인 이민 목회 사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 미주 한인 사회를 분석하고 현대 신학과 사회학, 목회 상담 심리학을 연구한다. 이러한 신학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① 매주 1회 지역인근 목회자들과 현대 목회와 설교 연구 모임을 갖는다. 목사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발전시켜야 한다.[244]
② 소외 계층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위해 신학대학원에서 더 연구한다.
③ 기독교 사상과 현대 목회, 신학 논단의 잡지들을 정기 구독하고 연구한다

2) 상담자 :

상담자와 내담자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목회 상담의 목적은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조의 본질인 소외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245] 목회 상담이란 그리스도의 명령에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의식할 뿐 만아니라 교사, 예배 인도자, 병든 자와 성도를 돌보는 자로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목회직분을 담당하는 목회의 주체적 활동이다[246] 교회 교역자는 상처입은 치유자이다[247]
예수와 함께 해방을 선포하는 자는 자신의 상처와 함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예수는 세상에 새로운 방식의 섬기는 리더쉽(Servant-Leadership)을 소개해 주었다.[248]

---

[244]Richard Baxter, *참목자상*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74.

[245]Howard J Clinebell, *현대목회상담* 49.

[246]Thomas C Oden, *목회신학* 이기준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3), 23.

[247]Henri J M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 역, (분도출판사, 1990), 93-108.

목회 상담자로서 어떤 기준이나 이론을 택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더욱 완성되도록 창의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담자의 자질로 솔직함과 정직함, 순수함과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친밀함이 요구된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말하기가 부담을 주지 않으며, 다가가지 쉬운 사람이며,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며, 함께 느끼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아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돌보지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모든 치유와 상담 과정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이 탁월하다고 본다.

한인 봉사센터나 여성 봉사센터에 찾아가 자원 봉사를 하고, 전문 상담 기관에 회원이 되어 정보와 상담 기술을 전문적으로 훈련받게 되어 매우 유익하였다. 한인 노인들을 자주 만남으로써 한인 노인들의 상태와 그들의 문제를 잘 알 수 있었으며, 도와주어서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역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임을 발견하였다. 인근 지역 목회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함께 하여 연합적인 상담 사역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상담자의 자질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여야 하고, 성하여야 하며, 지혜가 있어야 하고, 상담과 전문 훈련이 필요하고, 소망의 사람이어야 하고, 확신의 사람이어야 한다.[249] 훌륭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력과 사례분석 등 전문적인 상담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① 한인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인 아파트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찾아가 노인들

---

[248]John R. W. Stott, *리더쉽의 진실* 정옥배 역, (서울: IVF, 2003), 9.

[249]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67-69.

의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준다.

② 한인 봉사 센터나, 여성 봉사 센터를 찾아가 자원봉사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③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회원이 되어 정보와 상담기술을 터득한다.

Ⅸ. 결론과 제언

1.요약 및 평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고독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영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인간은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 교회는 고독한 노인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과 불안정한 상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욕구들을 해소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노인들의 은사 개발을 통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이다.

현대사회의 발전은 노인들로 하여금 가정과 사회, 교회로부터 소외시키며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그러므로 책임사회 윤리를 회복시켜서 조화된 사회발전을 이룩하여야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인 노인들의 문화와 세대 간의 갈등과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한인 노인들의 전인 건강과 사회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화해와 평화공동체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영성 개발과 소명 의식을 함양시키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며 노인들을 위한 창조 공동체를 설립하여 노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능성을 개발하여 가정과 사회, 교회를 새롭게 변화되어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창조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필라 한빛교회 및 필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고독을 해방하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구하는 가운데 노인 목회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야에서 더욱 연구해야할 과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교회 목회자들이 노인문제에 바로 인식하고 교회에서 노인복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빛과 소금의 역활을 담당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쓰게 되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목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 서론에서는 본 논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목회현장의 배경을 제시하고 문제제기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부에서는 연구원들과 함께 노인의 고독 상담사역 사례조사와 분석을 하고, 실버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사역과 노인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 문제의 실상을 파악했다. 한미연합사역 및 친교사역을 통해 노인의 고독의 실제를 파악하였다.

제3부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노인 문제의 배경들의 실체를 정의하고, 후기 산업화 사회의 사회변동으로 현대적인 가치들과 대립되면서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태도나 행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기존 공동체 질서에 상실을 초래하였고, 노인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그들이 공유하는 문제의 개요를 밝혔다.

제4부에서는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은 현대화(modernization)에 기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대, 도시화는 현대화의 핵심적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다른 요인들을 유발시키거나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쳐 노인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급속한 현대화 과정의 인과적 관계를 통하여 노인들은 역할상실 및 여가시간의 문제, 수입 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 건강보호의 문제, 심리사회적 고립과 소외라는 고통을 받고 있다. 노인들의 문제를 학문적인 시각과 이민사회의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제 5부에서는 노인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여섯 가지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생명공동체로서의 역할 역할, 강화의 역할, 창조 공동체의 역할, 책임사회의 역할 , 성서적 영성을 개발하는 역할, 은사의 발견과 개발자의 역할 필라 한빛 교회의 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이지만, 이민사회의 한인노인들의 문제에 대안이 되도록 연구하였다.

제6부에서는 노인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

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민자 한인 노인들은 상당수가 미국에서 잊힌 무리로, 고립된 집단으로, 주변인으로 살고 있다. 노인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인교회는 노인과 그들의 문제 사이에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며, 한인목회가 노인들의 고독을 해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7부에서는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을 위해 연구반원들과 여러 면에서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제 8부 결론 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정리 요약하고 교회 노인목회의 활성화와 교회 노인목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제언하였다.

2.제언

임상 평가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노인 목회 활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21세기 새로운 가정 형태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가정으로서 남녀가 장수하는 노인들이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면을 발견한다. 이것은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미래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정의 성숙을 노인 목회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로서 제2의 인생을 책임있게 설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신앙생활에 적극적이고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을 가졌다. 노인들은 은퇴로 많은 일에서 떠났지만 평생교육과 신앙심을 날마다 고취시키므로 또 다른 차원에서 일의 질을 찾는 은사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생활양상은 가정에서 하는 일이 많다. 컴퓨터를 배우기에 열심이다. 의사소통이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경로사상의 고취와 행복하고 편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노인 문화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취미활동과 종교활동, 친목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학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인학교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노인 레져타운, 노인 카페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유롭게 배우며 봉사하면서 보람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생활의식은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손이 잘되기를 바라고 고독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보람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생명공동체 운동을 해야 한다.

교회는 개교회주의와 물량적인 차원의 성장이나 선교를 지양하고, 노인들의 정체성과 은사를 발견하며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시켜주며, 가정과 사회, 자연 속에 평화와 안정을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예비노인 교육을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시간적인 의미는 역사 속에 별 의미가 없다. 젊다고 하는 예비 노인들에게 교회는 근시안적인 인생 설계보다 포괄적인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 연구 결과 젊어서 충실한 삶을 영위한 자가 노인이 되어서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 시켜야 한다.

교회에서 노인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노인목회에 대한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인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 교회 노인목회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노인복지현장을 탐방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하여 필요성을 깨닫고 교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노인목회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항상 교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회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 청소년들을 적극 참여시켜 오늘날 기성 세대와의 관계성이 사라져 가는 때에 돌봄의 대상인 노인과 자원봉사자인 청소년들의 어울림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창조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록(Appendices)

A. 노인헌장

노인 헌장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음으로써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敬老孝親)과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풍양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2,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인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82년 5월 8일 제정·공포한 시민헌장(市民憲章)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르는 노인문제는, 경로효친의 미풍을 전통적으로 간직한 채 산업화과정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전시킬 계기의 마련이 절실하였다. 헌장에는 전통윤리와 늙어서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기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반(半)강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세계 최초의 노인헌장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지니는 이 헌장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에서는 노인의 위치, 산업사회 속에서 노인이 처한 상황, 선(先)가정 후(後)사회의 노인대책, 노인의 책임 등을 천명하고, 노인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받아야 할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B. 필라 한빛교회 주보

<1면>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장24절

Grace&Korean Church Lord's Day Worship Service

11:00 A.M.

Prelude Bob Haywood

Welcome & Announcements. Bob Eisemann

Call to Worship(예배의 부름)

*Hymn #74(55장)

*Invocation(기원)

Hymn #78(512장)

Scripture(성경봉독) Genesis29:1-20 이윤희 집사

Special Song(찬양) 이영자집사 가정

Congregational Prayer(기도)김희영 집사

Offering(봉헌)박은숙 집사

Hymn #278(405장)

Sermon(설교)"The Power of Love"(사랑의 능력) Pastor Lee

The Lord's Supper(성찬식)Pastor Lee

*Benediction(축도)Pastor Lee

*표는 일어나서(Please Stand)

(이번주 안내위원: 오창훈 집사)

C. 은사 발견 검사(설문지) 와그너 수정 후츠 설문지

영적 은사를 발견하도록 구성한 설문지다. 성경에서 제시한 25가지 영적 은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한다. 아울러 125가지 질문을 통해 영적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점수를 계산하고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꾸몄다. 이 설문은 C.Peter Wagner 교수가 정리한 은사발견을 위한 설문이다. 이 은사발견 및 확인표를 통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자신이 가진 대표적 은사와 보조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1.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말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2. 나는 여러 사람들과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같이 나누면서 동참하는 일을 좋아한다.
3. 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내가 성경의 진리를 그들에게 의미있게 잘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4. 나는 성경의 영적 진리를 나의 생활에 잘 적용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5. 사람들은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아주 알기쉽게 가르치고 설명한다고 말한다.
6. 나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좋아한다.
7.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분별하곤 하는데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한다.
8. 나는 주의 일을 위해 더 많이드리도록 돈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기쁨으로 애쓴다.
9. 나는 주의 종들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모로 도와주기를 즐거워한다.
10. 나는 몸이나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고통이 감소되도록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
11. 나는 특별히 소외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도 나를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12. 나는 전도하여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즐겨한다.

13. 나의 집은 누구든지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14. 어느 모임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인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편이다.
15. 내가 말할때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편이며, 또 그 말에 따라주는 편이다.
16. 조직이 잘 안되어 있는 그룹에서 나는 그 약한 조직을 강화시켜 주기를 즐겨한다.
17.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응답으로 자주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18.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즉각적으로 치료시키는데에 사용되어져 왔다.
19. 나는 방언을 말한다.
20. 가끔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때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질때가 있다.

21. 나는 더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청빈하게 산다.
22. 나는 독신생활을 즐기며 산다.
23. 나는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에 소비한다.
24. 내가 약한 영(귀신)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나의 말에 복종한다.
25. 나는 교회를 위한 특별한 일에 부름받는 것을 즐거워 한다.
26.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밝히곤 한다.
27. 나는 성도들의 영적 축복을 위해 책임맡은 자라고 확신하며 또 일에 즐거워 한다.
28. 나는 건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을 위한 신약의 교훈을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9. 나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당한다.
30.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곤 한다.

31. 나는 필요한 사역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할 수 있다.
32. 나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상을 볼 수 있다.
33. 나는 교회와 주님 사업을 위해 나의 전체수입중에서 10% 훨씬 이상을 바친다.
34.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에 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3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필요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36. 나는 다른 문화권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배울때 아주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 내가 예수믿고 구원받은 것을 간증할때 많은 불신자들이 은혜를 받는다.
38. 나는 교회 행사에 몸으로 봉사하기를 즐겨한다.
39. 나는 불가능한 일이 쉽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한다.
40. 다른 신자들이 나의 지도력을 따라주는데 그것은 그들이 나를 믿기 때문이다.

41. 나는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휘해 아이디어, 사람, 물질등의 자원을 조직화하는 데에 특별한 취미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2. 하나님은 나를 통해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
43. 나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기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때문이다.
44. 나는 내가 전혀 모르는 말로 하나님의 메세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곤 한다.
45. 내가 어떤이의 방언을 통역해주면 그 결과 교회에 위로와 유익이 된다.
46.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47. 내가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
48. 누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기도해 준다.
49. 나는 실제로 귀신이 소리지르며 말하는 것을 듣는다.
50. 나는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교회가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51.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메세지를 적시에 전달한다고 말한다.
52. 나는 성도를 인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53. 나는 성경의 새로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54.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때 나는 자누 퍼선의 성경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곤 한다.
55.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전략과 방법을 구별해 왔다.
56. 슬픔이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소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곤 한다.
57. 나는 아주 확실한 믿음으로 악령에 들린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58. 하나님 사역에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나는 그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59.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 놓은 지루한 일도 즐겁게 하는 경향이 있다.

60. 나는 병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일이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61.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것을 좋아한다.
62. 내가 예수믿는 것을 자주 표현하여 영향을 미쳐도 불신자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63. 우리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마치 자기네 집인것처럼 편안하다고 말하곤 한다.
64.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
65. 재가 목표를 세우면 사람들은 쉽게 따라준다.
66. 나는 어떤 그룹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일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67.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내 생애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기적같이 이루시는 것같다.
68. 내가 사람들을 도와줄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69. 나는 전혀 배우지 않은 말로(방언) 하나님께 말할 수(기도) 있다.
70. 다른 사람이 방언 말하는 것을 통역하여 기도할 수 있다.

71. 나는 가난한편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
72. 나는 혼자 살기때문에 더 주님을 섬길수 있는 시간이 많다.
73.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내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즐거운 때이다.
74.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의심이 가면 사람들은 항상 나를 부른다.
75.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평범한 일에 싫증내지 않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편이다.
76. 나는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라고 시키시는 강력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77. 나는 동료신자들에게 말씀으로 인도, 양육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있다.
78. 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지식, 태도, 가치, 혹은 행위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
79.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닫고 또한 취사선택 하여 다른 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고 말한다.
80. 나는 새로운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꽤 많은 시간을 드려 공부하고 읽는다.
81. 나는 실망한 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 혹은 중독자(술,마약,섹스,노름 등) 를 효과적으로 상담해주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

82. 나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83. 나는 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며 살아간다.
84. 나는 남모르게 사람을 도울 때 정말 기쁘다.
85. 불행한 사람을 도와야 할 때 사람들은 나를 부른다.
86. 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때 매우 마음이 기쁘고 편하다.
8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을 때 매우 실망한다.
88. 사람들은 내가 손님접대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89. 다른 사람들은 잘 못느끼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확실하게 느낄 때가 많다.
90. 내가 어떤 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세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을 때가 있다.
91. 나는 어떤일을 하라고 설득할 필요없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92. 사람들은 내가 생활과 환경에 초자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적이 있다.
93.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결과 병든자가 낫기도 한다.
94. 내가 공중앞에서 방언을 말할때 나는 그 방언이 통역되기를 기대한다.
95.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면으로 방언을 통역한 적이 있다.
96. 사람들에 의하면 나는 너무 지나치게 주의 일 때문에 물질적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한다.
97. 나는 독신으로 혼자 살지만 성적인 문제때문에 어려운 적은 거의 없는 편이다.
98. 내가 기도해 준 사람들에 의하면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99. 내가 기도해주면 계속해서 귀신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게된다.
100.나는 누가 말하는 것을 듣거나, 단지 읽거나, 대화를 나누기 보다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01.나는 가끔 어떤 특별한 시간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때 가 있는 것 같다.
102.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었다고 한다.
103.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남과 나누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른다.

104.나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될 때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를 개인적으로 확신할 때 가 많다.
105.나는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을 살펴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 지고 있다.
106.나는 고난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으로 성경을 찾아보도록 권면하고 있다.
107.나는 누가 방언은 말하면 그것이 참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
108.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난한 삶을 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109.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
110.나는 고독한 사람, 혼자사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겹다.

111.무엇보다도, 나는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싶다.
112.나는 불신자를 전도하려는 소원때문에 그들로부터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13.나는 주의 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의 집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다.
114.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환상을 잘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115.내가 무슨 일을 책임 맡으면, 모든 일이 부드럽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
116.나는 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책임을 맡는 것을 즐거워 한다.
117.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 적이 있고 또 할 수 있다.
118.내가 벼자를 위해 기도하면, 나나 혹은 그들이 몸에 어떤 떨리는 현상이나,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19.내가 방언을 말할때 나는 그것이 교회에 억을 세우는 것임을 믿는다.
120.내가 방언을 통역하면 그 말씀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

121.내가 그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인다.
122.나는 바울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다.
123.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주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안다.
124.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125.나는 비록 작고 보잘것 없는 일일지라도 어떤 일을 부탁맏으면 기쁨으로 응답하

는 편 이다.

은사 발견 측정 챠트

은사 발견 설문지의 결과를 각 번호에 따라 아래 도표의 번호옆에 그 측정치 번호를 적어 보시오.

<매우 그렇다. = 3, 어느 정도이다. = 2, 조금이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0 >

V a l u e o f A n s w e r 측 정 치 | T o t a l 합 계 |

☞각 은사에 대한 정의

여기에 열거된 27가지 은사는 C. Peter Wagner교수가 분류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이다.

1. 예언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세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별된 말로 전달하는 역량이다.

2.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연관된 과업 가운데 충족되지 못한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그 요청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역량이다.

3.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몸과 그 지체들의 건강 및 직임에 관계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량이다.

4. 권면

권면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의 말과 조언의 말을 해주어 그들이 실제로 도움이나 치유를 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역량이다.

5. 헌금

헌금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그들이 물질적인 자원을 관대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바치는 것이다.

6.지도력

지도력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 하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 목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량이다.

7. 긍휼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순수한 자비를 느끼고, 그 순수한 자비를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역량이다.

8. 지혜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성력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어진 지식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요구 사항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역량이다.

9. 지식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몸의 성장과 번영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발견하고 쌓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하는 역량이다.

10. 믿음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간하는 역량이다.

11. 신유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시는 일의 중개자로서 봉사하는 역량이다.

12. 기적

기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관측자들에게는 자연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일로, 지각되는 하나님의 능력있는 행동의 중개자로 봉사는 역량이다.

13. 영 분별

영 분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그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혹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인

지 혹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14.방언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A>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역량이고,<B>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세지를 받아서 배우지 않은 언어인데도 하나님의 성별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량이다.

15.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메세지를 일상어로 알려 주는 것이다.

16. 사도

사도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특히 영적인 일애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직을 맡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일의 놀라운 권위란 그 여러 교회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평가되는 영적 권위를 말한다.

17. 서로 돕는 일

서로 돕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몸의 다른 지체들의 활동에 주어, 그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의 효율을 증대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18. 행정

행정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

로서, 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 단위의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계획을 기안하여 실행할 줄 안다.

19.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여량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의 책임있는 지체가 되도록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량이다.

20. 목사

목사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신자들의 영적 번영에 대한 책임을 장기간에 걸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다.

21. 독신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꼐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독신 생활을 아무런 지장없이 할 수 있고, 성적 유혹도 받지 않는 것이다.

22.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일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일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하나님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섬김 위하여 물질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 특정 사회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양식을 택하여 사는 것이다.

23. 순교

순교의 은사는 하나님꼐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

서, 믿음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기쁨과 승리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24. 대접하는 일

대접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숙식의 요구되는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이다.

25. 선교사

선교사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다른 은사들이 어떠한 것이든, 제2의 문화권에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이다.

26.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보통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응답을 많이 받는다.

27.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마귀와 악령을 쫓아내는 역량이다.

D.토마스 홈스 (Thomas Holmes) 스트레스 측정표

스트레스 유발 사건	스트레스 가산점
배우자 사망(Death of spouse)	100
이혼(Divorce)	73
별거(Marital separation)	65
교도소 수감(Jail term)	63
가족사망(Death of family member)	63
신체부상 또는 지병발생(Personal injury or illness)	53
결혼(Marriage)	50
직장해고(Fired from work)	47
부부갈등(Marital problems)	47
시집, 처갓집과의 문제발생 (Conflicts with in-laws)	46
직장은퇴(Retirement)	45
가족의 지병발생(Illness in family member)	44
임신(Pregnancy)	40
성생활 장애 발생(Sexual difficulties)	39
신생아 또는 가족인원증가(Newborn or new family member)	39
비즈니스 재조정(Business readjustment)	39
경제적, 재정적 문제(Financial difficulties)	38
절친한 친구의 사망(Death of close friend)	37
직업 또는 전공변경(Change to different line of work/major)	36
부부사이의 언쟁횟수 증가(Change in number of arguments with spouse)	35
주택구입 모게지 또는 융자신청(Mortgage or loan)	31
주택차압 (Foreclosure)	30
직업상 임무/책임 변경	29
자녀들의 집 떠나기	29
개인적 성취, 성공	28
배우자 직업전선 나서기	26
학업 시작 또는 졸업	26
생활환경변화	25
생활습관변화	24
직장상사와의 문제	23
직장 출퇴근시간 또는 환경변화	20
이사 또는 이주	20
학교 전학	20

여가시간/활용방법 변화	19
종교 활동 변화	19
사회 활동 변화	18
소액융자신청	17
수면습관의 변화	16
가족모임 횟수 변화	15
식생활습관 변화	15
휴가	13
크리스마스	12
교통법규 등 경범법위반	11

스트레스 점수 계산법:

위의 스트레스유발 사건들 중에서 지난 2년 동안 귀하에게 발생한 사건들을 점검하여 발생빈도를 스트레스 가산점수에 곱하여서 합계를 산출 한다.

스트레스 사건	발생빈도	x	스트레스 가산점	=	점수
				점수 합계	

점수합계가 150점 미만일 경우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경미하다. 150점 - 200점일 때는 축적된 스트레스로 이미 불안한 심리상태에 빠져있으며 약 30%는 신체적, 정신적 지병이 발생할 확률이 있으며, 200 - 299점 일 때는 50% 지병발생확률이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300점 이상인 경우는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후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중에서 80%는 신체적, 정신적 지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수가 200점이 초과되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건강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 노인 설문지

노인 은사 개발에 관한 설문서

* 본 설문지는 학교의 연구논문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 분들의 신원은 전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 한 가지만 선택해 동그라미로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연령: 60-64, 65-69, 70-79, 80-84, 85-89, 90이상

2.성별: 남자, 여자

3.결혼: 유 무

4.교육: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5.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무

6.출생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7.가족형태: 자녀와 함께, 단독세대

8.생활비: 스스로, 자녀의존

9.가정에서 하는 일: 하는 일이 없다, 잡일, 집보기, 손자녀 돌봄, 기타

10.여가소일: 공원, 노인 회관, 방문, TV, 라디오 시청, 컴퓨터, 운동

11.대화상대: 자녀, 배우자, 며느리, 친구, 없음

12.단체 활동 참여: 친목회, 종교활동, 취미활동, 노인회, 기타

13.노인학교: 자주나감, 가끔 나감, 전혀나가지 않음

14.현재의 마음상태: 행복하다, 그저 그렇다, 불행하다

15.노인의 소망: 자손번영, 건강, 일자리,

16.고독: 자주 느낀다, 가끔 느낀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17.배우고 싶은 것: 컴퓨터, 영어, 국악, 식물학, 땐스, 피아노

18.앞으로 하고 싶은 일: 여행, 봉사, 선교, 꽃집, 운동, 네트웍비지니스, 손주 돌보기

이 설문지에 답해주시어 감사합니다.

F. 기대수명 자동 계산기

자료는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후 기대 수명에 대한 통계적 의견입니다. <원전,D.K.Hannis,노년의 사회학에서...>

간단해 보이나 내부적으론 나름대로 많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을만하니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몇살입니까? 54 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 짧고 굵게(부정적) ○ 남들사는 것만큼(권장) ○ 얇고 길게(긍정적)

1)개인적인 자료

1.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 남자 ○ 여자

2. 2백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만명 이하의 읍이나 농지에서 사십니까? ○ 예 ○ 아니오

4. 한명의 조부모가 85세까지 사셨습니까? ○ 예 ○ 아니오

5. 외가,친가 합쳐서 조부모 4명이 모두 80세까지 사셨습니까? ○ 예 ○ 아니오

6. 부모가 50이전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신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7. 부모나 형제,혹은 누이가 50세 이하에 암이나 심장병이 있거나, 아동기 이후 당뇨병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 일년에 6000천만원 이상을 법니까? ○ 예 ○ 아니오

9.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 예 ○ 아니오

10. 대학원 학위나 전문직 자격증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1. 65세 또는 그 이상이고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건강스타일에 관련된 사항

1. 책상에서 일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 일이 정규적이고, 무거운 육체 노동을 요구하십니까? ○ 예 ○ 아니오

3. 일주일에 다섯 번을 적어도 30분씩 지속적으로 운동하십니까?(테니스,달리기,수영등) ○ 예 ○ 아니오

4. 일주일에 두 번 혹은 3 번 운동하십니까? ○ 예 ○ 아니오

5. 매일 10시간 이상씩 잡니까? ○ 예 ○ 아니오

6. 성격이 감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쉽게 화를 냅니까? ○ 예 ○ 아니오

7. 편안히 생각하고 쉽니까? ○ 예 ○ 아니오

8.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 예 ○ 아니오

9. 작년에 속도 위반 딱지를 땠습니까? ○ 예 ○ 아니오

10. 여성이고 일년에 한번 산부인과 의사를 찾으십니까? ○ 예 ○ 아니오

11. 담배를 얼마나 피우십니까?

○ 두갑이상 ○ 한갑~두갑 ○ 한갑~반갑 ○ 피우지않는다

12. 40세 이상이고 매년 건강 체크를 하십니까? ○ 예 ○ 아니오

12.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키 : [170] cm 몸무게 : [78] kg

당신은 [비만] 입니다.

[작성완료]

당신의 기대 수명은 [84] 살입니다.

앞으로 [30] 년 남았습니다.

일(Day) 수는 대략 [10950] 일 정도 남았습니다.

참고 문헌(Bibliography)

A. 한국 서적

고영복, *현대사회의 문제.* 서울: 사회문제연구소, 1994.

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김남식, *기독교에서 본 문화.*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김동욱 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김동배,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서울: 집문당, 1999.

김상복,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횃불, 1993.

김영한, *기독교신앙개설.* 서울: 형설출판사, 1987.

김용복, *교회와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김정후, 한만주, *노인인력 활용정책과 프로그램.* 서울: 집문당, 1998.

김재은, *성인교육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2.

김형태, *목회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김태련,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4.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노인 정신의학.* 서울: 중앙문화사, 1998.

맹용길, *노인복지 목회론.*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민병갑 외 9인, *미국속의 한국인.* 서울: 유림문화사, 1991.

민영진, “하느님의 백성의 인간화”, *공동체 신학 모색.* 크리스챤아카데미 신학연구회 편, 서울: 전망사, 1992.

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박익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운동들” *공동체 신학의 모색.* 크리스천 아카데미 신학연구회 편,서울: 전망사, 1992.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1995.

서인석, *성서 속의 가난한 사람들.* 분도출판사, 1991.

성규탁, *부모부양 위지의 비교 문화적 고찰.* 서울: 나남출판, 1995

손규태, “본회퍼” *103인의 현대사상.* 서울: 한길사, 1996.

신용하,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서울: 한길사, 1989.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9.

오세철, *조직행동.* 박영사, 1983.

윤사무엘, *미주 한인교회 100년의 발자취와 비젼.* 서울: 보이스사, 2002.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부, 1985.

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은기수 “노인문제:노령화와 노인들에 대한 이해” *전환기 사회문제.* 권태환 외 편, 서울: 믿음사, 1996.

이원규,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______,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______,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1997.

이인수,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1.

이장식, *현대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이정배, *생명의 하느님과 한국적 생명신학.* 서울: 새길, 2004.

이정호, *기독교 노인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2.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9.

이창희, *필라델피아한인사.* 필라델피아 한인회, 1995.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3.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정웅섭, *기독교교육개설.*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2.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______,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1996.

조은숙, *정신위생.* 서울: 제동문화사, 1967.

조종무, *아메리카 대륙의 풍운아들.* 서울: 조선일보사, 1987.

최학녀, *미국 이민생활 속의 스트레스.* New York: 가나안 인쇄, 1993.

총회 교육국 편, *강해설교와 교회성장.*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89.

한국선교교육연구원, *교회교육 핸드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1-7.* 조종남, 김홍기, 임승안 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한 홍,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현용수, *문화와 종교교육.* 서울: 쿰란, 1993.

호태석, 황정혜, *교회와 노인복지.* 갈릴리출판사, 2002.

홍성주, *영성과 행복.*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홍일권 편, *세계 기독교 정보.* 서울: 나단, 1994.

한국노인복지회 편, *재가 노인 복지사업.* 서울: 홍익제, 1997.

B. 번역서적

Baxter, Richard. *The Reformed Pastor. 참목자상.*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Berger, L Peter. *The Sacred Canopy. 종교와 사회.* 이양구역. 서울: 종로서적, 1992.

Bloch, Ernst. *Das Prinzip Hoffnung. 희망의원리 1.* 박설호 역. 서울: 솔출판사, 1997.

Boff, Leonardo. *Church: Charism and Power. 교회의 권력과 은총.* 유종순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90.

Bonhoeffer, Dietrich. *Gemeisame Leben.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1.

Balado, Jose. *The story of Taiz. 떼제 이야기.* 이미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3.

Beauvoir, de Simone. *The Coming of Age. 노년.* 홍상희, 박혜성 역. 책세상, 1994.

Clinebell, J Howard. *Growth Counseling. 성장상담학.* 김선도 역. 서울: 광림, 1990.

Clinebell, J Howard. *Pastor and Parish: The Pastoral Counselor in Social Action.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4.

______.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장로교출판사, 1996.

______.*Well Being. 전인 건강.* 오성춘, 이종헌 역.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5.

Collins, R Gary. *Christian counseling. 크리스챤 카운슬링.* 피현희, 이혜련 역. 서울: 두란노, 1992.

Come, Arnold B. *Human Spirit and Holy Spirit. 인간의 영과 성령.* 김성민 역.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4.

Cone, H James. *God of the Oppressed. 눌린자의 하느님.* 현영학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Drucker, F Peter. *Managing For the Future: The 1990s and Beyond.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Erikson, H. Erik. *Childhood and Society. 아동기와 사회.* 윤진, 김인경 역. 중앙적성출판부, 1988.

Fowler, W. James. *Stages of Faith 신앙의 단계들.* 이재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

회, 1966.

Holmes, F. Arthur. *Contours of a World View. 기독교세계관.* 이승구역. 서울: 엠마오, 1985.

Holl, Adolf. *Jesus in schlechte Gesellschaft. 소외된 사회의 예수.* 김희은 역. 서울: 종로서적, 1983.

Macdonald, Gorden. *Ordering Your Private World.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홍화옥 역. 서울: IVF, 2003.

Moltman, Jurge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of God.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______. *The Coming of God: Christian Eschatology. 오시는 하나님.*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_.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영.*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Nash, A. James. *Loving Nature. 기독교 생태윤리.* 이문균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7.

Newman, B.M. & Newman, P. R.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4th ed. 현대 발달심리학.* 박아청 역. 서울: 형설출판사, 1990.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 사회.* 이병섭 역. 현대사상사, 1972.

Nouwen, J. M. Henri. *The Wounded Healer. 상처입은 치유자.* 이봉우 역. 분도출판사, 1990.

Oden, C Thomas. *Pastoral Theology. 목회신학.* 이기준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3.

Piepke, Georg Joachim. *Die Kirche auf dem Weg zum Menschen. 브라질바닥공동체.* 강원돈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0.

Rogers, R Carl. *Counseling and Pychotherary.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한승호 역. 서울: 집문당, 1989.

Rowe, John. Robert Kahn. *Successful Aging. 성공적인 노화.* 최혜경, 권유경 역, 서울: 신정, 2002.

Seamands, A David. *Living With Your Dreams. 좌절된 꿈의 치유.* 이갑만 역. 서울: 두란노, 1994.

Soelle, Dorothee. *Lieben und Arbeiten. 사랑과 노동.* 박재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______. *Gott Denken.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서광선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Spann, J. Richard. *The Ministry. 목사학.*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Stevens, R Paul. *Liberating the Laity.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 역, 서울: IVP, 1992.

Stone, W Howard. Geoffrey Peterson. *Crisis Counseling Conscience and Caring. 위기상담.*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Stott, R. W. John. *Calling Christian Leaders. 리더쉽의 진실.* 정옥배 역, 서울: IVF, 2003.

Sanford, A John. *Dream. 꿈.* 정태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Satir, Virginia. *People Making. 피플 메이킹.* 배영자 역. 서울: 보이스사, 1979.

Snyder, A Howard. *The Radical Wesley.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______. *Prospects of 21st Century Church. 21세기 교회의 전망.* 박이경, 김기찬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Towns, L. Elmer. *What's different in the church to grow?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김홍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Thurneysen, Eduard.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목회학 실천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제 3의 물결.* 홍갑순, 심정순 역. 대일서관, 1982.

Tournier, Paul. *Learn to Grow Old.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87.

Wagner, C. Peter. *Your Spit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Webber, E Robert. *Secular Saints. 기독교문화관.* 이승구역. 서울: 엠마오, 1987.

Weber, Max. *Economy and Sociology. 지배의 사회학.* 금종우, 전남석 역. 서울: 한길사, 1993.

Wiersbe, W. Warren and David Wiersbe, *Making Sense of the Ministry. 목회자 안내서.* 한상식 역. 서울: 나침반사, 1986.

Wilson, R. Marvin. *Our father Abraham Jewish roots of the Christian faith. 기독교와 히브리 유산.* 이진희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6.

Wolff, Walter Hans.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분도출판사, 1976.

C. 외국 서적

Barbour, Ian. *Ethics in an of Technology.* Harper San Francisco, 1993.

Baum, Gregory. *Religion and Alienation.* New York: St Paulist Press, 1975.

Bowdon, A Boyce. "Rights of the Aging", *Faith Meets Life*, Nashville: Grand Press, 1981.

Bunzel, H Joseph. "Note on the History of a concept-Gerontophobia", *The Gerotologist.* No 1(2) Summer, 1972.

Burkhart, E John, *Worship.*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2.

Charles, Scriven. *The Transformation of Culture.* Scottdale: Herald Press, 1988.

Clinebell, John Howard.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ingdon Press, 1984.

______. *Ecotherap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Coser, A Lewis. *Continities in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Cowgill, D,O & Holmes, LD.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orfts, 1972.

Dussel, Enrique trans. Barr R Robert, Matyknoll. *Ethics and Community.* New York: Orbis Books, 1993.

Fischer, Rose Lucy and Kay Banister Schaffer. *Old Volunteers:A Guide to Research and Practice.* Newbury Park: Sage Pub, 1993.

Fox, Mattew. *Original Blessing.* Santa Fe: Bear & Company, Inc, 1986.

______. *The Reinvention of Work:A New Vision of Livelihood for Our Time.*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 1992.

Gottward, K Norman.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Gonzalez, L. Justo. *Manana.* Nashvill: Abingdon Press, 1992.

Jane, Myers. *Empowering Old People.* Connecticut: Auburn House, 1995.

Kubler-Ross, Elisabeth.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an Publishing Co, 1974.

Lehmann, Paul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per, 1963.

Linthicu, C. Robert. *Empowering the Poor.* Monrovia California: MARC Press, 1991.

MacGorman, W. Jack. *The Gifts of the Spirit.* Nashville: Broadman Press, 1974.

Marcuse, Herbert. *The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McGuire, B. Meredith. *Religion:The Social Context.* Belmont: Wadsworth, 1981.

Min Pyong Gap. *Asian Americans.* Sage Publications, 1995.

Muelder, George Walter. *Moral Law in Christian Social Ethics.* Richmond: John Knox Press, 1966.

Rahner, Karl.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An Introduciton to the Idea of Christianity.* New York: Crossroad, 1989.

Raz, Joseph. *The Morality of Freedo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Temple, William. *Natrue, Man and God.* London: Macmillan, 1934.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Ⅱ.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7.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New York: Morrow, 1980.

Wogaman, J. Philip. *Christian Perspective on Politic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D. 신문

문화일보 2003년 8월 9일

미주 동아일보 2002년 11월 6일(수).

미주 조선일보 1994년 4월 20일(토) 15

Sunday Journal 2006년 12월 22일

Sundaytopic 2010년 11월 19일(금)

워싱톤 한국일보 2003년 3월 17일

조선일보 2001년 5월 30일(수)

한국성결신문 2010년 12월 4일(토)

코리안 데일리뉴스 2010년 12월 30일(목)

E. 잡 지

김주숙. “사회 변화와 가족 형태”. 기독교 사상, 1985년. 5월호

문영탁, “교회와 노인”. 풀빛목회, 1982년. 12월호

이석철, “목회상담학에서 본 노인이해와 삶의 관리”, 두란노,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F. 사 전

중앙교연.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범한, 2004년.